

한라산 총서 VI

한라산의 등반·개발사

목차

제1장 한라산 등반 및 개발사

1. 탐라시대의 한라산 등반 15
한라산을 처음 오른 사람은 / 15
2. 조선시대의 한라산 등반 23
노인성과 한라산 등반 / 25
기록을 통해서 본 등반코스 / 26
3. 1900년대 전반기의 한라산 등반 32
외국인들이 찾은 한라산 / 32
일제에 의한 한라산 수탈 / 40
국토순례로서의 한라산 등반 / 43
4. 한라산과 제주도민 51
한국산악회와 국내 최초의 조난 / 51
4·3사건과 한라산 / 53
5. 4·3항쟁 이후의 한라산 등반 58
한국산악회와 한라산 / 58
대피소의 신축 / 60
부종휴와 한라산 / 62
산악안전대의 창립과 산악활동 / 65
등산로의 개척 / 69
문화재위원이 지켜낸 한라산 / 73
학생들이 시작한 한라산 등반 / 75
표고버섯 재배와 국유림 남벌 / 77
횡단도로 개설과 한라산 등반 / 80
적설기 전국대학생등산대회 / 82
6. 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한라산 85
국립공원 지정 / 85
케이블카 논쟁 40년 / 89
훼손되는 한라산 / 97
방목 논란 / 107
축제의 무대로 변한 한라산 / 111
등산패턴의 다양화 / 114
오름을 찾아서 / 118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 신청 / 123

2.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시설현황	128
한라산 등산로 /	12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146
매표소 /	146
주차장 /	147
야영장 /	147
공중화장실 /	148
대피소 /	148
민관관리 공원시설 /	149

제2장 한라산의 산악활동사

1. 한라산의 동계 첫 조난사	155
2. 1940~1950년대의 산악활동	159
3. 1960년대의 산악활동	174
4. 1970년대의 산악활동	195
5. 1980년대의 산악활동	202
6. 1990년대의 산악활동	208
7. 2000년대의 산악활동	210

제3장 한라산의 훼손·복구 및 자연보호

1.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 역사	249
2. 한라산의 훼손 유형 및 원인	253
훼손 현황 /	253
훼손 유형 /	256
훼손과 환경조건 /	259
훼손과 이용자 특성 /	262
훼손원인과 과정 /	265
3. 한라산의 훼손 복구 및 자연보호 현황	267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의 기본 원칙 /	267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 현황 / 270

훼손지 및 복구지 식생 변화 / 275

훼손지 복구의 문제점 및 과제 / 287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 추진 방향 / 291

4. 한라산 등산로 정비 294

한라산 등산로 정비 공법 / 294

한라산 등산로 정비 현황 / 297

등산로의 자연휴식년제 / 299

참고문헌 303

사진 목차 307

표 목차 309

색인 310

제1장 한라산 등반 및 개발사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도. 이 섬의 한 가운데 1,950m의 높이로 우뚝 솟은 산이 한라산(漢拏山)이다. '능히 은하수를 잡아당길(雲漢可拏引也)만큼 높은 산'이란 뜻의 한라산은 예부터 남녘의 노인성을 굽어본다 하였다. 제주 사람들은 예부터 한라산을 신선(神仙)들이 산다고 해서 영주산(瀛州山)이라 부르기도 했고, 금강산(金剛山), 지리산(智異山)과 더불어 우리나라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여겨 왔다.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한라산은 물의 여느 산과는 다른 독특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산정호수인 백록담(白鹿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사라오름과 성널오름, 서쪽으로는 윗세오름과 불래오름, 남쪽으로는 방아오름, 북쪽으로는 장구목과 삼각봉 등 오름들이 늘어서 있다. 그리고 이 오름들 사이로 크고 작은 오름과 계곡들이 해안까지 뻗어 나가 제주도라는 섬을 이룬다. 한라산 정상에서 해발 600m고지까지는 울울(鬱鬱)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고, 그 아래로는 오름과 초원이 해안까지 이어진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고들 한다.

제주 땅 어디서나 바라보이는 한라산은 제주사람들에게 각별한 의미로 다가선다. 이 한라산 자락에 살을 붙여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부터 한라산은 성소(聖所)시 되어 왔고, 수많은 전설과 도민의 애환이 봉우리와 골짜기, 나무 하나 풀 한포기마다 절절이 스미어 있다. 한라산을 창조했다는 전설의 여신 설문대 할망과 백록을 타고 유유자적했던 신선들, 불국토(佛國土)의 땅을 찾아 수만 리 여정을 걸었던 석가의 제자 아라한(阿羅漢)들, 진시황제(秦始皇帝)가 한라산으로 사신을 보내 불사(不死)의 명약을 구해오게 했다는 전설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한라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한라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경외(敬畏)시 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들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정상에서 국태민안(國泰民安)과 백성의 안녕(安寧)을 기원하는 한라산 산신제(山神祭)를 지냈고, 토속신앙에 뿌리를 둔 기도의식은 아직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러한 한라산 정상에는 누가 처음 올랐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설문대 할망에서 백록을 타고 다니는 산신령, 목동들에 걸쳐 여러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 한라산은 제주도민들이 신성시하는 성역으로 수많은 전설과 제주의 혼이 깃들여 있고, 선인(先人)들이 소와 말을 방목하거나 사냥을 하던 생활 터전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라산은 수많은 등반의 역사와 조난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한편 한라산은 각종 희귀 동물이나 식물 등 생물의 종 다양성, 경관 자원 등 자연자원의 보전 및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한라산은 1966년 10월 12일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들 천연보호구역은 백록담을 중심으로 사면에 따라 해발 600~1,300m 이상의 구역으로 총 90,931,226㎡에 이른다. 이후 1970년 3월 24일부터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2005년 현재 153.386㎢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이는 한라산을 국가의 책임 아래 자연경관과 생태계 등을 보전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항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국민의 다양한 여가선용 욕구가 증대되면서 공원의 이용과 같은 자연 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이 같은 성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은 수많은 자연자원을 간직한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로서 보존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여가 선용의 대상으로도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국

민의 탈(脫) 도시화, 탈 인공화에 따른 공원 탐방객의 집중적인 이용 증가로 국내의 대부분 국립공원은 극심한 식생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더욱이 천연보호구역이면서 국립공원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 한라산도 인위적인 요인은 물론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심각한 훼손과 수많은 개발의 아픔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한라산의 등반(登攀) 및 개발사(開發史), 한라산의 산악활동사(山岳活動史), 한라산의 훼손(毀損)과 복구(復舊) 및 자연보호(自然保護)로 크게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한라산의 등반 및 개발사에서는 과거 탐라시대(耽羅時代)부터 현재까지 한라산 등반과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더불어 그 동안 한라산에서 이루어진 등반과 관련된 각종 산악행사 및 시설물의 역사도 함께 다루었다. 또한 한라산과 함께 했던 제주도의 인문·사회적역사를 기록하였고, 최근의 한라산 보호관리역사까지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한라산의 산악활동사에서는 그 동안 한라산에서 발생하던 조난사고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산악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라산의 훼손·복구 및 자연보호 활동에서는 지난 1970년대 이후 등산객의 급증에 따른 한라산의 훼손과 이에 따른 복구사업들을 정리함과 더불어 최근에 이루어졌던 한라산 자연보호활동 등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에서 한라산과 제주도를 구분한다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다. 모두들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는 데 아무 이의(異義)를 달지 않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의 개념으로는 국립공원구역을 일반적으로 한라산이라 지칭하지만 이 또한 인간이 편의에 의해 구분한 경계일 뿐이다. 그래서 한라산 등반사(登攀史)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주제일 수도 있다. 제주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곧 등반사의 시작이라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등반사를 말한다면 과거의 경우는 산자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를,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에는 백록담을 향해 오르는 행위를 기술하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자락에서 사냥 또는 산림벌채, 버섯재배, 약초채취 등 경제생활도 등반사의 범주에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00년대 이전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한 산행에서부터 조선시대 관리(官吏) 또는 학자(學者)들이 오른 경우와 그 이후 전문산악활동과 해방 이후 일반인의 취미활동으로서의 산행까지 포함해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적 구분도 조선시대까지는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중산간 일대까지 확대되는 반면, 그 이후는 오늘날 등반활동의 범위 개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1900년대 이후의 등반사는 산행위주 및 개발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1 탐라시대의 한라산 등반

한라산을 처음 오른 사람은

설문대 할망

옛날 설문대 할망(할머니)이라는 거대한 여신(女神)이 살고 있었다. 이 할망은 힘이 얼마나 쟁는지 삼으로 흙을 일곱 번 파서 던지니 한라산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제주도 곳곳에 산재한 오름들도 설문대 할망이 치마에 흙을 담아 옮기는 과정에서 치마의 찢어진 틈으로 떨어진 흙덩어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해진다.

지금도 제주도 곳곳에는 설문대 할망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예를 들면 성산일출봉에 있는 등경돌[燈擎石]이 그것이다. 일출봉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 우뚝 솟은 바윗돌이 있는데, 이는 설문대 할망이 바느질을 할 때 접시불을 켜던 곳이라고 한다. 불을 켜던 곳이기 때문에 등경돌이라 불리게 됐다는 것이다. 설문대 할망은 처음에 다리를 만들다가 제주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작업을 멈추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당시의 흔적이 조천읍 조천리와 신촌리 사이의 바다로 향한 바위들이라고 말한다.

제주 사람들이 그려낸 설문대 할망의 최후 또한 매우 신비롭다. 아이러니하게도 설문대 할망은 자신이 만들어낸 한라산으로 영원히 돌아간 것이다. 하루는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의 물의 깊이를 재보려고 제주시 앞 바다의 용두암 근처에 있는 용연에 들어섰는데, 물이 무릎까지만에 차지 않았다. 더 깊은 곳을 찾아 마침내 한라산 종턱의 물장울에 들어갔다가 너무 깊어 그만 빠져 죽는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 사람들은 물장울을 가리켜 '창 터진 물'이라 하여 바닥끝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서불과 불로초

중국 제(齊)나라 위왕(威王)과 선왕(宣王), 연(燕)나라 소왕(昭王) 등이 삼신산으로 사람을 보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영약을 구해오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시대에 이르러 동남동녀(童男童女) 500쌍과 함께 서불(徐僝 : 서복이라 불리기도 함)을 보냈다는 곳이 또한 한라산이다. 이 때 서불이 한라산에서 불로초로 개간 것이 백록담 주변에서 자라는 시로미 열매라 하기도 한다. 또한 서불은 돌아가는 길에 서귀포(西歸浦)의 정방폭포에 '서불과차(徐僝過此)'라는 글귀까지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불이 돌아간 곳(西歸)이라 하여 유래되었다고 한다.

백록과 사냥꾼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냥을 나갔다가 도망치는 백록(白鹿)을 쫓아 백록담까지 오르게 되었다. 백록담 부근에서 백록을 발견한 사냥꾼은 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사냥꾼이 쏜 백록은 옥황상제(玉皇上帝)가 타고 다니는 백록이었기에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옥황상제는 백록담 봉우리를 한 움큼 집어 들고는 사냥꾼이 있는 서쪽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산방산(山房山)이 되고 백록담은 분화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방산은 다른 오름들과 달리 백록담처럼 바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산방산을 뒤집어 백록담에 놓는다면 아마도 딱 들어맞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한라산에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슴이 살았다고 한다. 녹하지, 녹산장, 백록리(안덕면 상천리의 옛 이름) 등 수많은 지명과 함께 오늘날까지도 사슴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하지만, 아쉽게도 1900년대 초반을 거쳐 일제시대에 무분별한 포획으로 완전히 멸종됐다. 하얀 사슴, 즉 백록에 대해 조선시대 이형상(李衡祥) 목사(牧使)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의하면 양사영(梁思瑩) 목사와 이경록(李慶祿) 목사 때 백록을 사냥했다고 기록돼 있다.

존자암과 산행 전진기지

석가모니의 제자인 16 아라한 중 여섯 번째인 발타라존자(跋陀羅尊者)가 900 아라한과 더불어 탐몰라주(耽沒羅洲)에서 살았는데 탐몰라주는 곧 탐라, 지금의 제주라고 전해진다. 이 때 발타라존자가 제자들과 수행했던 곳이 존자암(尊者庵)이고 그 시기는 고양부(高梁夫) 삼을나(三乙那)가 처음 살았던 시기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72년이다. 만약에 발타라존자가 탐라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제주도에 살면서 수행했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사에서 불교 전래는 그만큼 앞당겨진다는 이야기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아주 많다.

한편 존자암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산행에 나서는 관리들이 묵고 가는 숙박시설 역할을 했고, 이 곳의 승려들은 산행가이드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맨 처음 한라산 산행기록을 남긴 임제(林悌)는 존자암에서 4일을 묵은 후 어렵사리 정상에 올랐다. 이 때 등장하는 스님이 청순(淸淳) 스님으로 임제와 노인성(老人星)과 사슴에 얽힌 이야기, 날씨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산행에도 동참해 주변 식물의 이름 등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한 김상헌(金尙憲)도 존자암에서 차를 마신 후 산행에 나섰고, 김치(金緻)도 산행 길에 존자암에 들러 수정(修淨) 스님과 대화를 나눈 후 함께 백록담으로 향했다. 이 때의 존자암은 판잣집 8~9칸에 띠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소개된다. 이어 김성구는 폐허가 된 존자암지에서 차를 마시고 산행에 나섰고, 이형상이 찾았을 때는 거주하는 스님은 없고 헐린 온돌 몇 칸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원조(李源祚)는 존자암이 아닌 영실에서 장막을 치고 야영했다.

존자암에서는 국성재(國聖齋)라 하여 제주, 대정, 정의의 삼읍[三邑 : 제주목(濟州牧), 대정현(大靜縣), 정의현(旌義縣)]의 수령(守令)이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김상헌의 『남사록(南統錄)』에 의하면 4월에 점을 치고 좋은 날을 택하여 삼읍 수령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암자에서 목욕재계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이를 국성재라 한다. 지금은 그것을 폐한 지 7~8년이 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김상헌이 한라산을 오른 때가 1601년이니 1500년대 후반까지도 제를 지냈다는 얘기가 된다.

호종단과 한라산신제

옛날 제주도는 뛰어난 인물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명당을 수없이 많이 가진 땅으로 인식되었다. 세상을 뒤엎을 인물이 나올 것을 안 중국 송나라의 황제가 호종단(胡宗旦, 종달이라는 이름으로도 전해짐)이라는 주술사를 보내 명당의 혈(穴)을 없애라고 명했다.

제주도의 물 혈을 거의 끊은 호종단이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호종단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광양당신(廣壤堂神), 즉 한라산신이 매로 변하여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시켜 호종단을 수장(水葬)시킨다. 이를 가상하게 여긴 고려 조정에서 광양당신에게 광양왕(廣壤王)이라는 작위를 봉하고 매년 향과 폐백을 내려 제사를 지내게 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이 『고려사(高麗史)』에도 나온다. 1253년(고종 40년) 10월 무신에 국내 명산과 탐라의 신에게 각각 제민(濟民)의 호를 내리고 춘추로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리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때부터 시작된 한라산신제는 백록담에서 치러지다가 1470년 제주로 부임한 이약동(李約

東, 1416~1493년) 목사에 의해 산천단으로 제단이 옮겨진다.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백록담까지 올라가야 했고, 그 도중에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 산천단으로 옮긴 것이다.

화산폭발과 전공지

“1002년 5월, 탐라의 산 네 곳에 구멍이 열리어 붉은색 물이 솟아나오기를 5일 만에 그쳤는데 그 물이 모두 와석이 되었다(耽羅山 開四孔 赤水湧出 五日而止 其水皆成瓦石).” 제주도에 서의 화산 분출을 기록한 최초의 문헌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어 1007년에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화산 분출 기록이 나온다. “탐라에서 상서로운 산(瑞山)이 솟아났다.” 하므로 목종이 태학박사 전공지(田拱之)를 보내어 가서 보게 하였다.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솟아나올 때는 구름과 안개로 뒤덮여 어두컴컴하고 땅이 진동하는데 우렛소리 같았고 7일 밤낮이 지나자 비로소 구름과 안개가 걷히었습니다. 산의 높이는 100여 길이나 되고 주위는 40여 리나 되었으며 초목은 없고 연기가 산 위에 덮여 있어 이를 바라보니 석류황(石硫黃)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라 하였다. 이 때 전공지는 몸소 산 밑에까지 이르러 그 모양새를 그려서 바쳤다고 기록돼 있다.

‘탐라화산도’라고도 불리는 『서산도(瑞山圖)』는 1317년(충숙왕 4년) 1월에 위왕관(魏王館)의 서리 긴 벽돌담에 해가 비쳐 모란꽃과 같이 찬란한 모습을 이뤘으므로, 곧 화공에게 명하여 그 형상을 그리게 했던 사실과 함께 자연의 특이한 모습을 담은 것이다. 고려 전기에 특히 성행했던 재이상서(災異祥瑞) 사상, 즉 천변지이(天變地異)의 자연 현상을 통해 정치의 성과를 가능하고 위정자의 수성(修省)의 자료로 삼고자 했던 조류(鳥類)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국미술연구소 홍선표 소장은 말하고 있다.

몽고의 지배와 한라산

탐라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기가 되는 사건은 삼별초(三別抄)의 항쟁과 100년에 이르는 몽골의 지배이다. 몽골에 항복하기를 거부한 삼별초군은 진도(珍島)를 거쳐 1271년 제주도에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성이다. 김통정(金通精, ?~1273년) 장군의 지휘 아래 이 곳에서 3년 여에 걸쳐 대몽 항쟁을 펼쳤던 삼별초군은 1274년 고려의 김방경(金方慶, 1212~1300년) 장군과 몽골의 혼도가 지휘하는 여몽 연합군에 의해 무너지면서 삼별초의 대몽 항쟁도 끝을 맺게 된다.

삼별초의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몽골 정부는 이 곳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였고, 탐라는 1294년부터 1374년 최영 장군이 제주에서 일어난 목호(牧胡 : 몽골의 목자)의 난을 평정할 때까지 100년에 걸쳐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기간 중 몽골은 수산평(성산읍 수산리)에 목마장을 설치하고 몽골 말 160마리와 소, 나귀, 양, 낙타 같은 가축을 들여와 방목하였으며, 벼슬아치를 파견하여 이를 관리하게 한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제주의 말 방목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별초의 항쟁과 관련해 한라산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살핀오름과 붉은오름이 있다. 당시 적의 동태를 살폈다는 살핀오름, 최후를 맞이하며 많은 피를 보았다는 붉은오름이 그것이다. 그리고 몽고의 지배를 전후해 한라산의 울창한 산림이 일본정벌에 나서는 몽고군의 선박건조용으로 무참하게 잘려나간다.

선박건조와 벌채

삼별초의 항쟁 이후 몽골은 일본정벌에 나서며 배를 건조하기 위해 한라산의 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잘라냈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선박건조와 건물의 신축을 위해 많은 나무를 잘라냈는데, 기록에 의하면 나무 벌채에 고역이 심하므로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라산에서의 벌채와 관련된 기록은 맨 처음이 고려 문종 12년(1058년)으로, “왕이 탐라와 영암에서 목재를 베어 큰 배를 만들고 장차 송나라와 통상하고자 했다.”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에 전한다. 당시 기록에는 이미 전년도 가을에 재목을 벌채한 후 바다를 건너 육지부의 사찰 창건에 사용했다는 내용도 언급된다.

이어 원종 9년(1268년) 몽골이 고려에 보낸 조서에 보면, 고려가 배 1,000척을 지었다고 돼 있는데 “만약 탐라가 조선역(造船役)에 참여하였으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참여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배 100척을 만들게 하라.”라고 지시한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원종 15년(1274년) 대선 300척을 전라와 탐라 두 곳에서 건조하라 하였고, 충렬왕 6년(1280년)에 칙명으로 3,000척의 배를 만드는 데 탐라에서 재목을 징발하여 공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충렬왕 7년(1281년)에는 칙명으로 탐라에서 배를 만드는 일을 홍다구에게 분부한 기록이, 충렬왕 9년(1283년)에는 탐라에서 향장목(香樟木)을 구해 간 일이, 충렬왕 11년(1285년)에 탐라에서 일본 정벌용으로 만든 배 100척을 고려에 주었다는 기록 등이 있다.

2 조선 시대의 한라산 등반

예로부터 삼신산의 하나로 알려진 한라산은 옛 사람들이 무척이나 동경하여 누구나 한 번쯤 오르고 싶은 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올랐으며 많은 기록을 남겼다. 구한말의 유학자요 항일 의병장으로 유명한 최익현(崔益鉉)이 제주로 유배를 왔다가 유배가 풀리자마자 한라산을 올랐다는 기록도 있다.

이렇게 한라산 등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은 육지부에서 내려온 관리들로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관리 자신에겐 한라산 등반이 유희이었을지 모르나 당시 그를 수행한 백성들에게는 고역 그 자체였다. 등산하는 것을 도를 닦는 것에 비유했던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는 백록담까지 가마를 타고 올랐다고 하니 이를 수행한 백성들의 고통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당시에 한라산을 오르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으나 일반 백성이나 유배 온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1520년 제주에 귀양 왔던 김정은 “이태백이 이른바 구름 드리움은 대붕(大鵬)이 활개침인가, 파도 이는 곳에 거오(巨鰲) 잠겼는가. 한 대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라산을 비유하면서 “내 귀양 온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올라가 볼 수 없음이 애석하다.”며 아쉬워했다. 최익현도 “이 산에 오르는 사람이 수백 년 동안에 관장(官長 : 제주목사와 현감 등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된 자 몇 사람에게 불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라산을 노래한 시 중에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권근(權近, 1352~1409년)의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은(蒼蒼一點漢羅山) 멀리 큰 파도 넓고 아득한 사이에 있네(遠在洪濤浩渺間).”라는 시가 있다. 이어 조선 중종 때의 시인으로 세속에서 벗어나 산과 물을 찾아다니며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던 홍유손(洪裕孫, 1431~1529년)은 『소총유고(篠叢遺稿)』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巖改構侑因文)」에서 “산 전체는 물리가는 듯하다가 도리어 높아서 있다. 그 겉모양을 쳐다보면 둥글둥글하여 높고 험준하지 않은 것 같고, 바다 가운데 섬이어서 높게 솟아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한라산의 형상을 소개하였다. 홍유손은 “산신령과 도깨비들이 대낮에도 나와 노니, 바람이 소리 내어 불어대면 생황, 통소, 거문고, 비파의 소리가 원근에 진동한다. 구름이 자욱이 끼는 날이면 채색 비단과 수놓은 비단 빛이 겉과 속을 덮는다.”라고 노래했다.

한라산을 오른 이들 중에는 직접 글을 지어 기록으로 남긴 이들이 있는 반면 일부는 현장에서 돌에 새겨 마애명(磨崖銘)으로 남기기도 했다. 현재 한라산 백록담에는 시 2수와 이 곳에 올랐던 사람 7~8명의 이름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접근이 쉽지 않아 마애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 중에서 지은이와 내용이 온전하게 보존된 것으로는 임관주(任觀周)의 시가 있다.

한라산을 노래한 마애명으로는 백록담뿐만 아니라 제주시 한천(漢川)의 방선문(訪仙門)과 용연의 바위 절벽, 산방산 등에도 대정현감을 지냈던 원상요(元相堯) 등 여러 사람의 시 몇 수가 전해지고 있다.

노인성과 한라산 등반

제주도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남극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노인이 많다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노인성(老人星)을 노성(老星) 또는 서진노성(西鎭老星)이라고도 하며 서귀진에서도 볼 수가 있

다고 하였다. 노인성에 대해 이원조 목사는 『탐라록(耽羅錄)』에서 1841년 가을에 자신이 직접 관측한 것을 토대로 남남동쪽(丙 : 168.)에서 떠서 남남서쪽(丁 : 192.)으로 지는데, 고도가 지면에서 3간(21.) 정도의 높이에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심연원(沁連源, 1491~1558년)과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지함(李之函, 1517~1578년)이 노인성을 보았다고 전해지는데, 세종 때는 역관 윤사웅(尹士雄)을 파견하여 한라산에서 관측하게 했으나 구름 때문에 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오현(五賢 : 김정, 송인수, 김상헌, 정운, 송시열)의 한 사람으로서 1520년 제주에 귀양 왔던 충암 김정(金淨, 1486~1520)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니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다.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라 말하고 있다.

김상헌은 『남사록』에 “내가 이 지방 노인에게 물으니 남극노인성은 오직 춘분과 추분 때에 날씨가 활짝 개어야 바라볼 수 있다.”며 관측 시기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노인성’이라는 제목으로 시 한 수를 지었는데 “남극에 신령스런 별이 하나 있는데 / 고성(古城) 남쪽에 예부터 이름이 있네 / 새벽에 바라보면 깨어진 달 조각인가 / 저녁에 밝은 등불빛을 빼앗은 듯하네 / 왕도에선 국운이 형통할지 점을 치고 / 인가에선 오래 살지를 물어 보네 / 형산과 한라산에서만 바라볼 수 있고 / 이 밖의 다른 곳에선 바라볼 수조차 없네.”라 하였다.

기록을 통해서 본 등반코스

임제의 한라산 등반기

처음으로 한라산을 오른 과정을 기록에 남긴 임제(林梯, 1549~1587년)의 『남명소승(南溟小乘)』은 훗날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북처럼 이용되었다. 임제는 제주목사로 재직하고 있던 아버지 임진(林晉)을 찾아왔다가 한라산을 올랐다.

임제는 1577년 28세 때 대과에 급제하였으나 파벌 싸움만 하는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전국을 유람하며 세월을 보냈던 학자이다. 1577년 11월에 제주에 왔다가 1578년 3월까지 머물렀는데 이 때 남긴 기록이 『남명소승』이다.

당시 임제는 제주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병졸들이 호위했는가 하면 대정현감이 비장(裨將)을 보내 존자암까지 먹을 것과 굴을 보내고 제주판관이 술과 양식을 보냈더니 예나 지금이나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무리는 항상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한라산을 노래했던 시인 임제가 마침내 날을 잡아 산행에 나섰다. 음력 2월 중순이면 완전한 봄은 아니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그만큼 날씨가 변덕이 심한 때이다. 영실에 위치한 존자암에서 날씨 때문에 이틀이나 발목이 잡히자 임제는 ‘발운가(撥雲歌)’를 지어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계의 어리석은 백성이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신이시여, 나의 소원은 바람 맑고 구름 걷히는 것입니다. 밝은 아침에 밝은 햇빛을 보게 하소서.’ 그러나 다음 날에도 역시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안개까지 자욱했다. 결국 임제는 존자암에서 4일을 묵은 후 어렵사리 정상에 올랐다.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무리하게 올라가서였는지 피곤에 지쳐 정상에서 내려온 후 두타사(頭陀寺)에서 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 때문에 정상에서 그의 심정을 표현한 시가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김상헌의 한라산 등반기

김상헌(金尙憲, 1570~1652년)은 1601년 제주에서 소덕유(蘇德裕), 길운절(吉雲節)의 역모 사

건이 일어나자 선조의 안무어사 자격으로 제주를 찾아 뒷수습을 한 후 임금의 명으로 백록담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냈다. 그리고 1601년 8월부터 한 달간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의 풍물, 형승, 진상품, 군역 등 사회상을 기록한 『남사록(南統錄)』을 남겼다.

이 책에는 한라산과 관련된 한라산신제 제문, 천불봉(千佛峰), 한라산의 장관, 남극노인성 등에 대한 시와 최부(催溥, 1454~1504년)의 『표해록(漂海錄)』 중 한라산과 관련된 시를 소개하고, 『남명소승』의 기록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예컨대 오백장군이 라는 이름은 임제가 처음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백록담의 돌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른다.”라는 임제의 기록은 직접 시험해 보니 거짓말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총 2편 4권으로 구성된 남사록은 당시 제주도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상헌은 백록담의 이것저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9월이라 산 밑에는 초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서리가 내리는 모습을 기술하였고, 또 돌(송이라 불리는 화산재를 말함)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옛 기록이 잘못됐음을 직접 시험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다.

김치의 한라산 등반기

김치(金緻, 1577~1625년)는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 등을 거쳐 1609년 3월에 제주판관으로 도임하여 1년 6개월간 재직했다. 이형상의 『남환박물』에는 “6번(番)으로 나누었고 여러 폐단을 혁파하였는데 그 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그의 선정을 기록하고 있다.

김치는 존자암에서 하룻밤을 자고 존자암 승려인 수정(修淨)의 수행을 받고 백록담까지 올라갔다. 새벽에 존자암을 출발하여 백록담을 거친 후 북쪽 코스로 하산했는데, 해질 무렵 제주성으로 내렸으니 오늘날의 산행 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김성구의 남천록

김성구(1641~1707년)는 1679년 좌천되어 제주목 정의현감으로 제주에 내려왔었다. 그리고는 1680년 3월 한라산 백록담에서 거행된 한라산신제의 헌관으로 선정돼 제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올랐다. 김성구의 기록에서 예전 한라산신제의 제일이 3월 6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초 이 날짜에 제를 지내기 위해 하루 전날인 5일 산행할 계획이었으나 어사가 병이 있어 10일로 미루고 다시 한라산에 큰 눈이 내리자 늦춰 마침내는 19일 산행에 나서게 된다. 19일 새벽에 어사와 판관, 그리고 집사 등 제관들이 함께 산행에 나섰는데, 등산코스는 제주성에서 서쪽 18리 거리의 무수천(無愁川)에서 다시 남쪽 30리에 위치한 영실 존자암으로 향하게 된다. 폐허(廢墟)가 된 존자암지에서 차를 마시고 6~7리 거리에 위치한 영실 오백장군까지 향하여 존자암과 40리 거리인 ‘외구음불(外求音佛)’에 이르는데, 이 곳까지는 말을 타고서, 이후부터 정상 바로 밑까지는 가마를 타고서 이동했다. 외구음불에서 백록담까지의 거리는 15리로 당시 일행은 마지막 백록담 사면만 지팡이를 짚고 올랐다.

그리고는 20일 사경(四更 : 새벽 2~4시)에 백록담에서 단상을 차려 한라산신제를 올리고는 일행과 헤어져 곧바로 정의현이 위치한 동남쪽 방향으로 하산했다. 백록담에서 내리는 일정을 보면 백록담 밑 냇가에서 아침을 먹고 의귀원으로 하산, 저녁에 지금의 성읍리에 위치한 관아로 돌아간 것으로 돼 있다. 백록담에서의 구체적인 한라산신제 과정이 생략되고, 임제의 기록에 나타나는 두타사 부분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임제와 같은 코스였는지도 의문이다.

이형상의 남환박물

이형상은 1702년 6월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703년 6월 대정현에 유배 온 오시복(吳始復) 판서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가 탄핵을 받아 파면되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주목사로 재임했지만 이형상 목사는 화공 김남길(金南吉)을 시켜 『탐라순력도』를 그리게 했고, 제주에 관련된 지리지로 『남환박물』을 저술하는 등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수많은 치적을 쌓았다.

하지만 그는 신당(神堂) 129개소를 소각하고 무당(巫堂) 185명을 귀농시켰으며, 수많은 사찰을 철폐시켜 유교를 제외한 제주도에서의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오늘날 미신을 없앴다는 긍정적 평가와 제주도의 정신문명을 말살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존한다.

한라산 산행기는 『남환박물』에 수록돼 있는데, 산에 오르면서 주변에 보이는 식물들-영산홍, 동백, 산유자, 이년목, 영릉향, 녹각, 송, 비자, 측백, 황엽, 적률, 가시울, 용목, 저목, 상목, 풍목, 칠목, 후박 등-을 열거하여 관찰력이 뛰어남을 느끼게 한다. 특히 눈향나무를 가리켜 “향목(香木)은 만리의 바람을 받으므로 예로부터 자라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거나, 바위틈에 자라는 철쭉을 반분(盤盆)이라 표현하고 있다.

산에 오르기 전 이형상은 김상헌의 『남사록』을 비롯하여 홍유손의 『소송유고』, 임제의 『남명소승』, 『지지(地誌)』 [읍지(邑誌)]를 말하는 것으로, 목사나 현감 등 수령들이 그 지방에 대한 통치 자료를 수록한 책] 등을 미리 읽고 산행에 나서 그 기록의 옳고 그름을 계속해서 따져 보았다. 예를 들면 백록담 물의 깊음을 나타낸 『지지』의 기록은 잘못 전해진 것이고, 『남사록』에서 전하는 백록담의 검붉은 송이의 생성 시기도 거짓이며, 백발노인이 백록을 타고 있다는 표현도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록담에 조개껍질이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울음소리가 ‘공공’해서 공공새(貢鳥)라고 불리는 바닷새가 물고 온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원조의 한라산 등반기

이원조는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1843년 6월까지 재임했다. 재임 기간에 우도와 가파도에 사람들을 살게 했는데, 이 때부터 우도와 가파도는 무인도에서 사람이 사는 섬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원조는 1841년 7월 중순에 한라산에 올랐는데 등반에 앞서 “나는 일찍이 등산하는 것이 도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왔다.”고 했을 정도로 한라산 등반에 의미를 부여했다. 숙소인 망경루(望京樓 : 제주목에 있던 누각으로 현재는 제주시의 중심가인 관덕정 주변을 말함) 누각 위에서 보는 한라산보다 제주시 사라봉(紗羅峰) 정상에서 보는 한라산이 더 높게 보인다고 한 것이나, 도교 사상과 함께 유교의 성현인 공자와 그 제자들을 거론한 것을 보면 산행을 앞둔 그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다.

기록을 보면 죽성촌(竹城村, 현재의 제주시 오등동)을 새벽에 출발한 이원조 제주목사 일행은 처음에는 말을 타고 가다가 다시 가마로 갈아타고 도중에 가파른 급경사에서는 도보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가마로 올랐다고 하는데, 당시 수행하는 백성들의 노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등산을 도를 닦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면서도 가마를 타고 올랐다는 것은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익현의 한라산 등반기

구한말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진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1873년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실정을 탄핵한 죄로 제주도에 유배되어 6년간 이 곳에 머물렀는데, 1875년 2월 유배가 풀려 자유로운 몸이 되자 한라산 등반에 나섰다.

제주목을 출발한 최익현 일행은 방선문과 그 동쪽 마을인 죽성(竹城)을 거쳐 탐라계곡, 삼각봉, 백록담 북벽으로 정상에 오른 후 남벽으로 하산, 선작지왓의 바위틈에서 잠을 자게 된다. 기록에 나오는 한라산 최초의 비박, 즉 노숙(露宿)인 셈이다.

최익현의 등반기를 보면 한라산의 산세와 관련하여 이전의 기록에는 볼 수 없는 부분이 거론되는데 “산 형국이 동은 마(馬), 서는 곡(穀), 남은 불(佛), 북은 인(人)”이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산세가 굴신고저(屈伸高低)의 형세를 따라 마치 달리는 말과 같다 하고, 위암층벽(危巖層壁)이 죽 늘어서서 두 손을 마주잡고 읊하는 듯한 것은 불(佛)과 같다. 평포광원(平鋪廣遠)하고 산만이피(散漫文住披)함은 곡식과 같고, 공포향북(拱抱向北)하여 수려한 산세는 사람과 닮았다고 하겠다.”라며 당시에 들은 얘기를 소개했다. 한라산 산세의 영향으로 말은 동쪽에서 생산되고, 불당은 남쪽에 모였고, 곡식은 서쪽이 잘 되고, 인걸(人傑)은 북쪽에서 많이 난다고 해석한 것이다.

최익현은 한라산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이 산은 그 혜택이 백성과 나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니 지리산이나 금강산처럼 사람에게 관광이나 제공하는 산들과 비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후 “오직 이 산은 유독 바다 가운데 있어 청고(淸高)하고 기온도 낮으므로 뜻 세움이 굳고 근골(筋骨)이 건강한 자가 아니면 결코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평하였다.

3 1900년대 전반기의 한라산등반

외국인들이 찾은 한라산

겐테 박사의 한라산 등반기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 1870~1904년)는 독일인으로 신문기자이자 지리학 박사이다. 1892년 인도에서의 생활을 시작으로 1900년 중국을 거쳐 1901년 한국에 들어와 아시아의 지리와 민속 등에 대한 많은 자료를 남겼다. 1872년 「인도에서 쓴 지그프리트 겐테의 편지들」이 함부르크 일간지에 연재된 것을 시작으로 「사모아에서 보내온 여행기」, 「중국에서 보내온 편지들」, 「한국, 지그프리트 겐테 박사의 여행기」, 「겨울철 만주 여행」 등을 독일의 『켈른신문』에 연재했다.

겐테 박사는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한라산 등반 기록을 남겼는데, 지리학을 전공한 학자답게 한라산 높이가 1,950m임을 밝혀 한라산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던 시기의 서양인의 시각이라서 동양을 다소 경시하고 사람들을 미개인(未開人) 취급하는 문장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한다.

1901년에 겐테 박사 일행은 이재수(李在守) 난의 수습을 위해 제주에 미리 파견돼 있던 강화도수비병 1개 소대의 호위를 받으며 도합 12명이 한라산을 오르게 된다. 등산코스를 살펴보면 제주성을 출발해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산으로 올랐다. 시내에서 중간쯤 올라가면 사찰의 유희를 볼 수 있다는 소리에 이를 찾아 헤맨 기록이 나오는데 영실의 존자암을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해발 1,000m 지경까지 올라왔으나 존자암 터는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던 중 불빛을 발견, 이동하고 보니 나무꾼들이었다.

당시 나무꾼들은 가족까지 대동한 23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나무를 베어내던 상황이었다. 이들과 함께 동굴에서 잠을 잔 겐테는 다음날 영실을 올라 남벽으로 백록담에 올랐다. 동쪽으로 백록담에 올랐으면 길은 쉬워지지만 더 지루했을 거란 표현도 달고 있다. 다시 남벽으로 내려 영실의 동굴에서 숙박한 후 하산했는데, 제주성을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저녁에 제주성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겐테 박사 일행은 등산로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산행에 나섰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어도 숙소를 정하지 못해 무척이나 고생하게 된다. 나중에는 말이 앞서 나가는 방향을 따라 가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산을 올랐는데, 이는 기록에 나타나는 한라산에서의 첫 야간 산행이라 할 수 있다.

겐테 박사 일행은 가까스로 백록담에 올라 높이를 측정하는데, “무수는 기압계 2개를 주의 깊게 이용함으로써 나는 가장 가파른 곳에 있는 최외각 분화구의 높이가 1,950m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내가 사용했던 영국제 기구도 6,390피트였다. 온종일 미리 점검하고 테스트를 거친 기구를 사용한 나의 측정이 틀림없다는 증거이다.”라고 기록하였다. 100년 전에 자신의 기록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자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학술조사로서의 한라산 등반

1905년 3월 목포신보에 『대제주경영(對濟州經營)』이라는 글이 실렸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일본에서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내』라는 책자가 발간된다. 필자는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 綱太郎)로 1901년 제주에서 이재수난이 발발하자 친구와 함께 미복차림으로 목선을 타고 제주에서 와서 10여 일을 체류하며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한 후 훗날 체신성의 말단관리로 재직하

며 공무로 제주를 찾게 되자 조사의 모자란 점을 보완하여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그는 머리말에서 “제주사정을 알려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건너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제주목사였던 홍종우(洪鐘宇)가 서문까지 써 주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제주도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소개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한라산과 관련해 “한라산이 제주도”라는 부분을 소개한 후 “산중에는 약초가 많고 또 사슴, 멧돼지, 토끼 등 산짐승과 그 밖에 풀어놓은 우마(牛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라산의 산림과 관련하여 “본도는 노임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강건한 우마가 유목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적당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중국의 류순(旅順)으로 수출하면 전쟁 후의 공사경영으로 이익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지난날 조선 체류 일본인들이 한라산삼림벌채권을 얻으려고 목포영사의 손을 거쳐 하야시 공사에게 출원했으나 이미 선수를 친 사람이 있어 각하(却下)된 일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1905년 7월에는 19세 어린 나이의 일본경성제대 학생인 이찌시따(市河三喜)가 두 달에 걸쳐 한라산을 오른 후 훗날 그 일정을 기록에 남겼는데, 그것이 『한라산행(漢拏山行)』이다. 일본의 일고와 경성제대 영문과를 거쳐 훗날 영국에 유학까지 갔던 영문학자인 이찌시따는 당시 한라산 등산에 미국인 앤더슨과 함께했다. 목포에서 일본어를 하는 조선인 통역까지 구한 후 제주에 도착한 이찌시따는 경찰서에 부탁해 인부를 고용했는데, 당시 노임은 시내에서 3리 반 정도 떨어진 능화동(菱花洞)이라는 마을까지 500문(1文-1円)을 주기로 하고 3명을 고용했다.

남문과 삼성사(삼성혈)를 거쳐 돌담으로 이뤄진 들판을 지나 초원지대, 소나무와 갈까마귀 소와 말, 관목 숲을 거쳐 능화동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능화동에 대해 7~8채의 인가로 이루어졌고 삼림지대까지는 아직도 10수정(町)이 남았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능화오름 주변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1905년 8월 10일, 능화동에 도착한 이찌시따는 다음날부터 계속되는 비 날씨로 노숙과 민가에서 여러 날을 보낸 뒤 다시 선내로 내려갔다가 27일에 능화동으로 돌아왔으나 또다시 비 날씨가 이어져 본격적인 산행은 9월 4일 시작된다. 첫날은 삼림대와 조릿대 군락을 지나 삼각봉까지 갔다가 소몰이꾼과 함께 하산했다. 이어 10일 삼각봉과 왕관릉을 보며 정상으로 접근했으나 절벽에 막혀 돌아오고, 다음날 지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좌우에 큰 계곡이 두 개 있고 큰 절벽으로 끝나는 오른쪽 계곡에 천막을 쳤다는 것으로 보아 서탐라골(개미계곡)에서 야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월 13일 오전 8시에 출발해 삼각봉을 지나 용진각 계곡으로 내려 계곡을 따라 오르다 왼쪽으로 튼 후 다시 오른쪽으로 올랐더니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왕관릉 남쪽 방면으로 해서 정상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날 기록에 의하면 앤더슨은 용진각 아랫부분 물이 나는 곳에서 야영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어쨌든 이날 우마가 다니는 소로를 따라 백록담에 마침내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오전 11시로 3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백록담에서 통역으로 동행했던 목포인 김용수 씨와 함께 수영까지 하며 여유를 부리다 다시 날씨가 흐려지자 오후 1시 하산, 앤더슨의 캠프에서 요기를 한 후 오후 2시 30분 출발, 오후 4시 능화동의 천막으로 돌아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어 일제강점 초기인 1911년 슈우게츠(大野秋月)가 1년 반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느낀 바를 책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남선보굴(南鮮寶窟) 제주도(濟州島)』이다. 이 책에서 슈우게츠는 한라산 산행코스에 대해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정상에 오르는 길은 제주성내에서와 서귀포에서 출발하는 두 개가 있다며 제주성내에서는 7리, 서귀포에서는 5리가 걸린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길이 험준해 쉽게 등반할 수 없다며 만일 시도하고 싶으면 4~5일분의 양식과 야영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 계절은 5월부터 11월 초순까지가 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주성내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보면 처음 3리간은 고지대라고 부를 만한 고원(高原)으로 작은 오름과 밭이 이어지는데 이 곳을 지나면 설화동(雪花洞)이라 불리는 산록에 도착한다고 설명한다. 설화동에는 조선인 가옥 2호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앞서 이찌시따는 능화동이라 소개한데 반해 슈우게츠는 설화동이라 표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닌 자신이 편의상 지어낸 이름이 아닌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어 설화동에서 15정(町)은 잡목림으로 졸참나무, 메밀잣밤나무 등이 많고, 이 곳에서 계곡으로 내려 2리쯤 더 가면 삼림대는 끝나는데, 한라산 7부 능선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여기서부터 상부는 계곡 사이에 메밀잣밤나무가, 그리고 약간의 관목이 있고 대부분은 제주조릿대가 덮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어 거대한 절벽을 오르면 정상에 닿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 오르는 코스는 2리 반 가량 오르면 후지타(여田)의 표고 재배장 3호 헛간에 이르고, 2리 반을 더 오르면 정상에 닿는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제주성내에서 오르는 경우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한데 반해 간략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 코스를 이용해 등산에 나선 적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어쨌거나 양쪽 길이 다 험난하다고 밝히고 5월 초순에 오르면 무수한 철쭉이 노을로 물든 것과 같고 기묘한 꽃과 진기한 나무는 고르기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분재를 의식한 표현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구상나무와 관련해 수많은 외국의 학자들이 한라산을 찾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구상나무가 처음 전문가에게 발견된 것은 1907년으로 포리(U. Fauriei) 신부가 해발 1,000~1,800m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구상나무를 수집했다. 이어 1909년 7월 다케(Emile Taquet) 신부가 한라산과 지리산의 1,000~1,840m 지역에서 수집했다. 이 표본은 아놀드 표본관(Arnold Arboretum)으로 보내졌으나 감정되지 않은 채 1920년까지 보관되었다. 1915년에는 일본의 나카이(中井)가 「지리산식물조사보고서」와 「제주도식물조사보고서」에 구상나무를 분비나무로 수록하기도 했다. 같은 해 윌슨(E. H. Wilson)은 나카이와 함께 이 지역을 조사해 구상나무가 분비나무와는 다른 새로운 종임을 밝혀내고, 당시 수집한 것을 기준표본으로 구상나무라 명명하게 된다. 당시 윌슨의 한라산과 지리산에서의 현장조사모습은 사진으로 남아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다케 신부는 수차례 한라산을 오르내리며 왕벚나무를 발견, 제주도 식물학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1908년 4월 14일 해발 600m 관음사(觀音寺) 인근에서 꽃이 피어 있는 한 그루의 벚나무 가지를 잘라 4,638이란 채집번호와 함께 유럽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베를린대학의 교수로 장미과(科) 식물의 대가인 케네(Koehne)가 일본 에도(江戸)에 있는 왕벚나무와 같은 종이라 검정했다.

1915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윌슨은 마쓰무라(松村任三) 박사를 만나 왕벚나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 이즈(伊豆)의 오오시마(大島)라 하기에 일부러 가서 본 결과 오오시마사쿠라(Ooshimasakura)만 있을 뿐 왕벚나무는 아니었다. 그래서 왕벚나무는 오오시마사쿠라와 다른 해안의 벚나무와의 잡종이 아니겠느냐는 학설을 내놓게 된다. 만약에 윌슨이 제주도에서, 앞서 다케 신부가 발견한 왕벚나무를 보고 검정을 했다면 이후 왕벚나무와 관련하여 한라산이 자생지라는 주장과 잡종설이라는 논쟁은 발생하지도 않았을지 모를 일이다.

1928년 여름에는 제주에서 조선교육회 주최로 하계대학 강좌가 열려 당시 발표논문들이 『문교의 조선』 10월호에 게재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모리 타메조(森 爲三)의 「제주도의 육상동물 개론」을 비롯해 이시도야 츠토무(石戸谷 勉)의 「제주도의 식물과 장래의 문제」, 모리 타메조(森 爲三)의 「제주도소생의 식물분포에 대하여」, 가와자키 시게타로(川崎 繁太郎)의 「제주도의 지질학적 관찰」 등의 논문이 실려 있다. 당시 이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읍을 출발하여 정오계 삼의양악(三義讓岳)과 관음사를 거쳐 백록담에 오른 후 서귀포로 하산했다.

모리 타메조의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의 포유류는 토마스(Oldfield Thomas)가 앤더슨(Anderson)이 채집한 것을 바탕으로 제주족제비라는 신종(新種)을 발표했고, 조류의 경우 오질비 그랜트(Ogilvie-Grant), 쿠로다 초오레이(黒田長禮), 시모고오리야마 세이이치(下郡山 誠一), 모미야마 도쿠타로(冨山徳太郎) 및 자신 등의 조사결과 114종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의 지질과 관련해서는 총독부기사로 답사했던 나카무라 신타로(中村新太郎) 경성대학교수의 『제주화산도 잡기』(1935년)와 나카무라가 채집한 화석을 연구한 요코야마(横山)의 『제주도의 패각화석』(1923년) 등이 있다.

제주도의 곤충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서양인과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첫번째는 영국인 아담스(A. Adams)에 의해 처음 채집되어 타툼(T. Tatum)이 신종 보고한 흉단딱정벌레가 최초인데 이어 1906년 이치가와(S. Ichikawa)가 처음으로 「제주도의 곤충」이란 논문에서 86종을 발표했다. 이후 오카모토 한지로(岡本半治郎)는 1920~1922년 2~3회 제주에서 조사한 후 1924년 『제주도의 곤충상』이라는 논문에서 527종을 시작으로 1927년 『한국산 하늘소과』에서 제주도산 19종을 보고했다. 또 무라야마(Murayama)는 긴나무과 12종과 풍뎅이류를, 사이토(Saito)는 1932년 하늘소 16종을 보고했다.

한국인으로는 1929년 조복성이 울릉도의 곤충조사 보고 때 나비류 16종과 나방류 3종이 제주도에 분포한다고 했는데, 이는 직접 조사가 아닌 문헌조사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나비박사로 더 잘 알려진 석주명(石宙明)이 1937년과 1947년 발표한 논문에서 자신이 채집한 65종의 나비를 기록한 것이 최초이다. 석주명이 제주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36년 여름방학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머물면서 비롯된다. 당시 그는 1933년부터 그가 하버드대학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국토대순례의 채집여행 중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비류 56종을 채집해 그 결과를 『제주도산 접류(蝶類) 채집기』란 제목으로 제로포스(Zephyrus)지에 발표했다. 이어 더 많은 연구를 위해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의 교직을 그만두고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소속인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의 연구소장으로 자원해 재직하며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녔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그는 당초 1년 예정으로 제주도에 부임했지만 1년만 지내고 떠난다면 기존에 조사했던 단어 수집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1년을 연장했다고 밝힐 정도로 제주의 전 분야에 관심을 가져 조사 활동을 펼쳤다. 1년 연장의사를 밝히자 대학본부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고 했고 총장이나 의학부장, 기타 교수들까지 위문할 정도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훗날인 1947년 서울신문사에서 펴낸 『제주도방언집』에는 식물의 제주도명을 비롯해 동물의 제주도명, 제주도의 마을명 등을 소개할 정도로 곳곳을 누비고 다녔는데,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차례 한라산을 오르내렸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해방 이후 조선산악회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국토구명운동에 1946년 2회째부터 참여하는 등 산악활동에도 깊이 관여했음을 볼 때 한라산을 자주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주명은 1946년 조선산악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학술담당 상임이사로, 1950년 명칭을 변경한 한국산악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일제에 의한 한라산 수탈

훼손되는 한라산

산이 험하고 깊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워 울창한 삼림을 자랑하던 한라산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당시 일제는 제주에 영림서(營林署)를 설치해 1915년부터 1930년까지 한라산의 원시림 수백만 본을 벌목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라산 남북에 사업구를 설치, 일본인 관료를 책임자로 뒤 조직적으로 벌채했다. 북사업구의 경우 제1임반(林班)에서 제19임반으로, 남사업구에는 제1임반에서 제22임반으로 구분하고, 임반마다 40~50개의 소반으로 나눠 벌채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는 분재용과 목재용, 땃감용으로 나눠 벌채에 나서는데, 분재용과 목재용은 대부분 일본인에게 팔아 도외로 반출됐고, 땃감용은 도민들에게 팔렸다. 분재용의 경우 비자나무와 눈향나무, 주목, 구상나무, 도토리나무, 진달래, 단풍나무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1911년 기록을 남긴 슈우게츠는 근래 각지에서 한창 불거리로 인기를 끄는 눈향나무(眞柏) 분재는 한라산의 8~9부 능선에서 채취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나무, 회양목 등 진목이 많기 때문에 당시 채취하는 사람이 많아 경찰에서 그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자기 집에서 감상을 위해 캐는 한두 그루는 막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라산에서 가장 큰 훼손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표고 재배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한라산에서의 표고 재배는 1906년에 이요(伊豫) 사람인 후지타(後田寬二郎) 등이 동영사(東瀛社)를 조직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표고 재배의 특성상 벌채 후 3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1909년부터 수확이 이뤄졌다. 슈우게츠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이 채취해 수출한 표고는 1909년 625근을 시작으로 1910년 2,618근, 1911년 10월말 현재 3,856근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른 수익은 1909년 1,000엔에서 1910년 2,252엔, 1911년 3,355엔 등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이 1909년 2,500근을 채취해 1,000엔을 거둬들인 이후 1910년 4,630근에 2,100엔, 1911년 4,000근에 1,895엔과 비교할 때 일본인은 낮은 수확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소득으로 차별적이었음을 느끼게 해 준다.

한편 1911년 당시 한라산에서 표고를 재배하는 일본인은 1906년 후지타가 1,601정보를 재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1909년 仲野幾太郎 외 1명이 800정보, 田中尙敏이 200정보, 德永榮助 700정보, 1910년 林茂一郎 450정보, 1911년 石松助藏 500정보 등 6명이다. 지역별로는 한라산 남쪽의 후지타(後田寬二郎)가, 동쪽에 공동사업 益田三郎, 西郷武十, 서쪽에 林茂一郎, 德永榮助 등으로 1911년 6,000~7,000근에서 1912년에는 10,000근 이상이 될 것으로 당시에 예측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슈우게츠는 그의 책에서 “한라산 일대가 모두 표고 밭으로 바뀐 느낌”이라 적고 있다.

제일 먼저 한라산에서 표고 재배를 시작했던 후지타는 한라산은 표고 재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그 이유로 기후가 온화하고 대삼림(大森林)이 5만 정보에 달하는데, 그 중 70% 이상이 표고 재배에 가장 알맞은 서어나무이고 이어 졸참나무가 그 뒤를 이어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라산에서는 급격하게 표고 재배가 증가하게 되는데 조선총독부의 관보에 따르면 1915년 한라산에서 매각한 서어나무는 좌면 30,000 본을 비롯해 신좌면 70,000본, 신우면 53,000본, 구우면 30,000본 등 183,000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한라산에서의 벌채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막대한 삼림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군사기지로 변한 한라산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8·15해방의 의미는 한반도와는 다르게 다가온다. 단순하게 독립을 했다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일본이 반 년만 더 늦게 항복했다면 제주도는 오키나와나 유향도처럼 전쟁의 한복판으로 변해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한라산의 울창한 수림(樹林)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름하여 결7호 작전. 오키나와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무렵인 1945년 4월 초 일본군 작전대본영 참모회의에서는 연합군이 오키나와를 함락시킨 후 일본 본토인 규슈 북부로 진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규슈 북부로 오기 위해서는 중간 거점으로 제주를 이용할 계획을 세운다. 연합군의 제주도 상륙 시기를 8월 이후로 예상한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 70,000여 명의 병력을 제주도로 집결시키고 섬 곳곳에 각종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제주도를 보루로 삼아 연합군의 일본 본토 진입을 막아내려는 일본군의 방어 작전이 이른바 결7호 작전이다. 1945년 초기까지만 해도 일본군은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 해안 방어 진지 구축에 주력했으나 점차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한라산을 방어 진지로 해서 마지막까지 지구전을 펴겠다는 쪽으로 작전이 바뀌었다.

1945년 6월 미군의 B-29 폭격기가 제주도의 한림 등 일본군 시설에 대한 폭격을 시작하면서 일본군은 해안선을 포기한 채 중산간 지역에서의 유격전으로 시간을 벌고자 하였다.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일본이 일찍 항복함으로써 제주도에서의 최후 일전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어승생악(御乘生岳)의 1,169m 정상에는 시멘트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북쪽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당시 일본군이 미군 폭격기의 공습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토치카(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것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구축물) 시설이다.

일본군 제58군 지휘 본부가 있었던 어승생악은 정상에 두 개의 토치카 외에 오름 중턱에 지하 요새를 구축했는데, 수백 미터에 이르는 미로(迷路)형 진지 동굴이 있다. 지하 요새는 어승생악 북쪽 중턱에 교통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입구를 두고 있는데, 굴(窟)의 너비와 높이가 2m 규모이고 굴을 따라 약 30m 정도 들어가면 4~5m로 넓어지게 만들어져 있다. 이 밖에도 관음사 주변, 녹산장 부근 등 제주도 내 중산간 곳곳에 거대한 진지를 구축했고, 대부분의 오름 정상에는 토치카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이중 분화구로 유명한 송악산은 당시에 오름 전체가 군사 기지로 변하기도 했다.

일본군은 미군이 상륙할 경우 제주도민들을 산으로 끌고 가 군(軍)과 행동을 같이하도록 작전 계획을 세웠다. 만약 일본이 조금 늦게 항복해 연합군이 제주에 상륙했다더라면 제주도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간담이 서늘해진다.

국토순례로서의 한라산 등반

월간 『불교』의 한라산순례기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1924년 창간해 1933년 7월 1일 108호 이후 휴간, 1937년 12월 1일에 속간 후 1944년 21월 1일까지 간행했던 『불교』에 한라산 등산에 대해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먼저 1924년 10월에 발행된 『불교』 제4호에 구산인(龜山人)이라는 필명으로 靈洲

紀行』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필자는 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방선문을 구경한 다음날 관음사에서 동료 3명과 안내인 2명 등 5명이 백록담과 영실을 보기 위해 산행에 나서게 되는데, 지명이 눈길을 끈다. ‘갈오대오름’이 그렇고 ‘어시오름’, ‘삼양(三陽)오름’이 그렇다. 이어 본격적인 산행에서 소개되는 ‘개목밭’은 개미목을 이르는 뜻하고, 기암과 좌우 협곡으로 이뤄진 ‘장□목’은 장구목을 이르는 말이라. 그리고 백록담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장백산정에 팔십여 리 되는 천지택(天池澤)에 비하면 일할쯤 된다하지마는 봉의 높이가 해발 구천여척은 장백산정과 불상불하(不相不下)라 한다.”라는 문장 또한 의미 있게 다가선다. 이어 일행은 백록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점심을 먹고 백록담 물로 세수를 한 후 영실을 향해 하산한다. 하지만 갑자기 변한 안개날씨로 영실에 대해 잘 안다는 안내자가 길을 잃어 헤매던 중 목동 한 사람을 만나 물으니 다섯 참(1참은 5리를 이른다)이라 하기에 포기하고 곧바로 서귀포로 향한다. 이 때 서로 일행의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방을 부르다 보니 목까지 쉬게 되는데, 마침내는 소와 말이 다니는 길을 따라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

그 후 1930년 2월 발행된 제68호부터 11월 발행된 제77호까지 한라산 순례기라는 이름으로 백록담에 오른 기록을 비롯해 도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바를 기록한 기행문이 있다. 필자는 백환(白桓) 양 씨(陽氏)이다. 오등동을 거쳐 방선문을 둘러본 후 소림당(小林堂)이 위치한 산천단(山川壇)을 거쳐 관음사로 향했다. 특히 『불교』 제71호에서는 방선문에서 ‘이로부터 올라가면 한라등산의 경로’라 밝힌 후 관음사에서 숙박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껴간다는 표현으로 보아 당시까지도 이 코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음사에서 스님의 주선으로 채락사(採樂師 : 약초 캐는 사람) 두 사람이 길 안내를 맡아 동행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표현 중에 간혹 산삼도 발견되는데 주로 작약과 당귀를 캐러 다닌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과는 장구목에서 헤어져 산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후의 경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계곡으로 내려간 후 눈향나무와 진달래가 덮여 있는 초원에 다다른 곳이 정상이 아니고 영실이다. 이후 존자암 터와 영실 동남사면의 수행굴(修行窟), 칠성대(七星臺)를 지나 동쪽으로 한참을 간 후 깎아지른 석벽(石壁)을 올라 백록담에 도달한 것으로 돼 있다. 그 중간에 백록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필자의 착각이 아닌가 싶다.

어쨌거나 필자는 백록담에서 한라산과 백록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자신의 견해로는 한라산은 우리 고어(古語)로 ‘한울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울울음’인데 후대(後代)에 한자가 수입되며 ‘한자만으로 한자범위 안에서 그 밖 길을 나와 보지 못하는 해석’이라고 말한다. ‘두무악(頭無嶽)’도 ‘두무(頭無)’라기보다는 ‘미무(尾無)’가 더 어울린다고 주장한다.

백록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어로 불늪(火池) 또는 붉늪(天池)이라 일컬었던 것으로 불과 붉은 천신(天神)이란 고어이며 늪이라 함은 유지를 이룬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화구호로서 천수(天水)를 저장하였다 하여 불늪, 또는 천지란 의미로 붉늪이라 일러오던 것을 후대에 백록으로 대역됐다고 말한다.

한편 필자는 백록담 남쪽으로 내려 서귀포로 향하는 도중 표고버섯 재배장을 거치게 되는데, 동호사(東濠社) 제3표고재배장이다. 이 때부터 등산 또는 하산 길에 표고 재배장을 이용한 시초(始初)가 아닌가 싶다.

이은상의 한라산 등반기

이은상(李殷相, 1903~1983년) 시인은 이전의 산행과는 달리 아주 특이한 목적으로 한라산을 등반했다. 1937년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가 주최한 국토 순례 행사의 일환으로 한라산을 오

른 것인데, 오늘날의 백두대간 종주나 국토 대장정이라 불리는 행사의 시초가 아닌가 싶다. 80명이나 산행에 나섰으니 한라산에서 이루어진 첫 단체 산행인 셈이다.

오늘날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이름 아래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행사의 첫 출발점이 한라산 백록담인 것처럼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한라산 산행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1937년 12월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간행한 이은상의 『탐라기행 한라산』은 당시 나라를 잃은 백성들에게 자주성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책이었다. 이은상은 이 책에서 한라산에 대해 옛 문헌을 인용하거나 전설을 소개하면서 백록담을 ‘뽕 늪’이라 하고 단군의 광명이세(光明理世)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거론하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고심을 했다.

또한 한라산 식물의 수직분포대(垂直分布帶)를 설명한 후 백두산, 금강산이나 일본의 후지산(富士山)보다 더 많은 식물이 자라는 곳이라며 한라산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시로미, 구상나무 등 특이한 식물을 소개할 때는 ‘조선적인 것, 동양적인 것, 세계적인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당시 이은상이 등반한 코스를 보면 제주시에서 트럭을 타고 산천단, 관음사, 탐라계곡, 개미목, 삼각봉, 막은다리, 봉래천(蓬萊泉), 안막은다리를 거쳐 정상에 올랐고, 정상에서 1박 한 후 움텃밭, 모새밭(선작지왓), 영실, 얼시목(어리목), 어승생악, 노루오름, 검은오름을 거쳐 하산했다.

이은상은 예전의 산행기록들과는 달리 주변 풍경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당시 주변 풍경과 정황 등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우선 산천단의 경우를 보자. ‘제주(濟州) 한라산신(漢拏山神) 제단법당(祭壇法堂)’이라는 문판(門板) 아래로 들어가면 치성광 여래(熾盛光如來)와 독수선정 나반존자(獨修禪定 那畔尊者)의 위패를 모신 소림당(小林堂)이 있다. 그리고 삼의양오름 서쪽지경에 민가 2~3채가 있는 ‘굴치’라는 마을이 있고 이 곳을 지나면 관음사에 다다르게 된다. 관음사부터는 소나무 숲이 있고 이어 잣성을 넘어 방목중인 소와 말들이 뛰노는 목장을 지나 탐라계곡에 이른다. 탐라계곡 너머 다시 소나무 숲으로 오르면 개미목입구(蟻項入口)라는 나무표지가 나온다. 이어 조릿대 군락지가 펼쳐지고 개미목을 머리에 서면 삼각봉과 큰두레왓이 보인다. 소연두봉(小鳶頭峰)이라 불리는 삼각봉의 좌우로 계곡이 펼쳐지는데 왼쪽의 동탐라계곡에 대해 한내상류라 설명하고 서쪽의 서탐라계곡(개미계곡)에 대해서는 연돛골(鳶頭洞)이라 표기하는 점이 눈에 띈다.

삼각봉 끝부분에 대해서는 ‘막은다리’라는 표현으로, 용진각 방면으로 내려서면 물이 용출하는 지점에 ‘봉래천(蓬萊泉)’이라는 표목이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용진각에서 동쪽 능선을 올라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역시 오늘날의 등산로인 왕관릉으로 오르는 부분과 흡사하다. 구상나무 숲으로 덮인 이 곳에 대해 이은상은 ‘안막은다리’라 하여 앞서의 막은다리와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한 시간을 올라 백록담에 도착했고 그 날 저녁 장막을 치고 야영했다.

하산할 때는 남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움텃밭과 방아오름을 지나 모새밭(선작지왓) 너머 영실로 하산하였으며, 영실에 화전민의 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시로미를 캐고 있었다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소녀의 안내를 받은 후 한라산 산행에서 가장 땀나는 급경사를 내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소녀를 만난 지점이 영실 동쪽 능선지대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오늘날 시로미가 분포하는 지역을 감안했을 경우도 이러한 추정은 가능하다. 이어 산수국 가득한 들판을 지나 어리목 계곡에서 잠시 쉬고 어승생으로 향하는데, 이 계곡에서 물맛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비춰볼 때 당시 목동이 아닌 주민들까지도 이 지점까지는 많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지용의 백록담

정지용(鄭芝溶, 1902~1950) 시인은 암울했던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단순한 서양시의 역어적(易語的) 차원을 벗어나 동양적인 흐름 위에 존재하는 시문학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며, 한국 현대시인 중 탁월한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지용은 1938년 여름에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다. 그는 1938년 8월 조선일보에 다도해를 돌아다니며 쓴 수필 「다도해기」를 6회에 걸쳐 연재했는데, 「귀거래(歸去來)」라는 제목의 6회분에서 “백록담 푸르고 맑은 물을 곱비도 없이 유유자적하는 목우(牧牛)들과 함께 마시며 한나절 놀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감동이 컸음인지 그는 본래 바다 이야기를 쓰기로 한 의도와는 달리 산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는 양해도 함께 구하고 있다.

이어 정지용은 「백록담」이라는 시를 『문장』 3호에 썼고, 1941년에는 두 번째 시집 『백록담』을 펴내게 된다.

공동목장조합의 설립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역시 한라산과 제주도민의 기록은 별로 없다. 한라산에서의 방목과 관련해 일제는 수탈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1933년 마을 단위로 116개소의 마을공동목장조합을 결성했다. 물론 이 이전에도 마을 단위로 목장계가 있었는데, 서귀포시 상효마을의 경우 1919년 토지사정 이전부터 상효리 목장계를 조직, 운영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노형동의 기록에 의하면 한라산에서 방목하는 오립쇠(野牛)는 아흔아홉골에서 백록담에 이르는 ‘상산’에서 방목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정존 마을은 아흔아홉골 부근에서, 광평 마을은 큰 두레왓이나 장구목 너머에 있는 ‘왕장서들’ 아래부분인 ‘도트멍밭’에서 방목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곳은 오라동과 이호동, 도두동, 연동의 주민들도 함께 이용했다고 한다. 또 광평이나 월산마을인 경우는 어승생 서쪽의 ‘서평밭’과 만세동산, 백록담에 이르는 ‘웃중장’에서, 일반 소는 ‘알중장’에서 방목해 소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첫 닭이 울 무렵 집에서 출발해야만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1941년의 기록에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가 45,329마리, 말이 21,40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주 주민들은 방목 때문에 한라산에 올랐지만 일부에서는 사냥을 위해 오른 경우도 있었다. 1935년 12월 말 한라산에 올랐던 경성제대 산악부의 기록에 의하면 눈 덮인 한라산에서 가죽옷과 설피(雪皮)를 착용하고 개를 끌고 다니는 사냥꾼 사진이 나온다.

방목이나 사냥 이외의 약초나 식물 채취를 위해 한라산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1901년에 한라산을 올랐던 지그프리드 겐테의 기록에는 영실에서 나무꾼을 만난 이야기가 나온다. 가족을 포함해 23명에 이르는 나무꾼 일행이 동굴에서 숙식하며 나무벌채 생활을 했는데, 거친 가죽옷과 목화솜을 넣은 험령한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털가죽 모자와 귀 덮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1937년에 한라산을 오른 이은상의 기록에서는 영실에서 시로미를 캐는 소녀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학생들이 오른 한라산

1923년 10월 12일자 매일신보 4면 기사에 의하면, 제주도 각 학교에서는 가을시절을 맞아 수학여행(遠足)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5일 공립보통학교에서 도근천으로, 6일 사립명륜학교에서는 관음사를, 동북학숙에서는 백록담을 견학했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백

록담에 오르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소 특이한 기록으로는 1924년 석가탄신일 행사가 백록담에서 열렸는데, 경성에서 이회광 박사과 대흥사 주지대리, 나주 다보사 주지를 비롯한 신도들이 참가해 대성황 속에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조선불교』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어 1925년 10월 25일의 『매일신보』를 보면, 제주도청 주최, 식산은행 지점 후원으로 한라산 탐등단을 조직해 10월 16일 오후 4시에 관음사를 출발해 다음날 백록담에서 영실기암과 오백장군을 관찰한 후 표고버섯 재배지에서 숙박하고 18일에 귀환했는데, 삼신산의 하나인 명산을 답사함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사까지 대동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1927년 7월에는 조선교육회가 주최하는 전 조선 하기대학이 제주에서 열리는데, 참가대원 100여 명이 한라산을 오르는 한편 식물채집을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러한 원족은 훗날 사진으로 남게 되는데, 1937년 9월 16일에 백록담에 올랐던 제주농고(濟州農高) 학생들이 그 경우이다. 30여 명에 달하는 학생과 인솔자가 한라산 정상 북쪽 바위 지대에서 찍은 사진이 1996년 제주도청에서 펴낸 『제주100년』에 실려 있는데, 모두들 제복에 모자까지 쓰고 다리에는 각반을,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농고 학생들은 수년간 연중행사로 등산을 했는데, 복장에서 느낄 수 있듯이 다소 군사훈련 성격을 띠고 있다. 제주농고 학생들의 한라산 등반은 해방 이전까지 계속된다.

4 한라산과 제주도민

한라산에서의 최대 비극은 1948년 해방공간에서 일어났던 4·3항쟁이다.

1948년 4월 3일 500여 명의 무장 게릴라들은 “자주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한다.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추방하여 민중 생존권을 수호한다. 냉전기 반공주의적 세계 전략을 전 세계에 확대하려는 미국에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봉기(蜂起)했다. 남한(南韓)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산으로 오른 좌익에 의해 경찰서 등이 기습을 당하고, 이후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당국의 무차별적인 진압에 의해 수많은 민중들이 학살되는 참사를 겪었다. 이러한 아픈 역사와 함께 해방 이후의 한라산 등반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산악회와 국내 최초의 조난

해방 후 산악단체의 한라산 첫 공식 등반은 1946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산악회가 국토구명사업으로 실시한 ‘제1회 한라산 학술등산대’였다. 등반대 규모는 단장에 송석하 회장, 리더는 김정태, 등반대원으로는 주형렬·이재수·신업재·채숙·현기창 등이고 촬영반과 학술반까지 합해 19명의 조사대로 편성됐는데, 이 학술대에는 미국인 3명도 참가했다. 한국산악회의 기록에 의하면 군정청 관계자와 방송국 녹음반이 참가의사를 밝혀 규모가 커졌다고 말하고 있다. 나비박사인 석주명도 이 때 산악회와 인연을 맺어 훗날 부회장까지 하며 학술조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온다.

이들이 왜 한라산을 첫 대상으로 선택했는지를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겨울등산이라면 계절적인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적설기 등산이라면 눈이 많은 산을 오르는 장기등산으로 북한의 산들이나 한라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여겼다고 한다. 또한 적설기 등산은 스키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 이들도 스키를 갖고 한라산에 올랐다. 이들은 서울에서 많은 회원과 취재진의 전송을 받으며 목포까지 열차로 이동했는데, 미군 전용의 특별객차 한 량을 차출받기도 했다. 이어 제주에서 강연, 영화회까지 개최하고 산행에 나서는데, 관음사를 출발해 개미출, 갈밭 10리 초원이라 설명된 개미등을 거쳐 왕관릉까지 오른 것으로 기록돼 있다. 등산기록으로 봐서는 등산과정에 스키와 아이젠을 교대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들은 조사활동과 등산을 마치고 서울 남산의 국립과학관에서 귀경보고 강연회를 가진 데 이어 6월에는 촬영반이었던 이용민이 촬영한 『제주풍토기』가 산악회와 자유신문사 공동 기획으로 상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때 이들의 한라산 등산시기가 적설기(積雪期) 등산으로는 좀 늦은 때였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1947년 말부터 제대로 된 적설기 등산을 하자는 분위기가 산악회 내부에서 대두된다. 그 과정에서 전택 등 일부 회원들이 한라산 적설기 등반을 산악회에 요청하는데, 초기에는 수용되지 못하다 대원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산악회에서 추천 지원하는 행사로 결정, 산악회 등반대로서의 명칭사용이 승인된다.

등반대는 전택 대장을 비롯해 현기창, 박종대, 남행수, 신방현 등 5명으로 구성돼 1948년 1월 6일 목포에서 제주로 향한다. 제주에 도착해서는 도지사 관저를 방문한 후 검찰청에서 제공한 스리쿼터로 인부 3명과 함께 삼성혈을 경유해 관음사로 향한다. 다음날 관음사를 출발, 오후에 개미목에 도착해 인부들을 하산시킨 후 설영에 들어가 1박 한다. 이어 왕관릉을 오르며 1936년에 조난 사망한 일본인 마에카와의 조난비(遭難碑)를 보고 백록담 북쪽 능선에 도착한

다. 이 때부터 기상이 급변, 천막이 찢어지는 악천후에서 밤을 새운 후 날이 밝자 서귀포로 하산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150cm 이상 쌓인 신설과 급경사에 포기하고 북쪽 코스로 하산을 시작한다.

40년 만의 폭풍설이 몰아쳤다는 운명의 1948년 1월 16일에 귀중품과 식량만을 챙긴 채 급속하게 하산하기로 하고 용진각까지 왔으나 많은 눈이 쌓여 개미등으로 향하는 지형을 찾을 수 없어 탐라계곡으로 하산하기 시작한다. 이 때 일행 중 2명을 먼저 하산시켜 구조를 요청하게 하는데, 선발대도 얼마 전진하는 못하는 상황에서 전탁 대장은 급기야 사망한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조난사고이다. 사고 발생 소식에 서울에서는 조난구조본부가 설치되고 홍종인 총대장, 김정호 구조대장 등으로 구성된 1차 수색대가 제주로 향해 12일간 수색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어 상경하고, 이어 임시총회를 거친 후 2차 수색대가 사고 두 달 만인 3월 15일 탐라계곡에서 유해를 발견한다. 이어 20일에 사고 현장에서 장례를 거행하는데, 망인의 조카인 전담이 다비(茶毘)식의 불을 붙인다. 그리고 23일에 제주불교포교소에서 영결식을 마치며 국내 최초의 조난사고는 마무리된다.

4·3사건과 한라산

입산금지령

1948년 4월 28일 국방경비대 제 9연대와 계림라 간의 평화 협상이 5·3사건으로 불리는 경찰의 방해로 결렬되고, 전국적으로 진행된 5·10단독선거에서 제주도 2개 선거구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화된 이후 군경 토벌대는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어 1948년 10월 17일 제주도 경비사령관 송요찬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暴徒)의 무리로 인정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에 대해 해안 마을로 이주하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나 포고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23일에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다. 100여 개의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는 이른바 “빨갱이 사냥”이 벌어졌고, 하루에 100명 이상이 사살되었을 정도로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사령부의 『4·3종합보고서(1948년 4월 1일자)』 중 정보참모부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14,000~1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산간마을 소개

1948년에 내려진 소개령으로 제주도 중산간 마을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했다. 마을 주민들이 좌익 무장대에게 도움과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판단한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모두 해안 지대로 내려 보낸 다음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을 자행해 폐허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제주도 내 도처에서 계속 벌어졌다. 해안가 마을로 내려간 사람들 또한 움막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1954년 가을 입산 금지가 풀린 뒤 중산간의 자기 마을로 되돌아가 마을을 재건하게 된다.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1955년의 난민 정착 자료에 따르면, 4·3항쟁의 이재민은 34개 리, 48개 마을, 2,074세대, 7,933명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학살당한 마을의 경우는 이미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버려졌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을을 재건하고자 했으나 예전의 처절한 기억 때문에 본래의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떨어진 곳에 새롭게

마을을 조성하기도 했다.

제주4·3연구소가 조사한 4·3항쟁 당시 잃어버린 마을 현황을 보면, 제주시 29개 마을을 비롯하여 서귀포시 2개 마을, 북제주군 35개 마을, 남제주군 11개 마을 등 77개로 나타난다. 특히 중산간 마을인 제주시 노형동의 경우 함박이굴, 방일리 등 8개의 마을이 없어졌고, 애월읍의 경우는 원동 마을 등 13개의 마을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도민들이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는 “식량난으로 나무껍질을 벗겨버려 수목이 고사하는 사태가 허다하다. 중앙에서 녹화보호를 위하여 단속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왔다.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의 껍질을 벗겨 보리가루나 메밀가루에 버무려 죽을 쑤어 연명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1953년 11월 5일자 제주신보에 실린 기사가 잘 보여 준다.

한라산에서의 교전

붕기한 무장대는 한라산으로 들어가 게릴라가 되었고,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어린이, 노약자까지 산 속에서 지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군인과 경찰은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해 한라산으로 들어와 연일 총성이 멈추지 않았다. 계속되는 토벌로 상당수의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학살되었다. 1963년의 제주도청 자료에는 80,000명이 희생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4·3항쟁이 진행되는 동안 희생된 사람은 30,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최근의 견해인데, 당시 제주도 인구가 2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의 10%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도 한라산 자락에는 당시의 아픈 상처를 보여 주는 유물·유적이 곳곳에 산재한다. 경비대가 무장대를 토벌하며 쌓은 돌담이 남아 있는 주둔소만도 한라산 동쪽의 수악주둔소를 비롯하여, 서쪽의 녹하지악, 남쪽의 시오름, 북쪽의 관음사 등 곳곳에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관음사와 수악교, 녹하지악 정상 주둔소는 지금도 해마다 4월이 되면 시민들이 4·3 역사 순례 장소로 많이 찾는다. 또한 무장대를 이끈 이덕구가 은신했던 괴평이오름 주변 일대도 이덕구 산전이라 하여 답사 코스의 하나가 되었다.

간혹 무장대의 은신처가 발견되기도 한다. 바위 틈에 돌담을 쌓아 만든 10여 명이 은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은폐되어 있다. 수악계곡의 바위 절벽 밑에 있다.

개방기념 답사

1954년 9월 21일 제주도 경찰국장인 신상묵은 한라산 금족지역을 해제하고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됐던 마을 성곽의 보초임무도 철폐했는데, 이는 1948년 4·3사건 발생 후 6년 6개월 만의 일로 사실상 도 전역을 평시 체제로 환원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로써 완전히 한라산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다. 당시 경찰은 잔여 무장대의 수를 5명 정도로 추정해 관음사 옛 터에 신선대 본부(대장 허창순 경감)를 두고 막바지 작전도 동시에 전개했는데, 마지막 무장대원인 오원권이 구좌읍 송당 지경에서 생포된 것은 이로부터 2년 반이 지난 1957년 4월 2일의 일이다.

한라산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다시 등산의 발길이 이어지는데, 그 시작이 같은 해 10월 5일 제주초급대학 학도호국단 주최로 120명 전원이 사각모를 쓰고 한라산을 오른 것이다. 당시 이들은 아흔아홉골과 어승생 사이를 지나 큰두레왓을 거쳐 정상에 올라 백록담 물을 떠다가 저녁밥을 지어 먹었다. 당시 산행에 참여했던 현용준 박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직도 산에 무장대가 남아 있을지 몰라 총을 든 이들도 동행했다고 한다. 이어 10월 10일에는 제주신보사가 주

최한'한라산 개방기념 답사'가 열려 길성운 도지사와 김창욱 검사장, 신상묵 경찰국장, 미 고문관 등 군경, 교육, 금융, 언론계 인사 66명이 참가하기도 했다. 또한 도청 산하 내무국, 산업국과 경찰국 합동으로 구성된 횡단도로 조사반이 한라산 횡단도로 공사를 위한 현지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대학 답사반은 한라산 전역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한라산 개방에 따른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외에도 한라산 개방을 기념하는 등반대회가 기관, 직장, 단체별로 잇따라 열려 한라산 개방 후 1955년 봄까지 전국 15개 산악회가 한라산을 등반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한라산 입산금지령이 해제되고 1년 뒤인 1955년 9월 21일에는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 북벽에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漢拏山開放平和紀念碑)가 건립되었고, 그 비는 아직도 한라산 정상에 서 있다. 신선부대장 허창욱이 글을 쓰고 동화임업 사장 이광철이 건립한 이 기념비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漢拏山開放平和紀念碑 檄文 永遠히 빛나라 濟州道警察局長 申相默氏는 4·3사건으로 팔년간 봉쇄 되었던 한라보고를 甲午年 九月 二十一日 開放하였으니 오즉 英雄的 處事가 안이리오 다만 全道는 寄與된 自由와 福音에 感訓할 것이다 檀紀四二八八年 九月 二十一日’

5 4·3항쟁 이후의 한라산 등반

한국산악회와 한라산

4·3항쟁이 마무리되며 한라산이 개방되자 한국산악회는 알피니즘의 적극적인 구현으로서 적설기 한라산 등반을 기획한다. 당시 이들은 1948년 전락 대장의 조난 당시의 등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회의 공식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차 적설기 한라산등반대라는 이름을 내걸고 산행에 나서는데, 산행 시기는 소한과 대한 사이의 가장 추운 시기로 택하여 등반했다.

부산에서 해군함정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한 등단대는 경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오현고등학교를 임시숙소로 정한 후 관음사 터에 베이스캠프용 군용천막을 설치하고 해병대 통신반 3명이 참여, 무전송수신 시설까지 갖춘 후 산행에 나서게 된다. 4·3항쟁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지 경찰국에서는 개미목까지 경찰을 동행시키겠다고 하며 허모 경감 등 2명이 따라나선다. 이어 4명으로 구성된 A조가 개미목에 제1캠프를, B조는 탐라계곡에 제2캠프를, C조는 서귀포 출발 도중에 제3캠프를 설치한다. 이 때 홍종인 대장 등은 관음사 베이스캠프에서 무전교신을 하며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학술반격인 이송녕 박사는 제주방언조사를 위해 도 일주에 나선다.

이어 1월 14일에 A, B조는 전원 스키 등반으로 백록담에 오르는데, 이 때 홍 대장은 한라산에서 산화한 전락 대장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3명을 남벽으로 하산시키기로 결정하고, 이 중에는 전 대장의 조카인 전담도 포함된다. C조의 김영윤은 반대로 남벽에서 정상을 올라 동계 남벽 초등의 기록을 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만병초 푸른 잎이 무성한 역새밭에서 예전 전락 대장의 추도사를 읽기도 했다.

당시 이들이 기록한 산행기를 보면 지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조릿대 숲을 산대 숲이라 부르는 것을 비롯해 해발 1,711m의 삼각봉을 사치골 바위라 부르고, 왕관릉을 왕관암 바위로 부르기도 했다.

이들의 산행에 대해 산악회 창립 10년 만에 가장 정상적으로 짜여진 알피니즘과 히말라야즘의 인적 구성과 기획 준비된 기능적인 등반활동의 성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귀경 후 서울문리대 강당에서 강연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동화백화점에서 기록사진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같은 해 겨울 서울사대가 민용기를 리더로 한 산악회를 창립하고 그 첫 목표로 한라산을 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1차 적설기 한라산등반에서 백록담에 캠프를 쳐 엄동기 정상의 설중막영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산악회는 다음해인 1957년 2차 적설기 한라산등반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는 공군의 협찬으로 군용항공기를 이용해 제주에 도착해 관음사에 베이스캠프를, 개미등에 제1캠프, 개미목에 제2캠프, 백록담에 제3캠프를 설치하는 극지법 전진방식을 채택했다. 당시 이들이 기록한 사진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백록담 서쪽 정상에 세워졌다는 제주도 '4·3사태평정기념비'를 홍종인 대장이 보는 모습의 사진이다. 이밖에 돌무더기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전락 대장의 캐언에서 추모목념 사진, 삼각봉 트래버스를 통과하는 등반대, 개미목에서의 막영(幕營), 백록담에서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한 사진과 기상관측을 하는 모습 등도 눈에 띈다.

한국산악회는 같은 해 8월에 제2회 고교산악부를 위한 해양산악훈련을 실시하는데, 189명의 대원이 제주시와 서귀포로 나뉘 두 곳을 출발하여 한라산을 집중 등반하는 과정에서 기상악화로 폭우와 번개 등 여름산악기상의 변화를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백록담에서 막영

을 하는 모습의 사진이 전해지는데, A현 텐트가 주종을 이루고, 대원들 중에 밀짚모자를 쓴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58년 겨울에는 고려대산악부가 적설기 한라산 등반에 나서기도 했고, 1967년 대구를 중심으로 창립한 경북학생산악연맹이 8월에, 제2회 고교산악부를 위한 해양산악훈련도 1967년 8월에 한라산에서 열려 102명이 등반에 나서기도 했다.

대피소의 신축

한라산 휴게소는 1957년 9월 초에 류충렬 경찰국장의 착안으로 시설됐다고 알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백록담 분화구 안의 제승정(濟勝亭)을 비롯해 개미목 부근 동(東)탐라계곡에 용진각(龍鎭閣), 한라산 남쪽에 남성대(南星臺)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승정은 겨울철에 심한 폭설로 돌로 만든 벽이 무너지고 함석으로 덮인 지붕은 도난당해 훼손됐고, 남성대와 용진각은 다음해 10월 25일의 강풍으로 문짝과 지붕 일부가 무너지기도 했다.

이 밖에 관음사 동쪽에 탐승정(探勝亭), 영주정(瀛洲亭) 등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제주시교육위원회가 관리를 맡던 시기로 영주정과 탐승정, 용진각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탐승정과 영주정의 경우는 관음사 터에 주둔했던 신선대 부대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선대 부대가 이 곳에 주둔한 게 1954년 무렵이니 그 때부터 1957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의 대피소 시설은 각종 학술조사단과 등산객, 관광객 등이 주로 이용했다.

이어 1962년 9월 개미목에 예산 10만 원을 들여 12평 규모의 휴게소를 만들었고, 10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 49,000원을 투입해 탐라계곡에 6평 규모의 적십자대피소를 지었다. 석조 콘크리트에 양철지붕으로 이뤄진 이 대피소는 10~15명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폭우로 탐라계곡에 물이 넘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실제로 그 해 여름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소용돌이치는 계곡을 건너려다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적십자사에서는 음료수문제 해결을 위해 저수시설까지 만들 계획이었다.

1963년 10월에는 영실에 도비 387,800원을 들여 14평 규모의 휴게소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입승정으로 오늘날 자연보호현장 탐이 있는 그 지점이다.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해발 1,500고지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다고 돼 있는데, 높이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훗날 입승정 바로 옆에 지어져 오늘까지 남아있는 영실 팔각정은 1,280m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3년에는 용진각에 원형대피소가 지어졌는데, 1971년 눈사태가 발생하며 이곳에서 취사를 하던 산악대원들이 눈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한편 1965년 7월에 한라산 휴게소가 파괴돼 흉물로 전락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오는데, 내용은 영주각이나 용진각, 탐라계곡 대피소가 모두 벽이 헐리고 문짝까지 파괴돼 흉물로 남아 하루 50~60명이 등산하는 상황에서 불순한 날씨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부종휴와 한라산

1952년 가을을 기점으로 4·3항쟁이 누그러들자 식물학자 부종휴(夫宗休, 1926~1980)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무장경관을 대동하고 한라산에 식물을 채집하러 다녔다. 1953년도에 부종휴와 함께 한라산을 오른 현임종의 기록을 보면, 부종휴가 한라산에서의 식물채집을 위해 당국으로부터 어렵사리 입산허가를 신청하자 당국에서는 무장경관 3명이 호위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

3박 4일 일정으로 계획된 산행은 관덕정을 출발해 산천단에서 점심을 먹고 불타버린 관음사 까지 이동하여 1박을 하게 된다. 당시 관음사 터에는 경찰관 초소가 있고 몇 명이 경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과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것이다. 이어 둘째 날 나대로 가지치기를 하며 산행에 나서 탐라계곡에서 점심을 먹고 개미등을 거쳐 용진각에 도착하여 개울물에 목욕을 한 후 비박을 한다. 그리고는 셋째 날 왕관능을 올라 백록담에 도착, 점심을 먹고 분화구를 한 바퀴 돈 후 남벽으로 하산해 영실의 옛 절터에서 다시 1박 하는데, 이 과정에서 4·3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사체도 목격하게 된다. 마지막 날은 영실을 출발하여 서귀포 하원동으로 하산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부종휴는 1947년 동굴발견을 시작으로 제주도의 수많은 동굴을 발견하여 조사하고 탐험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에서의 식물조사활동에 매진하여 한라산이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으로 지정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1979년 8월 발행된 『제주도지』 75호에 보면 ‘나의 산행’이라는 코너에 『아름다운 경관. 식물의 보고-한라산 등반 365회』라는 제목으로 부종휴의 글이 나오는데,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 과거에는 산에서 살고 싶어 했고 한라산 정상까지만 365회의 등산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 또한 13세 때 누나를 따라 성널폭포에 물 맞으러 간 것이 한라산에서의 산행의 시작이라는 부종휴는 4·3항쟁 당시에도 유언서를 집에 남기고 식물채집을 위해 등산을 할 정도였다. 나중에는 신상묵, 이경진 경찰국장이 산에 가고 싶을 때 미리 말하면 경호부대를 대동시켜 주겠다고 해서 102부대, 105부대 등 토벌대와 함께 산을 오르기도 했다.

등산로를 따라가지 않고 가고 싶은 코스를 지도만 가지고 올라가곤 했다는 그의 말처럼 부종휴는 한라산 등산로 개척에 있어서도 새로운 코스를 가장 많이 개척한 인물로 기록된다. 1961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산악구조대인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의 창립에 참여하고, 이어 1964년 7월 도내 최초의 산악회인 제주산악회의 창립을 주도해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68년에는 한라산우회를 창립,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부종휴는 1963년 『제주도지』에 기고한 『한라산과 등산안내 - 등산코스 개척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① 관음사~등산구~탐라계곡~개미등~용진국~왕관릉~정상 코스를 비롯해 ② 서씨표고밭~능하오름~큰두레왓~장구목~백록담서쪽절벽 ③ 등산구~탐라계곡~왕관릉~정상 ④ 대월악~물장울~속밭~정상 ⑤ 관음사~흙붉은오름~왕관릉~정상 ⑥ 생수층~어승생악~사제비동산~윗세오름 ~정상 ⑦ 미악산 ~남성대~방아오름~정상 ⑧ 생수층~웅악~윗세오름~정상 ⑨ 하원~영실~윗세오름~정상 ⑩ 원~한대오름~삼형제오름~이슬령오름~영실~정상 등 10개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1968년 10월 25일자 『제주신문』은 한라산우회가 새로 개척한 코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① 물장울~솔밭 ~흙붉은오름~가메밭~왕관릉~정상 ② 토동악~통괘~성판악~정상 ③ 제2횡단도로~어승생~어리목~장구목~정상 ④ 정상~평괘~돈내코 ~횡단도로~법호촌 등이다. 기사에서는 물장울과 토동악코스는 물과 굴이 있는 캠프사이드가 많고 명승지 구경이 장점이며 제2횡단도로의 경우 차편으로 1,120m까지 이동한 후 산행에 나서기 때문에 2~3시간의 보행으로 정상까지 갈 수 있고 물이 풍부한 점, 법호촌 하산코스의 경우 기존 남성대코스의 단조롭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길을 잃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며 돈내코 등 경승관광까지도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1969년 9월에도 등산로 개척에 나서 견월교 - 물장울 - 속밭고원 - 흙붉은오름 - 통괘 - 정상 - 윗법호촌 - 돈내코 코스를 비롯해 어승생 - 병풍바위 - 큰두레왓 - 장구목 - 정상 코스, 성판악 - 메인코스 - 사라오름 - 통괘 - 정상 코스 등 3개 코스를 개척한 후 이들 코스는 한라산의 식물을 수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코스 개척과 함께 4

각형 적색철판과 3각형 표지판 185개를 등산로 변에 부착하기도 했는데, 이들 표지판은 김원 공작소 대표가 한라산우회에 기증한 것이다.

한편 부종휴는 1946년 5월에 김녕국민학교 재직 당시 봄 소풍을 갔다가 만장굴(萬丈窟)을 발견한 이후 도내에 산재한 수많은 동굴을 발견하여 조사활동을 펼쳤다. 만장굴 발견 당시에는 학교 동료들과 탐험대를 조직해 조사에 나섰다. 대장 부종휴, 부대장 김병연 등으로 3차에 걸쳐 조사활동을 편 후 전장 7,000m, 폭 9m, 높이 20m라 소개하고 있다.

1969년에는 빌레못동굴을 발견하여 측량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한라산우회가 주축이 된 1971년의 답사에서 주굴의 길이 1,350m, 가지굴 2,050m 등으로 총 3,555m로서 이 또한 3분의 1밖에 측량하지 못했다며 만장굴보다 큰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또 굴 너비는 3~5m, 높이는 1~15m인데 굴 속에는 용암석순과 폭포석주 등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당시 답사에서는 4·3항쟁 당시 이 곳으로 피신했다가 희생된 4구의 시체를 발견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후 유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빌레못굴에서는 1973년 부종휴, 박행신 등에 의해서 동물의 뼈가 발견, 3000년 전 들소로 추정했으나 뒷날 문화재전문위원인 정영화 교수(영남대학교)에 의해 북극지방에 살던 후빙기시대의 황곰 뼈로 밝혀지는 한편, 석기시대 유물과 사슴 뼈도 추가로 출토되었다.

이 밖에 1971년 2월에는 서귀포 미악산 동쪽에서 제주도 최초로 발견된 수직굴인 모시마루굴과 위콧대마루굴 등 4개 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동굴의 규모를 밝혀내기도 했다. 이어 1973년 6월에는 한들굴에서 고고자료를 발견하기도 했고, 1973년 6월 백록담에서 조관빈과 임관주, 최익현 등의 마애명 발견, 1974년 용담동에서 토기파편 20여 점 발견, 1975년 서김녕리에서 패총을 발견하는 등 당시 신문에 부종휴와 관련된 기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부종휴의 가장 큰 공적은 한라산에서의 식물채집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새로운 식물을 찾아냈다는 데 있다. 1962년 4월 부종휴는 박만규 국립과학관장이 단장인 식물조사단에 참여해 수악 서남쪽 1km 지점에서 30년생 왕벚나무 1그루와 동남쪽 700m 지점에서 왕벚나무 2그루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린다. 이는 그 동안 왕벚나무에 대한 원산지 논란과 관련해 한라산이 왕벚나무의 자생지임을 확인케 해주는 쾌거였다. 왕벚나무는 이어 1963년 4월에 물장울 부근에서 박만규에 의해 추가로 발견된다. 부종휴는 1964년 횡단도로 남북군 경계선 도로 동쪽 700m고지 부근에서 높이 20m, 밑둘레 1.2m로 수령이 50~60년으로 추정되는 자생 왕벚나무를 발견한다.

이 밖에도 1968년 5월에는 흙붉은오름에서 흰진달래를 발견하기도 했는데,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종철의 말에 의하면 부종휴는 최소 2~3년을 지켜본 후 신종(新種) 또는 변종(變種) 여부를 판가름했다고 한다. 이어 1972년 2월 월령의 선인장 자생지 발견도 부종휴에 의해 이루어졌다.

산악안전대의 창립과 산악활동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

1961년에 서울대학교 법대생인 이경재가 한라산에서 사망하자 같은 해 5월 제주의 산악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산악구조대인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초대회장 김종철)를 결성하게 된다. 창립 대원으로 김종철, 부종휴, 안흥찬, 고영일, 김규영, 김현우, 현임종, 강태석, 김영희 등 9명의 대원으로 출발했다. 초대 대장에 김종철을 선출한 후 뜻있는 젊은 산악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여 두 달 후인 8월에는 27명으로 불어났다.

주요 활동내용은 한라산 동·하계 훈련, 등산로 개척등반, 위험표지판과 등산로안내판, 응급구호소 설치, 태풍과 폭우로 인한 안전교도 등반, 안내등반 등이었다. 초기의 코스는 관음사 ~ 탐라계곡~용진각~정상코스, 서귀포~남성대~방아오름~정상 코스, 성판악~정상 코스, 99곡 ~어승생~만수동산~정상 코스, 영실~탐괘~정상 코스였다. 산악안전대의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79년 12월 26일 제주도 공익상(사회봉사부문, 부상 100만 원)을 수상하기도 했다. 뒤이어 산악단체인 밸크 헤일클럽 회원들이 1962년 8월 관음사, 탐라계곡, 개미등, 개미목, 왕관릉, 백록담, 오백나한, 남성대 등 11개소에 거리를 명시한 등산로 안내판을 세우기도 했다. 유한양행의 후원으로 제작된 안내판은 야광페인트와 방수페인트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1962년 8월 경찰국에서도 경위급 1명과 순경 1명 등 2명으로 구성된 산악순찰대 3개조를 편성해 매일 한라산 정상과 관음사 사이를 순찰하기도 했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경찰과 민간인 6개조 30명으로 안전대를 조직, 관음사~탐라계곡~정상 구간을 수시로 순찰하며 등반객의 길 안내와 구호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여름철의 경우 비상식량, 우의, 라디오, 천막, 나침반, 취사 도구, 연료, 손전등, 수통 등을, 겨울에는 방한복, 방한화, 천막, 모포, 설피, 닭털침낭 등을 갖추고 산행에 나서줄 것을 등산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산악구조대라는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는 2005년에 이르러 일대 전기를 맞게 되는데, 제주도산악연맹과 통합,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 적십자산악안전대(약칭 제주산악안전대)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통합에 앞서 2004년 12월 열린 적십자산악안전대의 총회에서는 격론 끝에 이 안전을 표결에 부쳐 통합 안이 확정된다. 이어 2005년 1월 말 2박 3일간의 동계훈련을 거쳐 2월 초 발대식을 갖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산악회의 창립

1961년 만들어진 산악안전대의 활동은 등산로 개척과 정비, 인명구조 등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부종휴, 김종철 등이 전문산악단체를 만들자고 제의하여 1964년 7월 21일에 제주도적십자사 사무실에 부종휴, 김종철, 안흥찬, 고영일, 김현우, 현임종, 김두현, 강태석, 고영섭, 최양명 등이 모여 제주산악회 결성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교육자로 문화재연구에 일생을 바친 홍정표를 선출하고, 부회장에 부종휴를 선출했다.

제주산악회(濟州山岳會)는 제주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산악회로서 그 구성원 대부분이 산악안전대 대원이었고 창립 당시부터 산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했다. 제주산악회가 주최 또는 주관한 산악 행사로는 1967년 제1회 한라산 철쭉제, 1968년 제1차년도 국토종주삼천리, 1970년 제1회 한라산 집중등반, 1974년 제1회 한라산 만설제, 전도 산악인의 밤 등이 있다. 1970년대 이전에 시작된 산악행사는 모두 제주산악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1968년 5월에는 부종휴를 회장으로 한 한라산우회가 창립된다. 하지만 한라산우회의 창립 과정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이들의 창립을 소개하는 신문기사에서 부회장 명단으로 한쪽에는 김종철, 고영일인데 반해 다른 기사에는 문기선, 고영일로 소개되고 있다. 주로 20대의 청년들로 구성된 한라산우회는 제주산악회와는 달리 한라산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술조사등반을 갖고 보고회와 사진 보도전, 회지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라산우회는 부종휴가 한라산 흠뻑은오름에서 흰진달래를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수많은 동굴탐사활동에 나서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해체되는 비운을 맞는다.

1969년 6월에는 1개 산악단체로 제주도산악연맹을 만들어 대한산악연맹에 가입하기도 했다

데, 현재 세계 6대륙 최고봉 등정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토종주삼천리

1968년 7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국토종주삼천리' 출발을 알리는 행사가 제주도에서 있었다. 대한산악연맹은 8·15를 기념해 국토 중 고봉(高峰)이 가장 밀집해 있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등산로 개척 및 학술조사, 지형조사 등을 목표로 국토종주삼천리를 기획했는데, 그 출발을 국토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제주에 대한산악연맹이 결성되지 않아 제주산악회가 주관하게 되는데, 서귀국민학교에서 숙영(宿營)하고 7월 10일에 제주도 어로지도선인 무궁화17호 편으로 마라도에 가서 산악인 전원이 서명한 연맹기와 기념 페넨트, 행사계획서를 병 속에 넣어 마라도 등대 옆에 묻고 그 곳에서 파낸 흙의 일부를 병 속에 넣고 돌아왔다. 이 흙을 향로봉까지 전달해 통일이 되면 백두산 흙과 합쳐기로 한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당초 계획에는 없다가 제주산악회의 김승택 회원의 제안에 의해 성사된 것으로 당시 신문은 전한다.

이어 당시 서귀국민학교에서 출발식을 갖고 중문 하원으로 이동해 한라산 산행에 나서는데, 큰넷포를 거쳐 영실 입승정에서 막영하고, 다음날 비 날씨 속에 오백나한, 탑골, 윗세오름, 정상을 거쳐 용진각에서 다시 1박 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하산을 결정하고, 개미등, 관음사, 산천단으로 내려왔다.

제주도 산악인들이 주관한 제1구간 종주 팀은 7월 12일에 제주산악회 안흥찬 회장과 김현우, 김승택 회원이 안성호 편으로 목포에 도착하여 다음날 유달산 유선각에서 전남산악인들에게 '統一에의 意志國土縱走三千里'기와 유리병에 담은 마라도 흙과 한라산 에델바이스(한라솜다리) 인계식을 마치고, 7월 13일에 안성호 편으로 귀도(歸島)했다.

제주도 행사 참가자는 대한산악연맹 최두고 회장과 강호기, 김초영, 신종욱, 양승혁, 이원직, 최남진, 최명길 등이고, 제주산악회는 안흥찬(대장), 김현우(등반대장), 흥정표(민속고고학반장), 오상철(동식물반장), 박요찬, 김용구, 김병일, 문화자, 방경옥, 이정덕, 김승택(행사 기획) 등이, 제주신문 특별취재반으로 김지훈, 흥명표, 양건웅, 고인지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산악연맹 창립

육지 산악인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제주산악회는 1968년 1월 20일에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대한산악연맹에 가입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회장에게 일임기로 하고, 제반사항(회계연도, 정기총회 일자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월 25일에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임시총회에서 제주산악회 회칙개정과 제주도산악연맹 정관을 제정하여 대한산악연맹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 당시인 1968년 1월 말 정식 출범이 이뤄지지 않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신문에는 도산악회로 표기된 도산악연맹에서 적설기 한라산에 대한 기상조사반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조사반은 2박 3일간에 걸쳐 관음사 코스에서 기상 상태를 비롯해 설질(雪質, 눈의 성질), 등산코스 등을 둘러본 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삼각봉에서 용진각에 이르는 구간 약 700m를 가장 위험한 코스로 지목하며 충분한 장비와 능숙한 리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제주도산악연맹 가맹단체는 제주산악회 하나뿐이므로 자격 미달이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1969년 6월 2일에 대한산악연맹이 가맹을 허가하여 창립하게 됐다. 초대 회장에는 안흥찬이 선출되어 1979년까지 5대에 걸쳐 회장을 역임했다. 제주도연맹을 창립하기까지는 제주도 산악인 김승택과 대한산악연맹 총무이사인 강호기가 많은 역할을 했다.

등산로의 개척

한라산 등산의 역사는 1577년 11월에 제주에 왔다가 1578년 3월까지 머물며 한라산을 올랐던 임제의 기록에서 시작되는데, 임제는 존자암을 거쳐 백록담에 오른 후 남동쪽으로 내려 두타사로 하산했다. 이후 조선시대 대부분의 등반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곳 영실의 존자암은 등산의 시작점이고 또한 존자암의 승려들은 산악가이드의 역할까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등산로로는 김성구가 백록담에서 한라산신제를 올리고 일행과 헤어져 곧바로 정의현이 위치한 동남쪽 방향으로 하산했던 기록이 있다.

이어 1841년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원조가 죽성촌을 새벽에 출발하여 처음에는 말을 타고 가다가 다시 가마로 갈아타고 도중에 가파른 급경사에서는 도보로, 마지막에는 다시 가마로 오르며 북쪽에서 곧바로 오르는 등산로가 등장한다. 그리고 1875년 최익현은 방선문과 그 동쪽 마을인 죽성(竹城)을 거쳐 탐라계곡, 삼각봉, 백록담 북벽으로 정상에 오른 후 남벽으로 하산, 선작지왓의 바위 틈에서 비박을 하게 된다.

1905년 일본경성제대 학생인 이찌시타(市河三喜)는 남문과 삼성사(삼성혈)를 거쳐 돌담으로 이뤄진 들판을 지나 초원지대, 소나무와 갈까마귀 소와 말, 관목 숲을 거쳐 능화동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능화동에 대해 7~8채의 인가로 이뤄졌고 삼림지대까지는 아직도 10수정(町)이 남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오늘날의 관음사코스와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 초기인 1911년에 슈우게츠(大野秋月)는 한라산 산행코스에 대해 자못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정상에 오르는 길은 제주성내에서와 서귀포에서 출발하는 두 개가 있다며 제주성내에서는 7리, 서귀포에서는 5리가 걸린다고 말한다. 이어 1924년 10월에 발행된 『불교』 제4호에 실린 구산인(龜山人)의 기록에서는 방선문을 구경한 다음날 관음사를 거쳐 백록담을 올랐고, 1930년 백환(白桓) 양 씨(陽氏)는 관음사에서 머물다 백록담을 오르는 등 이 시기에는 관음사 코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35년 12월 말 경성제대 산악부는 관음사를 출발하여 개미목 산장을 거쳤고, 같은 기간 나니와 고교 팀은 남쪽코스로, 1937년 이은상은 제주시에서 트럭을 타고 산천단, 관음사, 탐라계곡, 개미목, 삼각봉, 막은다리, 봉래천, 안막은다리를 거쳐 정상에 올라, 정상에서 1박한 후 움터밭·모새밭(선작지왓)·영실·얼시목(어리목)·어승생악·노루오름·검은오름을 거쳐 하산했다.

이후 4·3사건 때 폐쇄됐던 한라산이 개방된 1950년 후반에는 관음사와 영실·남성대 코스만이 있었는데 5·16도로가 개통되며 성판악코스가, 어리목코스는 스님과 목동들이 다니던 길을 개척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종휴와 김종철 등이 많은 등산로를 개척하고 정비했다. 부종휴는 등산로를 따라가지 않고 가고 싶은 코스를 지도만 가지고 올라가곤 했다는 말처럼 한라산 등산로 개척에 있어서도 새로운 코스를 가장 많이 개척한 인물로 기록된다. 그는 1963년 『제주도지』에 기고한 『한라산과 등산안내-등산코스 개척을 중심으로』라는 글을 통해 ① 관음사~등산구~탐라계곡~개미등~용진국~왕관릉~정상 코스를 비롯해 ② 서씨 표고밭~능하오름~큰두레왓~장구목~백록담 서쪽 절벽 ③ 등산구~탐라계곡 ~왕관릉~정상 ④ 대월악~물장울~속밭~정상 ⑤ 관음사~흙붉은오름~왕관릉~정상 ⑥ 생수층~어승생악~사제비동산~윗세오름 ~정상 ⑦ 미악산 ~남성대~방아오름~정상 ⑧ 생수층~웅악~윗세오름~정상 ⑨ 하원~영실~윗세오름~정상 ⑩ 원~한대오름~삼형제오름~이슬령오름~영실~정상 등 10개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 1968년 10월 25일 『제주신문』은 한라산우회가 새로 개척한 코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① 물장울~솔밭~흙붉은오름~가메밭~왕관릉~정상 ② 토동악~통괘~성판악~정상 ③ 제2횡단도로~어승생~어리목~장구목~정상 ④ 정상~평괘~돈내코

~횡단도로~법호촌 등이다.

부종휴가 등산로 개척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1961년에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던 김종철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산로 정비에 적극 나섰다. 원로산악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북벽 절벽의 손잡이도 김종철과 부종휴가 3일 동안 징과 망치로 뚫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적십자산악안전대의 기록에 의하면 김종철은 1961년 창립 이후 1971년까지 18회의 등산로 안전표식 설치작업 출동 중 16회를 기록, 최고 출석률을 보이고 있고, 1962년부터 1970년 사이의 16회에 이르는 조난자 구조 및 수색에 13회나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는데 1961년 10월 20일자 동화통신(東和通信) 기록이다. 『등산안전에 이상?』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코스 표식기를 제거하는 안내상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가 등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요소마다 코스 표식기를 설치했는데 안내전문 상인들이 이를 제거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안전대가 1961년 8월에 북쪽코스의 등산 입구로부터 백록담에 이르는 구간을 비롯해 백록담에서 하원 내지 서귀포까지의 코스에 붉은 비닐로 만든 표식기를 설치했는데, 북쪽코스 두어 곳에만 남아 있을 뿐 모두 제거된 것으로, 10월 8일 시내 모 기관장들이 한라산에 올랐다가 표식기가 없어 길을 잃고는 뒷날에야 무사히 하산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시기의 산행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등산가이드의 활동인데, 1968년도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프로가이드인 손성권의 경우 1회에 받는 등산 안내료가 여름철에는 2,000~3,000원이고 겨울철에는 갑절에 가까운 요금을 받았다고 한다. 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등산객이 뿌리는 하루 평균 등산비용 1,000~1,500원 등을 감안할 경우 등산보조원이 많이 양성될 경우 그만큼 제주도에 적지 않은 수입을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인 1962년 10월 6일 한라산에 무지개 등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주시와 조천, 구좌, 표선, 남원, 서귀, 대정, 중문, 안덕, 한경, 한림, 애월 등 7개 구역에서 각기 무지개색 재건 깃발을 하나씩 들고 한라산 정상에서 만나는 등반이었다.

산악안전대 창립 대원인 고영일 씨가 5:16 때 부이사관 대우로 재건국민운동본부 도지부 운영 부장으로 있을 당시 기획된 행사인데, 한라산에 등산 코스가 없을 때라 일곱 개의 등산 코스를 만든다는 부가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산악안전대에서는 김종철 대장과 안흥찬, 김현우, 김두현 대원이 안전등반 협조차 같이 동행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 등반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이 지켜낸 한라산

1959년 7월 25일, 95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종합학술조사단이 해군함정 편으로 제주에 도착한다. 윤일선 서울대학교 총장이 단장으로 나서고 국내 주요 대학교수 7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인문·사회·자연과학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활동을 펼쳤는데, 자연과학부문의 경우 식물반은 동서종주에 의한 미(未)답사지역에 대한 식물조사를 계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1962년 4월에는 박만규 국립과학관장을 단장으로 한 식물조사단이 내도(來道), 수악 서남쪽 1km 지점에서 30년생 왕벚나무 1그루와 동남쪽 700m 지점에서 2그루를 발견하는 개가를 올린다. 당시 박만규 관장은 약용과 향료로 쓰이는 개피나무와 녹나무의 야생상태도 살핀 후 한라산의 자연림을 잘 보호하면 국립공원 건설도 가능하다고 밝힌다.

한라산이 국유화되며 그 관리가 제주도로 이관된 것은 1962년 8월인데, 도에 과장급인 임업기좌 1명, 지방임업기사 1명, 임업주사 1명, 임업주사보 1명, 임업기원 1명, 지방임업기원 1

명, 산림주사보 1명, 영림수 1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산림과가 신설된다.

이어 1964년 2월에는 박만규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 제3분과 위원장과 제주대학장, 언론인, 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라산 국립공원화를 위한 좌담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박만규 위원장은 도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해발 1,000m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1964년 11월에는 박만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56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조사단이 내도해 국립공원 구획선을 결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등고선 1,000m, 북쪽으로는 900m 정도로 하고, 서쪽 한수악을 시작으로 장악, 적악, 어승생, 능아오름, 개미등, 관음사를 거쳐 동쪽의 횡단도로 동쪽을 따라 남군 일대의 논고악까지로 정했다. 이 중 관음사와 물장울, 어후오름 등을 잇는 중간 지점의 표고버섯 재배지는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미악산이 상록수가 우거져 있었으나 사라진 사실을 비롯해 성판악 일대에 수종갱신을 갱신한다며 800m고지 위예까지 솔나무 묘목을 심은 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있는 서물나무가 표고자목으로 별채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라산은 1966년 6월 22일 문교부에 의해 해발 700~1,000m 이상과 일부 계곡에 대해 천연보호구역으로 가지정된다. 문교부가 가(假)지정을 서둘러 취한 것은 제주도에 관광도로 개설 계획과 수종갱신 사업을 벌이며 한라산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가지정 직후 제주도를 찾은 이민재 문화재위원은 “제주도 당국의 한라산 관광도로 개설계획을 반대하지 않으나 문화재위원회와 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에는 실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아울러 성안 중인 국립공원법이 제정되면 한라산은 문화재보호법과 국립공원법의 대상이 된다며 이에 비협조적인 제주도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가지정 후 제주도와 일부에서 개발사업과 상충되니 재조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교부가 강행하여 결국 한라산은 1966년 10월 12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는데, 국유림과 민유림을 합쳐 358필지 30,663,600평이 보호구역으로 편입됐다.

한편 1966년 8월에는 제주시가 아흔아홉골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세계식량기구 양곡 600만원어치와 연 38,000명을 투입해 15.4km의 관광도로를 연내에 완공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1967년 4월에 문교부는 한라산에서의 사업허가 신청과 관련 수자원개발 사업만을 인정하고 임상(林相)을 파괴하는 일체의 사업을 금지한다며 표고 재배사업 등의 불가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표고 재배의 경우 한라산 원시림 영구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가능하고, 수종갱신 및 조림사업은 임상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게 되므로, 성판악에서 구상나무 지대간 한라산 접근로 개설은 한라산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 케이블카 시설은 천연보호구역을 유원지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해안동과 서귀포 서호간의 서부횡단도로는 영실 부근의 지정 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1966년에는 성판악을 거쳐 한라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설하려는 제주도에 대해 등산로 개설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이므로 문교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는 한편, 1967년 교통부가 성판악에 신청한 방향표지탑(VOR)에 대해서도 문화재위원을 파견해 점검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시작한 한라산 등반

고등학생들의 한라산 연례 등반

일제강점기 제주농고 학생들의 군사훈련 성격인 한라산 단체등산은 있었지만 해방 후 제주도 내 고등학교 한라산 단체등산은 4·3사건 이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제주농고 학생들의 경우도 해방 이후에는 한라산 등산이 아닌 도(道)일주로 전환했다고 한다.

4·3항쟁이 끝나 한라산이 개방된 이후에는 제주대학교 학도학국단에서 먼저 산행을 시작했지만 이 또한 단발성 행사로 학생들의 본격적인 산행은 1957년 이후의 일이며, 신성여고와 제주여고 학생들이 1957년 한라산을 단체로 등산했다. 이 등산은 연례 등산행사가 되었고, 몇 번은 신성여고와 제주여고 합동으로 등산하기도 하였다. 초창기에는 이기형, 고영일, 김종철, 안흥찬, 김현우, 부종휴, 김규영, 강태석 등이 지도교사로 같이 등산했고, 나중에 김승택, 김택화, 김두현 씨 등이 같이 등산했다.

이어 1960년대 들어 고등학교에도 산악반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학생 산악운동이 일어나는데, 오현고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당시 교사로 재직했던 김승택 주도로 결성된 오현고 산악반은 1968년 창립되는데, 창립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당시 제주산악회 회원이었던 김종철, 안흥찬, 김현우, 김규영 등의 지도 강좌를 받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 산악반(지도교사 김승택)과 생물반(지도교사 박선희) 합동 등반으로 안상욱·허철 등 동료학생들과 함께 한라산을 찾았던 강요배의 기억에 의하면, 시내에서 천왕사까지는 당시 어승생 수원 공사에 투입됐던 군용트럭을 얻어 타고 간 후 산행에 나서 사제비동산에서 텐트를 치고는 탐궤를 거쳐 영실까지 하산한 후 다시 올라 야영했다고 한다. 이어 노루샘과 장구목을 거쳐 서북벽으로 정상에 올랐는데, 서북벽에서는 기초적인 암벽훈련도 받았다고 한다. 이어 흙붉은오름에서 야영한 후 속밭으로 하산했다는 것이다.

이 당시 색다른 등산행사로 1966년 10월 2일에 열린 개천등산행사가 있다. 제주도가 관광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최한 이 행사는 정우식 지사를 비롯해 시·군, 농촌진흥원, 교육청, 탐라합창단, 소년단, 소녀단 등 154명이 참가했는데, 성판악을 출발해 속밭 - 진달래밭 - 구상나무지대 - 시로미밭 - 정상에 이르는 구간에서 열렸다.

제주대 추계 등산대회

제주대(濟州大) 학생회는 1963년 가을에 매년 한라산을 등반할 계획으로 추계(秋季) 등산대회를 개최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등산대회로, 9월 28일에 학교를 출발한 28명의 등반대원은 중문 하원리에서 산행에 나서 영실을 거쳐 백록담에 올랐다.

이어 1964년에는 법문학부와 이농학부에서 학부 학생회 주최로 자체적으로 등반에 나서는데,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된 이농학부의 경우는 60여 명이 등반에 참여한 가운데 영실에서 1박한 후 백록담까지 경기를 가져 1시간 28분 57초에 주최한 4명의 학생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법문학부는 2박 3일 일정으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반에 나섰는데, 용진각에서 1박한 후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당초 2박 예정이던 영실을 그대로 통과하여 하원으로 하산한 후 서귀포의 이농학부 건물에서 야영을 하기도 했다.

1965년에는 산악회 주최로 3박 4일 일정으로 학생과 교수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데, 어승생악을 거쳐 영실에서 1박한 후 백록담을 거쳐 용진각에서 1박하고 붉은오름을 거쳐 성판악에서 다시 1박한 후 학교로 돌아왔다.

1966년에는 학훈단 훈련생과 일반 학생으로 나뉘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학훈단은 하원리로, 학생들은 어승생악과 만세동산을 지나 영실에서 1박한 후 백록담과 물장울을 거쳐 하

산했다.

제주대의 추계(秋季) 등반대회는 이후 매년 열리다가 1972년에는 대학휴교령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는 우여곡절도 겪게 된다. 대학당국에서도 3일간의 등산기간 동안 강의를 중지하고 체육 행사로 전환하는 등 협조 속에 열리는데, 특히 1969년의 경우에는 151명에 달하는 인원이 성 판악을 출발해 표고 밭에서 1박한 후 두 그룹으로 나뉘어 영실과 용진각으로 하산한다.

표고버섯 재배와 국유림 남벌

한라산에서의 표고버섯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라는 표고를 수확하는 수준에서 1905년 일본인에 의해 재배가 이루어지며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는 상당수의 일본인이 한라산에서 표고를 재배했었는데 해방 이후 도민들의 손으로 넘어왔다.

이어 4·3항쟁을 거치며 소강상태를 맞다가 1950년 중반 이후 다시 전성기를 맞는데, 1958년 1월 10일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영림당국에서 집계한 결과 1957년 한 해 사이에 도내 국유림 지대에서 5,900t의 임목이 남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내용별로 보면, 도별이 409t, 표고재배 자목이 4,188t, 월동 신탄용 1,338t 등으로 표고 재배에 의한 국유림 훼손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기간 중 월동용으로 벌채되는 나무도 적지 않았는데, 같은 해 9월 도 산업국이 월동용 연료대책으로 허가한 임야벌채 면적은 국유림 500t, 민유림 500t 등이다.

1958년부터 해외 수출 길에 나선 표고는 1959년의 경우 농림부의 수출목표가 5,000관으로 이 중 90%가 제주산이었다. 이어 1960년도에는 신규로 4,440t에 달하는 자목을 확충, 기존 12,131t 등 16,000여 t의 막대한 자목을 보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1959년 말 벌채된 자목은 무려 31만 그루, 1962년에는 2,800t을 벌목한 데 이어 추가로 6,000t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쟁 입찰을 통해 표고 재배업자에게 불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1968년 제주도표고협동조합이 특수조합으로 창립될 당시 창립조합원은 70명이고 출자금은 500만 원이었다. 이 때 조합은 도내 35개 재배장에서 생산된 연간 68,000kg 중 99%를 일본과 홍콩 등지로 수출할 계획을 세웠다.

1973년 7월에는 국유림 21임반에서 표고자목 벌채허가를 받은 후 4km 떨어진 장소에서 무단으로 744본을 도벌한 표고 재배업자가 구속되고,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도청 산림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무더기 입건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도에서는 한 달 뒤 표고 재배업자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봄부터 자목용으로 벌채허가를 받으면 벌채본수의 5배 이상을 자력으로 식목(植木)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묘목(苗木)은 도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표고재배장 고용원의 신원사항을 기록한 카드를 비치하도록 하고 도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1974년 12월 산림청과 도에서는 한라산 표고 재배시설 31개소 중 국립공원구역에 있는 10개소의 표고 재배시설을 공원구역 밖으로 옮기기로 하는 한편, 2단계로는 벌채량을 줄여 산림훼손을 막고 신규사업허가는 억제할 방침을 정한다. 이어 1975년에는 자목벌채 허가량 이상을 벌채한 표고 재배업자에 대해 국유림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표고 밭을 폐쇄시키며, 1975년 7월에는 경찰에서 국유림지대 표고밭 15개소를 대상으로 도벌남벌현황을 일제 조사해 허가기간을 경과해 무단으로 벌채한 업자를 입건하기도 했다.

1976년 1월에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표고밭 7개소 중 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사업장 임대를 말소하여 폐쇄시키는 한편, 표고 재배로 인한 임상파괴 등을 조사해 온 도는 나머

지 6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옮기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77년 6월에는 표고 밭에서 11세의 미성년자 등을 인부로 고용해 하루 11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키고도 하루 임금을 남자 1,500원에서 1,700원, 여자 1,200원을 지급, 저임금으로 혹사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에 실려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더욱이 비가 새고 흙이 드러난 토굴(土窟)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남녀혼숙까지 시키는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외화획득의 주역이었던 표고는 1979년 8월 수출길이 막히며 사양길에 접어드는데, 1979년 7만을 생산해 7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이었던 목표가 가격하락으로 8월 현재 생산량이 5,118kg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 이를 대변한다. 이어 1990년 3월에는 제주산 표고버섯이 값싼 중국산에 밀려 판로가 막히기 시작했는데, 1989년 11월 이후 수출은커녕 국내소비시장에서도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제주산은 600g에 7,000원으로 중국산의 5,000원보다 높았다.

횡단도로 개설과 한라산 등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보면 제주목과 각 성을 연결하는 도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해안 일주도로와 대정현 - 차귀성(한경면 고산), 제주목 - 명월, 제주목 - 정의현(표선면 성읍리), 제주목 - 별방소(구좌읍 하도리) 등 6개 노선이 표시돼 있다. 초창기 제주의 도로들이다. 하지만 제주를 다녀갔던 김정희나 김상헌, 김정 등의 기록에 의하면 “길이 모두 자갈길로 인마(人馬)조차 다니기 어려웠다.”고 표기하고 있어 도로 상태가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다니던 도로 사정이 이렇진대 한라산 가는 길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분명 길은 있었다. 먼저 김상헌의 기록에 보면 풀 덮인 길이 계곡을 따라 나 있다고 하고, 최익현의 기록에서도 푸나무꾼과 사냥꾼이 왕래한 까닭에 조금 길이 나 있으나 갈수록 험준하고 좁고 위태로웠다고 말한다. 또한 주민들의 방목과 산림의 벌채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졌을 것이란 추정도 하고 있다.

옛 길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전해진다. 애월읍 하귀리의 파군봉에서 시작하여 고성리를 거쳐 살핀오름, 흠붉은오름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는 고려 말 김통정(金通精)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군이 여몽 연합군에 밀려 퇴각하면서 이용했던 도로라는 것이다.

파군봉에서 여몽 연합군에 패한 삼별초군이 한라산으로 퇴각, 흠붉은오름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됐다. 당시에 삼별초군이 주위 전세를 살펴보았던 곳이 살핀오름이고, 흠붉은오름은 격전 끝에 전멸한 삼별초군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주변이 붉게 물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이후 일제시대에 이르러 한라산 일대의 길은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일본군이 결7호 작전이라 하여 제주도를 전초 기지화하면서 20만 대군을 한라산에 주둔시키는데, 이 때 한라산 중턱을 빙 돌아가며 길을 만들게 된다. 한라산에 띠를 두르듯이 만들었다 하여 하치마키(鉢巻 : 머리 띠란 의미) 도로라 하였다. 서쪽으로는 어승생악을 시작으로 지금의 한밭교 다리에서 영실을 거쳐 법정악으로, 동쪽으로는 수악교 상류에서 논고악, 성판악에서 물장울, 관음사, 천왕사로 이어졌다. 지금도 수악교 상류에 가면 어렵פות이 도로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한라산에 군사

도로가 있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어쨌든 하치마키 도로의 일부는 5·16도로와 1100도로 개설 당시 이에 포함되었다.

5·16도로

제주시와 서귀포를 잇는 횡단도로인 5·16도로(국도 11호선)의 시초는 1932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임업(林業) 도로였다. 이 도로가 개설된 후 1943년에 지방 도로로 지정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도로로, 서귀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개발이었다.

1956년 제주시 산천단에서 성판악에 이르는 구간을 시작으로 연차적인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5·16 이후 제주도에 부임한 김영관 도지사에 의해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된다. 김영관 지사는 정부 측에 끈질기게 요청해 정부 사업으로서 5·16도로의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아내었고, 1962년 제주도청 앞에서 진행된 5·16도로 건립 기공 축하 공연이 전국에 실황 중계될 정도였다. 당시 군사 정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보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969년 10월 1일 공사가 70%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부랴부랴 개통식을 가졌다. 그 이유는 5일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거용이었다.

5·16도로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5·16 쿠데타를 기념하는 상징물이다. 이 도로에는 제주시 아라동 춘강장애인복지회관 입구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자연석에 새긴 표지석이 서 있고, 성판악 입구에는 김영관 지사를 칭송하는 공적비가 있다.

어쨌든 5·16도로의 개통으로 제주시와 서귀포는 5시간 거리에서 1시간 거리로 그 생활권이 단축된다. 1972년 4월부터 1982년 말까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도 했다. 1982년 기준으로 당시 통행 요금은 대형 버스 400원, 중형 버스 250원, 소형 승용차 200원, 화물 자동차 150원, 소형 화물차 100원 등이었다.

1100도로

한라산 서쪽 산허리를 횡단하는 1100도로(국선 99호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을 통과하는 국도로 그 명성이 드높다. 1970년대 이후 한라산을 오르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거쳐 간 도로로 영실 코스와 어리목 코스가 이 도로에서 시작한다. 해발고도가 높고 경사가 많아 작업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 6년 만인 1973년 완공하게 되는데, 착공되기 전인 1969년에 대통령령으로 국도로 지정된다. 1974년에는 유료 도로로 지정돼 이 곳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1100도로가 개설되자 한라산 등반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크게 각광을 받았다. 백록담에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인 영실코스과 어리목코스에 이르는 도로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197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연초에 순시차 제주도를 찾았다가 1100도로를 이용했는데, 도로변 설경(雪景)에 감탄해 다섯 차례나 차에서 내려 직접 사진을 촬영했다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겨울철에는 신비경을 자아내는 도로이다.

적설기 전국대학생등산대회

제주대학이 주최하고 제주대학총학생회가 주관한 제1회 적설기 한라산등반대회가 1969년 시작되는데, 후원으로 문교부를 비롯해 중앙일보, 대한산악연맹, 제주도, 제주산악회 제주지역사령부와 도내 신문방송 등 언론사가 참여했다.

서울법대를 비롯해 경희대·홍익대·명지대·우석대·동아대·전북농대·제주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1969년 1월 11일부터 7일간 진행된 1회 대회에서 국회의장상인 종합우승은 서울법대가, 리더상(문교부장관상)에는 제주대, 감투상에 경희대, 장비상에 홍익대 등이 차지했다. 박철암 경희학사산악회장이 위원장을, 김종철 제주산악안전대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이외에 안흥찬·김현우·김승택·김형희 등이 심판으로 참여했다.

관덕정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관음사의 영주장에서 1박한 후 등반운행을 개시, 박씨 표고밭·용진각을 거쳐 정상, 윗세오름·영실의 입승정을 거쳐 서귀포의 농학부로 하산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당초 계획보다 하루 일찍 하산했다.

2회 대회는 1970년 1월 5일부터 5일간 관음사 - 표고밭 - 동릉 - 정상 - 용진각 - 탐라계곡 - 표고밭 - 관음사 코스에서 열렸는데, 당초에는 박씨 표고 밭에서 1박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기상악화로 코스가 변경된 것이다. 이 때 표고 밭을 거쳐 왕관릉에 이르는 코스가 이용됐는데, 당시 대학신문에는 이 코스를 '학사(學士)코스'로 명명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고려대·중앙대·명지대·우석대·춘천농대·제주대 등 6개 참가팀 중에서 고려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3회 대회는 1971년 1월 11일부터 5일간 어승생~어리목산장~사제비동산~만세동산~윗세오름~정상~흙붉은오름 - 속밭 - 물장울 - 견월교 - 산천단 코스에서 열렸고, 종합우승은 홍익대가 차지했다. 특히 3회 대회에는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 제주대, 유네스코학생회(산바라기), 서귀포산악부 외에 일본의 근기대(近畿大)가 참가하며 국제적인 대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심판으로는 박철암 위원장을 비롯해 안흥찬 부위원장, 부종휴·김철원·김현우·김승택 등이 참여했다.

4회 대회는 1972년 1월 18일부터 4일간 어리목산장 - 장구목 - 정상 - 탐라계곡 - 관음사코스에서 열렸고, 명지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어리목까지는 트럭으로 이동했다. 1973년에는 10월유신에 따른 대학휴교령으로 열리지 못하고 1년 후인 1974년 5회 대회가 열린다.

한라백설제로 이름이 바뀐 6회 대회는 1975년 2월 9일부터 3일간 어리목산장 - 윗세오름 - 정상 - 영실 - 서귀포 농학부코스에서 열렸는데, 20개 대학에서 135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주최 측과 참가팀 사이에 편승요금 관계로 말썽이 생겨 제주대학팀만 폐회식에 참여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 다음해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이후 유산됐다.

6 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한라산국립공원(漢拏山國立公園)은 1970년 3월 16일 지정됐다. 지정에 앞서 1969년 9월 건설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쳤는데, 공원구역은 동쪽이 5·16도로 외곽 500m고지 이상, 서쪽은 제2횡단도로 1100m고지에서 서귀포 돈내코 상류를 거쳐 수악교간, 북쪽은 어승생에서 관음사, 물장울을 거쳐 5·16도로 600m고지 이상으로 총 133km가 해당된다.

이에 앞서 한라산은 1966년 6월 22일에 문교부에 의해 해발 700~1,000m 이상과 일부 계곡에 대해 천연보호구역으로 가지정된다. 당시 문교부가 가(假)지정을 서둘러 취한 것은 제주도에 관광도로 개설계획과 수종갱신 사업을 벌이며 한라산을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가지정 직후 제주도를 찾은 이민재 문화재위원은 “제주도 당국의 한라산 관광도로 개설계획을 반대하지 않으나 문화재위원회와 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에는 실력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성안 중인 국립공원법이 제정되면 한라산은 문화재보호법과 국립공원법의 대상이 된다며 이에 비협조적인 제주도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가지정 후 제주도와 일부에서 개발사업과 상충되니 재조명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교부가 강행하여 결국 한라산은 1966년 10월 12일자로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되는데, 국유림과 민유림을 합쳐 358필지 30,663,600평이 보호구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1964년 2월에는 박만규 문화재보호관리위원회 제3분과 위원장과 제주대학장·언론인·도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화를 위한 좌담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박만규 위원장은 도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해발 1,000m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1964년 11월에는 박만규 위원장을 단장으로 56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조사단이 내도해 국립공원 구획선을 결정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등고선 1,000m, 북쪽으로는 900m 정도로 하고, 서쪽 한수악을 시작으로 장악·적악·어승생·능아오름·개미등, 관음사를 거쳐 동쪽의 횡단도로 동쪽을 따라 남군 일대의 논고약까지로 정했다. 이 중 관음사와 물장울, 어후오름 등을 잇는 중간지점의 표고버섯 재배지는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966년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1970년 6월 재확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공부 문화재관리위원회는 당초의 구역이 사실상 보호가치가 있음에도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조사에 들어가 아흔아홉골과 영실부근 등 천연림지대를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1970년 국립공원 지정 후 10월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허가지침서가 건설부에서 도로 내려오는데, 허가지침서에 의하면 ① 집단시설구역 예정지역 내의 공작물 신축 및 개축과 증축은 지구의 용도계획 수립 후 허가하되 계획수립 이전에 허가 시는 무보상 철거 등을 조건부로 허가한다. ② 공원지구 내의 수목채취는 산림사업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③ 자연보존지구 내에서 식물 및 곤충의 채집은 종류별로 그 채집량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국립공원 내에서 개간 또는 형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禁)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971년 2월에는 내무부에서 670만 원을 배정해 한라산에 산장 3동을 짓도록 제주도에 지시함에 따라 도는 철쭉밭을 비롯해 왕관릉, 사제비동산 등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세우기 위해 산악회 등 관계자들과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내무부는 100명 수용규모의

A동과 50명 수용규모의 B동, 20명 수용규모의 C동 등으로 정상에서 가까운 곳이나 등산코스에서 1박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등반자들이 며칠씩 묵으며 즐길 수 있는 곳에 세우라고 지시했다.

1971년 10월에는 건설부의 위촉을 받은 '가야기술단'이 20여 일에 걸쳐 국립공원에 대한 조사 측량을 벌여 총 3,000만 평의 대상지구 중 60만평은 집단시설지구로, 20만 평은 관광도로 부지로, 나머지는 자연보호지구와 시설확장 제한지구로 설정한 국립공원계획을 설정하기도 했다.

한편 1971년 9월 어리목 광장에 580만 원을 투입해 신축한 2층 슬래브 건물의 산장이 완공되는데, 연건평 60평으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같은 시기에 이 곳에서 1km 떨어진 등산로에도 15평 규모의 대피소가 완공돼 이로써 한라산에는 산장 1동과 대피소 12개소가 마련된다.

1972년 6월에는 한라산 높이에 대한 이견이 일어 국립건설연구소에서 재 측량하는 에피소드가 발생하는데, 한 달 전 기압고도계로 높이를 잰 결과 1916년 측량해 공인된 1,950m보다 70m 더 높은 2,020m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73년 1월에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준공되고, 같은 해 9월 1일 제주도 조례에 의해 관리사무소가 개소한다. 한라산 중턱 견월악에 세워진 이 사무소는 40평 단층 슬래브 건물로 사무실과 휴게실, 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당시 관리사무소 직제는 사무관 급의 소장과 행정직 3명으로 구성됐다.

1974년 4월부터는 건설부 방침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가 징수되는데, 어른 50원, 학생 및 군경 30원, 어린이 20원, 단체는 10원으로 책정됐다. 도에서는 성판악, 관음사, 돈내코, 어승생, 영실 등 5개소에 요금 징수를 위한 징수원을 파견했다.

1974년 국립공원 등산로와 대피소 시설사업을 펼쳤다. 9,700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성판악-백록담 9.6km를 비롯해 어승생 - 백록담 6.1km, 관음사 - 백록담 9.3km, 영실 - 백록담 6.8km 등 등산로 정비에 7,100만원이 투입되고 용진각과 윗세오름, 백록담에 각각 1동씩 대피소를, 영실지구에는 관리사무소 1동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1974년 8월에는 도에서 국립공원개발계획으로 민간투자를 권장, 신청자를 받았는데, 첫 희망자로 어승생 지구에 50평 규모의 산장과 1,000평 규모의 휴게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서울 거주한 모씨가 신청했다. 국립공원 민자유치 대상지역은 어승생 지구 외에 영실 16만㎡, 성판악지구 5,000㎡, 관음사지구 2만 2,000㎡로 야영장과 산장, 휴게소 등을 설치하고 특히 관음사지구에는 유스호스텔도 들어설 계획이었다.

1975년 2월에는 도순천 상류지역과 시오름 일대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1979년 12월에는 중상기상대가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981년까지 1900m고지 일대에 설치하려던 기상레이더가 도내 자연보호 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1987년 7월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이 이양되지만 한라산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리하게 해달라는 건의를 건설부가 받아들여 제주도가 관리하게 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한라산과 경주가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단의 경우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과학적인 자원관리 및 교육 등을 담당할 인력이 구성돼 있으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경우 조직체계가 미약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1989년 9월 윗세오름대피소에 전화가 가설돼 화제가 됐는데, 첫 기념통화로 김계홍 소장과 설악산 대청봉관리소장과의 통화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 1995년에는 관음사지구 야영장이 개장했고, 2001년에는 제주도훈령에 의해 한라산연구소가 개소했다. 또 2003년 제주도규칙으

로 한라산연구소연구실이 신설됐다. 한편 2005년에는 윗세오름대피소에 광케이블이 연결되며 인터넷 사용도 가능해질 정도로 현대화됐다.

한편 이 기간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종합조사로는 1974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자원조사를 시작으로 1985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1994년 『한국의 영산 한라산』, 2002년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등이 있고, 이후는 한라산연구소에 의해 2002년부터 매년 조사연구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이 밖에 1992년 한라산 등산로 훼손지 복구설계를 시작으로 1995년 한라산국립공원 장구목 훼손지 복구공사설계 및 관음사 등산로 복구공사설계, 1996년 한라산정상보호계획, 1998년 한라산국립공원 내 우량소나무 보호대책, 2000년 한라산 보호 관리방안 및 자연친화적 삭도설치 타당성 연구,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 계획수립, 2001년 한라산백록담 담수화 및 분화구 내 복구방안, 2002년 한라산아고산대 보호 관리방안, 2003년 한라산 구상나무의 자원적 가치제고, 2004년 희귀산림유전자원 시로미의 보존 및 자원화, 한라산과 부종휴, 2005년 한라산 야생동물의 현황과 보호관리방안 등이 다양한 분야의 학술용역, 심포지엄 자료집 등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라산 동·식물에 대한 종합조사의 부재를 비롯해 상시조사체계 미흡, 조사기간이 단기간, 정밀조사의 부재 및 조사방법의 단순성, 조사 자료의 관리미흡 및 정보체계 활용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이블카 논쟁 40년

1965년 6월 1일자에 『제주신문』에는 깜작 놀랄 만한 기사가 게재된다. 성판악에서 백록담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5월 29일과 30일 등산로 개설을 앞두고 성판악에서 백록담에 이르는 등산로 답사를 끝냈는데, 성판악에서 사라악 부근까지 8km에 대해서는 차도를 내고 나머지 6km는 3m 폭의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등산로 개설과 관련 당시 총무국장인 김승우는 정상까지 차도를 개설하려는 계획은 예산문제 등으로 심중히 검토할 점이 많으나 관음사코스의 등산로 입구 - 탐라계곡 - 왕관릉 - 백록담에 이르는 코스보다 보행거리가 짧고 경사가 완만해 등산하기에 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는 1967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포함하여 제주도 개발을 위한 일곱 가지 사업을 문교부에 허가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67년 4월 21일에 제주도에 통보하기를 케이블카에 대해 '한라산천연보호구를 유원지화(遊園地化)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정 구역 내에서의 케이블카 시설은 불가함'이라 통보함으로써 한라산 케이블카는 시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과를 맺는다.

이어 1968년 7월 18일에 당시 구자춘 제주도지사가 "침체현상인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일반관광을 산악관광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그 전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한라산에 케이블카 시설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고, 서울에 있는 삼우상운이 성판악을 지점으로 사라악~왕관릉~백록담~영실을 잇는 10.6k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한다. 주요 내용은 3선 순환방식으로 1분간에 150m를 갈 수 있는 케이블카를 8월 17일에 기공해 1969년 10월 준공하겠다는 것인데, 1인당 탑승료는 250원으로 하루 5,000명을 수송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12월 11일에 삼우관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교통부에 제출했는데, 삼우관광은 2억 원을 투자해 6개월 내 착공, 1년 6개월 내로 준공하겠다고 성판악을

기점으로 사라악 - 왕관릉 - 백록담 - 오백나한에 이르는 9.02km로 소요부지는 64,061평, 1회에 60명씩, 1시간에 3회 운항, 1일 10시간 운항으로 1일 1,800명을 수송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통부는 케이블카 시설허가 요청을 한 삼우관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며 12월 22일에 허가를 내준다. ① 3개월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부지를 확보할 것, ② 사업개시 승인받을 때까지 사업양도금지, ③ 면허일로부터 4개월 이내(1969년 3월까지) 기술검토를 끝내야 하고, ④ 안전 분야에서 제주 또는 서귀포 측후소와 협조하여 폭풍 및 지진 등 입지조건을 세밀히 검토, 기후조건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관상대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것, ⑤ 전원은 한전 배전에 의존할 것인지, 자가 발전에 의존할 것인지 결정, ⑥ 운전구간의 유선통신 방법 외에 정류장 또는 운전실과의 무선통신을 갖출 것, ⑦ 철탑에는 피뢰침, 운전실에는 풍속계, 각 정류지에는 급유시설과 대피구조시설을 갖추고 가급적 고도는 낮고 경사는 적게 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인가했던 것이다.

한편 삼우기업은 성판악에 500평의 부대 건물과 60평의 유기장, 사라악에 200평의 부대 건물과 휴게소, 왕관릉에 150평의 휴게소, 백록담에 1,000평의 호텔, 오백나한에 300평의 유기장을 만들겠다고 그 소요면적은 64,061평으로 국유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한라산 케이블카 시설 구상 중'과 삼우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명시한 '케이블카 인가신청'이 같은 날 신문에 발표됐다.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설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에 허가요청을 했는데 1968년 11월 26일에 인가되었고, 삼우기업에서는 1개월가량 기술측량, 늦어도 1970년 가을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삼우기업의 케이블카 면허는 1968년 11월 26일 교통부로부터 받았으니 하루 만에 인가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백록담 등에 유흥장 호텔은 설치할 수 없다며 소요 부지를 6,000평으로 조성할 것을 지시한다. 이어 동업자인 삼우상사가 "제주도가 자기들과 삼우관광이 케이블카 신청서를 교통부에 제출하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구자춘 지사가 경질되며 1년 만에 유아무야로 끝나고 만다.

이 과정에서 교통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화재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총사퇴를 내걸고 허가철회를 교통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한라산은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온대(溫帶), 난대(暖帶), 한대(寒帶)식물이 분포하는 곳으로 1967년에 내한했던 세계자연보존위원회 위원장인 미국의 룰 박사도 "한라산의 자연은 세계자연학계의 가장 귀중한 보고"라 지적했고, 1968년도의 『세계자연보호학회지』에도 "세계의 자연연구 공원으로서는 절대로 현상을 파괴 변경해서는 안 될 세계적인 자연학계의 보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이후 1973년 당시 청와대 관광개발단이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영구용역을 통해 영실 하부에서 상부까지 총연장 1.8km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하는데, 이어 1975년 10월에는 서울소재 도진건설이 한라산 영실지구에 5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와 산장, 휴게소, 오락장 등을 시설하겠다고 건설부에 허가 신청했다. 하지만 관음사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화재보호법상 저촉지구로 사적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도에서는 종합관광개발계획으로 산악집단지설을 위하여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1977년 3월 3일에는 영실 병풍바위에서 오백나한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한라산건설주식회사의 현상변경허가가 문공부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1976년 12월 남제주군은 케이블카 설치허가 필요성에 대한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문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1977년 5월 3일 제주도는 한라산 영실지구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문공부에 냈다. 케이블카 시설계획은 영실빙풍바위 옆으로 위까지 1,070m 거리에 시작과 종점 철탑 외에 보조탑 4개 등 6개의 탑이 시설될 예정인데, 이 시설에 필요한 땅은 천연보호구역 안 1,066평이다. 이에 대해 문공부는 5월 18일에 승인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건설부장관이 국회답변과정에서 한라산 영실지구 케이블카 시설계획은 취소하겠으며 한라산 중턱에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을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혀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1977년 12월 6일에는 한라산에 스키장을 개발할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위해 1,600m고지 윗세오름 일대에 간이기상대를 설치하여 기상관측을 한다는 계획이 공개된다. 윗세오름 일대는 일제강점기부터 스키장 개발론이 나오던 지역으로 제주도는 연초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건설부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2년 4월 5일에는 제주관광개발주식회사가 영실 - 서북벽간 1,300m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제주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1968년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1년 내 착공치 않아 취소되었다. 그리고 1986년 9월에는 건설부에서 늘어나는 국립공원 탐방객을 수용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한라산과 북한산, 지리산, 가야산, 내장산, 속리산, 계룡산 등 7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1987년 3월에 제주도는 특정지역개발계획에 제시된 케이블카 설치 용역결과를 발표했는데, 정우엔지니어링 측은 용역보고서에서 1100고지 - 볼래오름구간 2.1km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집중된 등산코스의 분산을 유도하고 백록담 등반 일변도의 탐방행위를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9년 2월에 한라산스키개발공사가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한라산 어승생에서 윗세오름 사이에 곤돌라리프트 자동순환식 시설을 하고 시발역과 종착역 시설을 갖춘 스키장을 개설하겠다는 허가신청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1994년 5월에 제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초청간담회에서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1998년 제주도가 한라산 보호관리차원에서 '한라산 삭도설치 타당성 조사방침'을 밝히고 추진에 나서면서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역사회의 최대이슈로 거론되는데, 1997년 8월 '한라산 정상보호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도민의 의사일치를 전제로 한 합의형성계획으로 죽은두레왓 로프웨이(rope-way) 구상, 즉 어승생악 북서쪽 목초지(해발 750m)에서 죽은두레왓(해발 1,300m) 3.2km를 제시한다. 이 노선은 저지대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관리사무소와 가까워 서비스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양호하고 한라산 정상과 제주도 해안에 대한 조망이 좋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 이 구상은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로프웨이가 설치 가능한 17곳(① 성판악휴게소 - 어후오름, ② 성판악휴게소 - 성널오름, ③ 성판악휴게소 - 성널오름 - 사라오름, ④ 돈내코 방향 - 아랫방아오름, ⑤ 돈내코 방향 - 윗방아오름, ⑥ 영실관리사무소 - 볼래오름, ⑦ 1100고지 - 볼래오름, ⑧ 1100고지 - 이스령오름, ⑨ 영실관리사무소 - 윗세오름, 어리목과 1100고지 중간지점 - 망채오름, 어리목 - 어승생악, 어리목 - 사제비동산, 어리목 - 죽은두레왓, 어리목 - 사제비동산 - 촛대봉, 관음사등산로 적십자대피소 - 큰두레왓, 적십자대피소 - 삼각봉, 적십자대피소 - 왕관릉)을 보존·보호, 이용편익, 경관체험 측면에서 평가한 후 5개의 노선(① 성판악 - 어후오름, ② 어승생악 북서쪽 목초지 - 죽은두레왓, ③ 어승생악 북서쪽 목초지 - 어승생악, ④ 1100고지 - 볼래오름, ⑤ 영실 - 볼래오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하여 제시한 노선이다. 이 노선은 저지대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고 관리사무소와 가까워 서비스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제주시에 접근성이 양호하고 한라산 정상과 제주도 해안에 대한 조망이 좋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로프웨이가 설치되면 ① 지체부자유자,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직접등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균등한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② 한라산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람들의 답압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③ 공중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④ 현실적으로 시급한 훼손지 복구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수익을 지역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로프웨이 설치 기간에 지주를 설치하는 지점에 자연이 훼손되고, 설치 후 운행기간에 경관상의 악(惡)영향이 예상되며, 한라산의 기상을 고려한 가능한 운행일수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불확실하고, 계획 및 공사 등에 많은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단점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로프웨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죽은두레왓 노선, 길이,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경관영향평가를 실행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지주 설치시에 예상되는 자연훼손 저감방안이 마련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와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타당성조사시에는 구체적인 탐방객 분산효과 등 한라산 자연훼손 감소효과를 수치적으로 밝히고, 기상을 고려한 가능운행일수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에 Skyrail PTY Ltd.(책임자 : Ken Chapman), (주)제일엔지니어링(책임자 : 염병대)과 (주)공간정보계획시스템(책임자 : 여상균)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제주도에 제출한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삭도설치가 ① 기존 등산로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 ② 국립공원 내 방문객들로 야기되는 영향을 감소, ③ 자연생태, 문화적 가치, 공원보호관리 문제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몽, ④ 공원보호관리계획이나 보수유지를 위한 기금조성의 마련 등 기존 공원보호관리에 공헌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들로 인하여 환경보호측면의 케이블카 설치, 운영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함께 자연환경, 생물학적 고찰, 사회·경제현황 및 삭도경로와 노선대안 검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 ① 한라산 자연친화적 환경 보전형 삭도설치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중·장기적 보호관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국립공원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위해서 한라산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형 삭도설치는 다른 보호관리 방안과 연계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③ 자연친화적 환경 보전형 삭도설치는 시각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고 개발될 수 있다. ④ 환경 보전형 삭도설치에 있어서 시공단계에 가장 많은 잠재 영향이 예상되나 이는 단기적인 것이며 복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 자연친화적인 환경 보전형 삭도 설치의 지역 환경에 관한 보호관리 의식을 높이고 등산객들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관음사 경로지역, 어리목 경로지역, 영실 경로지역 등 세 가지의 삭도설치 대안 경로를 연구 분석한 결과 선작지왓노선(13임반 표 고장입구, 즉 영실매표소에서 600m 들어간 지점에서 영실과 효돈천 상류 사이를 거쳐 윗세오름 중봉 남측 경사지에 이르는 구간)이 환경적으로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며, 가장 많은 사회적, 재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케이블카 설치의 산악이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와 경제나 관광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찬성이 논쟁화되면서 제주도 사회에 큰 논쟁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찬반 논쟁 속에 2000년 12월 3일에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한라산케이블카반대 제주도민연대'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도민연대에는 '제주도산악연맹, 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서귀포문화사업회, 오름오름, 예래환경연구회, 자연보전협회제주도지부, 전국교직원노조 제주도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재경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문화포럼오름기행팀, 제주4·3연구소,

제주생태사진연구회, 제주여민회, 제주자생식물동호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한라산지킴이, 한라산케이블카반대 제주범불교대책위원회' 등이 참가하여 제주도제 실시 후 가장 많은 시민단체 연대가 아니었나 싶다.

이처럼 논란을 빚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2003년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안을 마련하면서 불가능 방향으로 급선회됐다. 환경부가 당시 보전지역 1등급, 아고산(亞高山) 지역, 멸종동물 보호서식지, 법적 보호지구 등을 케이블카 설치 불가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아고산 지역이었던 한라산 영실 부근 케이블카 설치의 어려움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가 지난해 말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케이블카 설치의 무산될 것으로 확실시됐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삭도 설치 타당성조사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잠재돼 왔다. 결국 제주도는 2005년 6월 14일에 태스크 포스 팀의 의견을 수용, 논의 종결을 선언하면서 케이블카 설치가 거론된 지 40여 년 만에 논쟁도 마침표를 찍으면서 전면 백지화 선언을 하였다.

훼손되는 한라산

희귀식물의 도채

한라산은 희귀식물의 보고로 일제강점기부터 구상나무와 주목, 눈향나무, 철쭉 등이 관광용으로 마구 도채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도채는 계속된다.

한라산이 개방된 195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도채가 자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나 1966년 이전에는 거의 적발이 불가능했다. 물론 1966년 이후의 적발을 보더라도 상당수가 육지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의 적발은 드물었다.

도채범의 적발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급된 게 1966년 5월로 한라산에서 관광용 철쭉나무 56그루를 불법으로 캐 후 서귀포 - 부산 정기화물선을 이용해 반출하려던 도채범이 검거된 이후 같은 해 도채범이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에서 소나무 20여 그루를 벌채해 소형선박으로 반출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1971년 3월에는 봉개동 지역 국유림에서 주목 231그루와 동백, 비자나무 등을 캐내 호텔 등에 관광수로 판 도채범이 구속되고, 4월에는 한라산 중턱에서 인부까지 동원해 주목을 도채한 후 서귀포 - 부산간 정기화객선을 통해 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인부 50명을 동원해 15~20cm 가량으로 자른 주목가지는 100만 본에 달했는데 삼목용으로 도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1971년 9월에 5~8년생 문주란 20그루를 서귀포 항을 통해 밀 반출하려던 관광객이 적발됐다.

한편 이 과정에서 1972년 7월에는 서귀포 앞 섬섬에서 넓고사리(?)를 도채한 범인이 섬 관리인의 끈질긴 추적 끝에 13개월 만에 검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섬섬 관리인인 강태현은 섬섬에서 넓고사리를 도채한 범인을 잡기 위해 관광객으로 가장해 꽃집에 접근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는데, 이 때 이 가정집에서 키우는 넓고사리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청 문화공보실 문화재 순시원이 직무유기로 덩달아 입건되는 어이없는 일도 생긴다.

이 시기 한라산 고지대뿐만 아니라 도 전역에서 희귀식물이 수난을 당하는데, 1964년 3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토끼섬에서 문주란 500여 본이 도채 되기도 했고, 1969년에는 비자림(榲子林)에서 자생하던 풍란이 마구 도채 되며 멸종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1971년 5월에는 성산 일출봉에서 밧줄을 타고 절벽 위의 풍란을 캐던 초등학교 교사가 밧줄이 구르면서 바다로 떨어져 사망하는 어이없는 사고도 발생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설치 이후에는 관계직원에 의한 단속이 강화돼 적발되는 건수도 그만큼 증가한다. 1974년 7월 한라산 개미목 일대에서 10년생 주목 120그루를 도채한 일당이 구속되고 이틀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산 조경업자가 장물취득혐의로 구속됐다. 이 시기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보호 순찰강화를 위해 노형동과 회수, 법호촌 등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한편 두 횡단도로 통제이트와 연계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1974년 9월에는 허위공문서까지 소지하고 한라산에서 인부를 고용해 흑오미자 넝쿨을 채취한 대담한 도채범 일당 6명이 구속된다. 이들은 한국의약품수출협회가 전국 시·군에 발송한 '수출생약 채취협조요청' 공문서 사본과 약초채취권한도 없는 북군 산림조합장 명의의 약초채취 위임장을 갖고 다니며 인부를 동원, 어리목 부근에서 흑오미자를 채취하다 도청 산림과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이다.

1975년 1월에는 한라산 1,500고지에서 인부 4명을 고용해 40~100년생 눈향나무 180그루를 도채한 일당이 검거됐는데 이들은 도채한 눈향나무를 900고지에 숨겼다가 육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것이다. 이어 1975년 5월에는 왕관릉 일대 구상나무가 무더기로 잘려나가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관음사 부근 국유림에서 4~5년생 주목 2만여 그루를 도채해 마대에 담고 화물선으로 밀반출하려던 도채꾼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1976년 6월에는 애월읍 납읍리 금산공원의 80~100년생 후박나무와 자귀나무 등이 한약재로 쓰기 위해 꺾질을 벗겨 가는 일도 있었고, 1977년 6월 한라산 삼각봉 위쪽에서 등산객을 가장한 남자 1명이 눈향나무 10그루를 도채해 포장하다 다른 등반객들에게 들켜 도망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79년 5월에는 한라산 1,600고지 큰두레왓 일대 구상나무 숲에서 40~50년생 주목이 도채 직전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장구목과 왕관릉 일대 구상나무와 주목 도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5월에는 백록담 서북벽과 정상 부근에 서식하는 희귀식물 돌매화나무(암매) 상당량이 도채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한라산 이외의 지역으로는 서귀포 앞 썰섬이 도채꾼들의 주요 표적이 돼 왔다. 1979년에는 출입이 금지된 썰섬에 낚시꾼들이 마구 드나들며 화초를 채취하거나 암석을 파괴하는 등 훼손이 문제가 되었다. 1980년 5월에는 한국에 단 한 그루밖에 없던 썰섬 100년생 홍굴나무가 도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후 썰섬에 대한 학술조사과정에서 홍굴나무 4그루가 추가로 발견돼 그나마 위안을 삼기도 했다. 썰섬에 대한 도채는 계속돼 1981년 4월에 썰섬에만 자생하는 파초일엽이 멸종된 이후 제주도와 한국자연보존협회 등에서 비밀리에 복원했는데, 이 또한 도채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란도 도채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 1981년 8월에는 한란보호와 단속이 강화됐다. 화원 및 개인소유 한란 전체를 신고토록 하고 자연 증식분은 연말에, 판매 및 구입분은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그 와중에 1981년 9월에 한란을 전문적으로 도채하던 일가족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약 9개월 동안 도채한 한란은 450여 본에 달했다. 이어 1984년 3월에는 감귤상자에 한란을 넣고 서울로 반출, 남대문시장 등에서 판매한 사범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상자 안쪽에 한란을 넣고 감귤로 위장하면 공항의 X-레이(ray)에 잡히지 않는다는 방법을 이용했다. 한편

당국에서는 한란의 도채를 막기 위해 1985년 1월에 한란을 인공번식하기로 하는 한편 같은 해 4월을 미등록 한란에 대한 등록기간으로 정했는데 그 이전까지 등록된 한란은 160가구에 25,208축에 달했다. 한란은 1987년 4월에 농촌진흥원에서 풍란 인공배양에 성공, 비자림에 복원하기 시작한 이후 1987년 5월에는 인공 배양된 제주한란에 대해 1988년 하반기부터 도외반출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배양난이 시중에 나오며 도채가 한결 수그러들었다.

구상나무의 경우는 당초 조경용으로 밀반출되다가 나중에는 등산객의 땀감용으로 이용되며 급속한 훼손을 가져왔다. 1982년 4월 20일자 신문에는 '구상나무 고사목 황폐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는데, 등산 붐이 일기 시작하며 고사목을 땀감으로 마구 잘라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이래 당국이 한라산에서 불을 때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피소의 벽난로도 철거했으나 일부 지각없는 등산객들이 단속을 피해 숲속에서 캠프파이어까지 하며 훼손시키고 있고, 일부는 사진촬영을 위해 고사목 위에 올라가 쓰러뜨리고 있다고 쓰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도채행위는 계속돼 1981년 2월 한라산에서 주목 7,500여 그루를 도채하여 도외로 반출하려던 일당 3명이 적발되고, 1981년 9월 한라산에서 눈향나무를 도채해 의류나 책 등으로 위장, 부산 등지의 화원으로 밀반출하려던 도채범이 서울시경에 적발됐기도 했다. 또 1982년 8월에는 1,500고지 장구목에서 구상나무 등을 도채하던 일당 3명이 국립공원 순시요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1983년 6월에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의 문주란 2,000여 그루가 도채됐다. 문주란은 당시 육지부에서 한 그루당 2,000~3,000원에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7월에는 안덕계곡의 춘란과 석곡 등이 마구 도채되기도 하였다. 1985년 5월 탐괘 부근에서 60~70년생 눈향나무를 캐다가 적발되자 달아났던 원정 도채범이 경찰에 검거됐는데, 이들은 경남에서 트럭까지 동원하여 원정도채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1985년 7월에는 한라산 국유림에서 희귀수목을 도채했던 10여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는데, 이들은 서울의 화훼업자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구상나무도 대량으로 증식되며 도채가 줄어들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파괴되는 생태계

1963년 4월에는 서귀포에서 20~30년생 삼나무 등 603,000본을 도벌(盜伐)한 대규모 도벌현장이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피해면적이 221정보에 달하며 도벌촌까지 형성될 정도였는데, 도벌된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118동, 무허가 제재소 20개소가 적발됐다. 결국 이 사건으로 11명이 산림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111명이 불구속 조사를 받는 한편, 남제주군 산림계장이 직무유기로 구속되고 제주도청 계장은 인책 사표, 남제주군수 이하 6명의 공무원은 입건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한라산 북쪽 1,200고지에서 홍송(紅松) 등을 도벌하던 도채꾼이 경찰에 구속되고, 6월에는 한라산 국유림에서 51명이 검거되는 등 도채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8월에는 국유림 벌채 허가를 받은 후 벗나무, 단풍나무 등 허가받지 않은 나무까지 잘랐던 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1966년에는 한라산 국유림에서 나무를 벌채해 대팻집을 만들었던 도채범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남원 신례리 지경에서 민유림 수종갱신사업으로 벌채허가를 받은 후 한라산 국유림에서 30년생 200여 본을 무단으로 벌채한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1970년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에서 불사를 하며 천연림을 훼손해 당국에 적발

되기도 했다. 아흔아홉골에 위치한 모 사찰이 법당 이전을 위해 불도저까지 동원하여 천연사연림 100평을 밀어제치고 3m 너비로 50m 가량의 도로를 개설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공사 중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당시 이 사찰에는 서너 채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 이어 1972년 9월에는 선흥리에서 후박나무 200여 그루를 도벌한 일당이 구속되기도 한다.

한편 1973년 3월 27일에 열안지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목야지 500정보와 소나무림 5정보가 소실됐고, 노형동 대우리오름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목야지 1,500평을 태웠다. 1975년 7월에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내에서 무등록종교단체들이 멋대로 기도처를 조성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기도처는 영실지구에 4동을 비롯해 아흔아홉골과 Y계곡에 각각 1동이 들어서 있었다. 이들은 제단을 만들어 기도처로 사용하고, 사찰에는 4~5명의 신도가 생활하며 주변 나무를 꺾어 땀감으로 사용하는 등 천연자원을 훼손시켰다.

1976년 6월 한라산 1,700고지 윗세오름 일대에 산장이 지어진 이후 등산객들이 땀감으로 구상나무를 마구 잘라 훼손되기도 하였다. 확인 결과 수령 100년생으로 추정되는 밑둘레 60cm 고체목 10여 그루와 구상나무 고사목 30여 그루가 잘려나갔고, 장구목에는 모 종교단체가 제단을 설치하며 주목 등을 마구 잘랐다.

한편 한라산 주변 계곡의 훼손도 문제가 됐다. 1976년 8월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의 여러 계곡이 도로포장용 토석을 채취한 후 방치해 큰 비만 오면 계곡주변에 사태가 일어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자연이 파괴됐다. 특히, 한밭교에서 어리목에 이르는 구간 1km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1978년 4월에는 애월 상귀공동목장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임목지 100ha에 30만여 그루, 목야지 350ha와 초가 2채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이 불은 강풍에 의해 무수천을 건너 제주시 관내까지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냈다. 1978년 5월에는 한라산 540고지 수악교 동남쪽 계곡에 자생하는 반들이나무(?) 1000여 그루가 한약재로 이용하기 위해 꺾질이 벗겨져 죽는 일이 있었고, 같은 해 8월에는 제1횡단도로 500고지 부근 제3관음교 계곡이 건설용 골재 채취 명목으로, 1978년 9월에는 방선문 상류 2km 지점이 채석행위로 파괴됐다.

당국의 관리 잘못으로 훼손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1976년 9월에 영실 일대 사찰들이 조잡한 구조로 들어서고 채소를 재배하는 등 자연경관을 망쳤고, 1980년 4월에는 제1횡단도로변 확장공사 과정에서 수종갱신(樹種更新)이란 이름으로 삼나무를 심기 위해 울창한 천연림을 베어 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계획 당시부터 문화재위원 및 도민들이 심하게 반발했었다. 1982년 5월에는 서귀포 선돌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1977년 서울 소재 한양학원이 선돌 아래쪽 국유림 16만평을 제주세무서로부터 양수받은 이후 인등각이라는 초가 암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십 종의 아름드리나무를 잘랐다는 것이다.

등반로와 관계된 훼손문제도 나타나는데, 1978년 6월에는 한라산 5개 등산로가 빗물에 씻겨 돌계단이 허물어지고 나무가 썩는 등 엉망이었다. 이 등산로 계단시설은 1974년 시설된 것인데 등산객들이 허물어진 계단을 피해 등산로를 벗어나며 주변 식물까지 피해를 본 것이다. 이어 1978년 10월에는 한라산 어리목과 영실 등산로 정비과정에서 등산로 주변 숲 속의 돌을 부수어 정비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고, 1988년 6월에도 등산로 시설을 보수하며 등산로 주변의 잡석과 암벽을 마구 캐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산불에 의한 피해로는 1979년 3월 남원 수망리 공동목장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서귀포경찰서장이 경고 처분 받고 남제주군 산림과장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1985년 3월에는 서귀포 미악산에서 농민이 잡초를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오름 전체를 태웠다. 1988년에는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오름이 훼손되는데, 10월 10일에는 비양도에 산불이 발

생하여 오름 3분의 1이 불에 탔고, 14일에는 지미봉에서, 11월 13일에는 한라산국립공원 경내인 1,300고지 사라오름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5만 평 이상의 천연림이 불에 타는 피해를 보았다.

한편 동물 중 한라산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노루는 1977년 2월에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사냥을 금지하였으나 몰지각한 주민들이 올가미로 노루를 마구 포획하고 있어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 1988년 3월 어승생 수원지 위쪽에서 올가미로 노루를 잡던 사범이 구속되고, 1993년 1월에는 노루와 꿩 등 야생조수를 밀렵, 밀반출하려던 사람들이 공항에서 검거되었다. 같은 해 2월에는 대정 중산간에서 올가미를 이용해 노루 7마리를 잡은 아버지와 아들이 적발됐기도 했다.

무너지는 백록담

한라산에서 백록담은 그 상징으로 예로부터 최종 목적지가 되며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훼손이 심해 출입통제가 이어지는 등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백록담에서 등산객들이 야영을 하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는데, 1972년 7월에 한라산을 등반해 백록담에서 친구들과 수영하던 등산객이 익사(溺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1974년 8월에는 백록담에 채소밭을 만들어 자연을 훼손했던 제주시 모 교회 목사가 입건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 목사는 교회 신도들과 백록담 분지에 기도장을 만들면서 부근의 구상나무 가지를 자르고 잔디를 파서 채소를 심기까지 했다.

1975년 8월에는 백록담에 몰려든 등산객들이 야영을 하며 음식물과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심지어는 목욕과 빨래까지 하는 바람에 훼손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다. 1976년 5월에는 백록담 분지 안에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빈병, 깡통, 오물들과 음식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텐트를 치면서 배수로를 파헤치고, 남서쪽의 숲은 화목으로 잘려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다.

1976년 7월에 백록담을 찾은 박만규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은 백록담의 호수면적이 5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는데, 그 원인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찾으면서 토사 유실(土砂流失) 사태를 일으켜 밑바닥이 메워졌고, 또 백록담 둘레의 임상이 파괴된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976년 8월에는 한라산 보호문제로 부심해온 제주도가 적극적인 보호캠페인과 단속, 관리기구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대피소에 관리인을 두고 주변의 청소와 환경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산객에 대한 통제조치로 병삽, 곡괭이, 톱, 칼 등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버너 이외의 취사행위나 백록담 분화구 내에서의 야영을 일체 금지시켰다.

1978년 1월에 제주도는 한라산 자연보호를 위해 백록담에서의 야영 및 집단행사를 금지시키는 한편 5개 코스 이외의 입산행위를 단속하였다. 이 시기 백록담 서북벽과 정상 부근에 서식하는 희귀식물 암매 상당량이 도채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결국 1978년 9월 1일부터 백록담 분화구에 대한 출입이 금지됐다. 하지만 백록담 분화구 출입금지조치 이후 등산객들이 정상을 중심으로 화구 둘레에 장시간 머물면서 1979년 5월에는 이 일대 식물들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1979년 5월에 한라산 보호와 등산질서유지, 안전을 고려해 5개 등산로 가운데 관음사와 돈내코 코스는 하산만 허용했다. 5, 6월에는 휴일에는 서북벽코스를 이용한 정상등반을, 정오까지는 등산만 하고 오후에는 하산만 가능토록 하는 시차제를 적용해 행정요원과 경찰을 고정 배치했다. 1984년 2월에는 문화재관리국이 한라산 훼손사례를 막기 위해 백록담 주위에 물리는

등산객을 가급적 분산(分散)시키라고 제주도에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1986년 5월부터는 훼손이 심한 서북벽코스에 대한 출입통제조치가 취해지고 남벽코스로 대체 등산로가 개설되는데, 이 또한 철저한 검증 작업 없이 남벽 코스를 무조건 개설하는 바람에 백록담 남벽마저 돌이킬 수 없게 훼손되어 개설한 지 8년 만에 폐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1987년 9월 3일에는 태풍 다니너가 북상하며 백록담에 최대풍속 45m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서북벽 일대와 분화구 동남쪽이 유실되는 산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동릉에는 대형 암석이 쓰러지는 등 주변 400㎡가 완전히 망가지고 구상나무 100여 그루가 뿌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북벽은 1992년 2월에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지며 경사면이 쓸려나가 복구불가능 상태에 이르게 된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내에서 백록담을 보면 탐라계곡과 화구벽이 별개로 보이는데, 이후 서북벽이 붕괴되며 하얀 속살을 시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훼손돼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남벽 정상부를 시작으로 훼손지 복구 작업이 펼쳐져 2000년대 들어서는 서북벽 정상, 동릉 등에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1992년에 제주도에서는 백록담의 담수적정량 보존 용역을 선진엔지니어링에 맡겨 백록담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선진엔지니어링에서는 증발 2%, 누수 98%로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갈수기(가뭄이 들 때)에 분화구 내의 퇴적물을 제거한 후 기저부에 콘크리트와 유사한 방수막을 피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많은 논란이 빚어져 아직까지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최근에도 한라산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백록담 담수화 방안에 대한 학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백록담의 담수와 관련해 1998년 제주도 전 지역이 가뭄으로 허덕일 때 백록담도 거북등처럼 바닥을 드러낸 바 있으며, 반면 1999년 7월 한 달간 한라산 지역에 2,6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을 때와 2002년 태풍 루사가 많은 비를 뿌린 후에는 최대의 만수위를 기록하며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방목 논란

방목과 화입

한라산에서의 방목(放牧)은 고려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이뤄져왔다. 4·3항쟁 이후 또다시 방목이 시작되는데, 1970년대 초반 국립공원 지정 이후 이러한 방목은 환경 논란에 휩싸이며 10여 년간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방목과 함께 풀을 잘 자라게 하고 진드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던 목야지에 대한 화입(火入)도 환경파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목축(牧畜)과 관련해 신문에 문제기사가 나간 것은 1965년 5월로, 진드기 구제를 위해 목야지를 태우는 화입행위를 1966년부터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1967년의 기록에 의하면 1966년 한 해 화입으로 소실된 산림은 10만 그루에 해당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화입 시 군수, 경찰서장, 각급 행정기관장이 연대하여 경방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1975년 7월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구역 내에서의 가축방목을 금지했다. 이는 가축방목으로 희귀식물(稀貴植物)이 훼손되고 축주(畜主)들이 가축관리를 빙자해 무단출입함에 따른 것으로 방목 일체를 불허하고 위반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어 1976년 7월에 제주도는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가축에 대해 관계법을 적용하여 축주들을 다스리겠다고 발표해 전통적인 방목행위에 쐈기를 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속보다 계몽이 앞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공원관리자들은 여름철이면 백록담 등 깊은 산 속

에서 5~6마리씩 떼 지어 다니는 가축들로 골치를 앓았었다.

1980년 7월에 한라산 1,500고지 이상에서의 방목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는데, 연대보호림 안에서의 방목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림법시행령이 1984년 7월에 개정된 이후 1985년 5월에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유림 내의 공동방목을 허용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한라산에서의 방목은 1988년을 기해 완전히 금지되는데, 한라산에서의 방목을 금지한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제주조릿대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며 시로미와 털진달래 등 다른 식물이 고사위기(枯死危機)에 처하자 방목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방목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5년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추정하는 제주조릿대의 분포면적은 해발 500m에서부터 1,900m에 걸쳐 244.6km²에 이르며,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년, 20년 후에는 백록담까지 제주조릿대로 덮여 시로미, 눈향나무, 한라솜다리 등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이 거론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한라산연구소에서는 영실 일대 등 7개소에 실험구를 설치해 제주조릿대를 벌채한 후의 식생변화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관목림지대에서 제주조릿대를 벌채하고 부엽 층을 제거하자 다음해에 초장이 5/6 정도가 감소하고 키가 작아지는 경향과 함께 밀도는 1/3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와 한라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주조릿대의 말 사료 자원화와 방목에 의한 식생 변화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화입은 1970년부터 금지돼 왔는데, 1977년 3월에 표선면 가시리에서 자기 임야에 불을 지른 농민이 산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당국은 화입 행위를 6대 폐습으로 규정, 추방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1990년 8월에 애월읍 금덕리 마을공동목장에서 15년 만에 화입이 행해지고, 1995년 7월에 야초지 및 방목지에 대한 화입이 전면 허용된다. 화입의 재개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로 지난 1997년 2월 시작된 이후 제주의 대표축제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한편 제주조랑말은 1972년 10월에 애완용과 식용 목적으로 일본으로 첫 수출 길에 나선 이후 1986년 2월 제주조랑말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1980년 9월 조랑말 100마리가 일본에 애완용으로 수출됐지만 1984년 7월에는 도내 조랑말이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도입되는 외래동물

1968년에는 광활한 한라산 허리에 알래스카산 순록(馴鹿)목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다. 재미동포인 왕종탁이 유진물산을 설립하여 고려축산주식회사와 합작으로 5·16도로 견월악 일대 총 331,700평에 순록목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구자춘 지사를 설득해 같은 해 10월에 제주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귀포 포도당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을 때 알래스카의 사슴목장이 나오는 영화까지 보이며 정부의 수입허가와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알래스카와 기후풍토가 비슷한 일본 홋카이도에서 왜 사슴을 사육하지 않는지 알아보라.'며 충분한 시험단계를 거친 후 추진하라고 한다. 하지만 왕종탁과 고려축산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농협에서 농가소득증대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융자받아 한 마리당 10만 원씩 240마리를 구입하여 비행기 3대를 전세 내 김포공항까지 수송하고 이어 공군 수송기로 제주로 운반한 후 견월악 목장에 방사한다. 하지만 도입 한 달 만에 41두가 쇠파리 유충과 내출혈, 심장혈전증에 의해 폐사되는 등 75두가 폐사했다. 이 문제로 구자춘 지사는 다음해 제주를 찾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나머지 사슴들

도 다음해 봄에 방목하자 고사리 중독 등으로 폐사하여 도입 6개월 만에 240두 중 18두만 남는 실패를 겪게 된다. 고사리 중독에 의한 가축의 집단 폐사는 1974년 7월에 제동목장에서 발생하여 키우던 수입 소들이 폐사하기도 한다.

한편 까치 방사도 이어지는데, 1963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6마리를 보내 도내에 방사했으나 2개월 만에 모두 죽어버렸고, 이어 1971년 10월에는 동아일보와 한국조수보호협회에서 수놈 1마리와 암놈 2마리 등 까치 3마리를 공군 특별기편으로 수송, 삼성혈에 방사하기도 했다.

이어 1989년 10월 28일에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 경내에는 당시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을 비롯한 도내 기관장과 중앙일간지의 사장, 모 항공사 부사장 등 3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 8도의 까치 방사가 이뤄진다. 이보다 앞서 10월 24일에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까치 24마리는 중문 대유수렵장에서 현지 적응 훈련까지 거쳤고 방사 후에는 제주시 아라초등학교를 까치 보호 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46개체가 방사되는데, 그로부터 만 10년이 지난 지금 까치 방사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최대의 실수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1998년부터 한국전력공사와 일부 농가에서는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만큼 그 피해가 확산되었다. 박행신과 김완병이 1997년에 발표한 논문 「제주도에 이입된 까치의 환경 적응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까치는 최초 방사 지점인 아라동을 중심으로 북서와 북동쪽 방향으로 멀리는 27.5km 지점에서까지 발견되었는데, 이 때 확인된 동지의 숫자는 204개, 개체수(個體數)는 1,000여 마리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내 199개소 중 아라동이 50개소로 가장 많았고 조천 3, 애월 1, 구좌 1개소 등 시외에서 5개소가 발견됐다. 이들 대부분이 해발 300고지 이하로 인가에서 500m 범위 내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라산에 사슴을 복원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어 환경 파괴 논쟁 속에 사슴 방사가 이루어지는데, 1992년 8월에 제주시 동일의원의 이동일 원장이 5·16도로 수장교 서쪽 200m 지점에 대만산 꽃사슴 암컷 4마리와 수컷 2마리 등 6마리를 방사한 데 이어 1993년 6월에 관음사 지구 자원 목장에 암컷 4마리와 수컷 1마리 등 5마리를 또다시 방사했다.

또한 1993년 10월 23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경기도 이천군에서 사슴 사육 농가를 이루고 있는 백인범이 3년생 흰사슴 수컷 한 마리와 꽃사슴 암컷 한 마리 등 사슴 한 쌍을 서울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로 공수하여 한라산 700고지인 견월악 부근에 방사한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10월 23일자 기사에서 ‘백록담 흰사슴’이라는 제목 아래 하얀 사슴을 한라산 중턱에 방사했다는 기사 사진과 함께 내보냈다. 한편 당시 방사됐던 사슴들은 1995년까지는 등반객과 5·16도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간혹 발견됐었으나 이후 완전히 사라져 버려 노루와의 영역 싸움에서 밀려 도태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축제의 무대로 변한 한라산

철쭉제

한라산에서는 매년 5월 넷째주 일요일에 분홍빛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산상에서 산악인과 도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모인 가운데 철쭉제가 열린다. 당초 철쭉제는 1966년에 기획된 것으로 전해진다. 1968년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1966년부터 연 2회나 우천관계로 이뤄지지 못하다가 3회인 1968년에 절정을 이뤘다는 기록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1968년 철쭉제의 경우도 『대한일보』 기사에서 1회로 표기한 반면 『제주신문』과 『제남신문』에서는 2회로 표기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제1회 한라산 철쭉제는 1967년 5월 21일 제주산악회 주최로 열렸다. 일정은 제주시에서 오전 6시 버스로 출발하여 성판악, 사라악으로 정상에 올라가서 철쭉제를 지내고 개미등, 산천단으로 하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당일 버스로 성판악까지 갔으나 폭우로 인해 등반할 수 없어 코스를 변경하여 물장울, 태역장울, 골프장, 제주시로 하산해야 했다. 회비 200원, 참가 인원은 시민 70여 명을 비롯해 제주산악회 안흥찬·김종철·김현우·김형희·현승울·문화자·장영자·오상철 회원 등이 참석했으며, 주최 측인 제주산악회에서 관광버스를 제공했다.

제2회 행사는 1968년 5월 26일 제주산악회 주최로 한라산 정상에서 열렸다. 이를 소개하는 신문기사를 보면, 철쭉제에 앞서 행사장에서 철쭉 꽃잎으로 만든 떡과 철쭉꽃이 담긴 술을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행사 일정은 오전 6시 제주시를 출발하여 성판악 코스로 정상에 올라가서 철쭉제를 지내고, 서북벽, 장구목, 용진각, 개미등, 탐라계곡, 산천단으로 하산했다. 참가자는 시민 70여 명과 서울 요산산악회(회장 한순용), 308경보대대 장병, 관광객, 한국일보 사진기자, 제주산악회 안흥찬 회장과 회원 16명이 참석했는데, 회비는 500원이었다. 이 날 처음 추첨을 통해 선발한 철쭉여왕에는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장보순 양이 뽑혔는데, 철쭉 여왕은 요산산악회에서 그해 가을 강화도 마니산 추계 산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제3회 대회는 1969년 5월 18일에 서울의 용산산악회와 대한산악회의 산악인 10여 명, 경기대학교 중앙대학, 충주여대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왕관릉에서 진행된다. 당초 목표는 백록담이었으나 짙은 안개와 비 날씨로 용진각으로 대피했다가 왕관릉에 올라 행사를 개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1973년 제7회 한라산철쭉제 때는 한라산 정상에서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주인공은 서귀포에 사는 장모(27)군과 박모(23)양으로 지난 철쭉제때 백록담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1년을 사귀어 오다가 이 날 산상제가 끝난 뒤 결혼식을 올렸다. 예복은 등산복차림이었고, 신랑의 가슴에 에델바이스(한라솜다리) 세 송이를, 신부의 가슴엔 철쭉꽃 세 송이를 꽂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산사나이와 산아가씨의 노래를 합창하여 이들을 축복해줬다. 주례는 제주산악연맹 명예회장인 홍병철(당시 국회의원)이었다.

산상결혼식은 이보다 앞선 1965년 8월에도 한라산 왕관릉에서 열린 적이 있다. 신랑·신부는 제주산악회 강태석 회원과 고모(20)양으로 예복은 두툼한 파카를 입었고, 주례는 제주산악회 홍정표 회장이었다. 주례는 그 회원이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끊겠다고 대답하기 전에는 주례를 볼 수 없다며 신랑의 대답을 주문하자 30여 분이나 결혼식 진행이 늦어졌다는 에피소드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한편 한라산 철쭉제는 1969년 5월에 제3회 행사까지 제주산악회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1969년 6월에 제주도 산악연맹이 만들어진 후 1970년 제4회부터는 제주도산악연맹에서 맡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철쭉제는 일반시민들이 점차 많이 참석하고, 철쭉여왕을 뽑는다면 한라산 정상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행사가 다양해짐에 따라 방송국에서 라디오와 TV로 중계 방송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산악안전과 자연훼손이 문제가 되면서 한라산 철쭉제는 10년간 백록담 분화구에서 지낸 것을 끝으로 왕관릉이나 선작지왓에서 산악인들만 조용히 모여 해 뜨는 시간에 철쭉제를 지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윗세오름 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만설제

만설제는 1974년 어승생악에서 처음 열렸다. 당초에는 산악인들의 적설기 훈련의 일환으로 산 정상에서 열려고 했으나 일반 등산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어승생악을 택하였

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산악인들의 무사 산행을 기원하는데, 도내 산악인은 물론 육지부에서도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산악회의 주최로 열린다.

눈꽃축제

눈꽃축제는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한라산의 눈꽃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한다는 측면에서 기획되어 1997년에 1회 대회가 열렸다. 개막식에는 싱가포르와 아일랜드, 폴란드 등 18개국의 주요 외교사절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리에 진행됐다. 이 기간에는 등산을 통제하던 백록담도 개방되어 등산객의 발길을 끄는 데 기여 했지만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곳곳에서 교통 대란이 빚어지고 급기야는 눈꽃축제 참가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1회 대회는 본행사가 열린 3일 동안 7만 명이라는 인원이 모였는데, 눈을 볼 수 없는 지역인 동남아의 관광객들과 중국인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회 대회 때는 개막식날인 1998년 1월 17일에 행사장인 어리목 광장에 39mm나 되는 비가 하루 종일 쏟아져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한다. 다행히 18일부터 많은 눈이 내려 행사관계자들을 안도하게 했으나 날씨에 따라 축제분위기가 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날씨에 따른 희비는 3회 대회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개막일부터 3일 동안 폭우와 황사까지 겹쳐 제대로 된 행사를 진행하지도 못한 채 폐장분위기를 맞게 된다. 개막에 앞서 눈을 만드는 기계인 제설기를 동원하는 한편 군부대를 동원해 고지대의 눈을 차량을 이용해 행사장 주변으로 옮겨놓기까지 했으나 계속된 폭우에 순식간에 녹아버리자 눈 축제가 아닌 비 축제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결국 이처럼 날씨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축제의 성공 여부가 결국 문제가 돼 3회 대회를 끝으로 눈꽃축제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등산패턴의 다양화

한라산 등산객은 1974년 23,466명을 시작으로 1981년 10만 명을 넘어섰고, 1987년 20만 명, 1989년 35만 명, 1992년 42만 명을 거쳐 1994년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는 1996년과 1997년, 1999년에는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 바람이 불며 2004년 66만 명으로 60만 명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7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들어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 등산객의 특징을 보면, 눈꽃축제가 열린 1997년과 1998년, 1999년에는 축제참여인원이 각각 5만, 19만, 4만 명 등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순수 등산객으로는 1995년 53만 명에 달했으나, 남벽코스가 폐쇄되며 정상등반이 불가능해진 1996년 42만 명으로 줄었다.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36만 명이라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기도 했다.

코스별로는 1986년 5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등산객이 어리목과 영실코스를 이용했는데, 이후 윗세오름과 서북벽을 거쳐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가 폐쇄되자 성판악과 관음사코스로 이동되었다. 그러나 1994년 7월에 윗세오름 - 남벽정상마저 폐쇄된 이후 성판악코스로 몰리기 시작한다. 이어 1996년 3월에 성판악과 관음사코스를 이용한 정상등반마저 금지되자 성판악은 감소하고 다시 어리목과 영실이 증가하다가 자연휴식년제 기간 중 동절기에 한해 정상등반을 허용한 성판악코스로 몰린다. 이어 1999년 3월부터 성판악과 관음사코스를 이용한 정상등반이 허용된 이후 성판악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계절별로는 전체적으로 5월이 20% 내외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4월, 8월, 10월 순으로 등산객이 많았다. 5월의 경우 철쭉 상춘인파와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4월의 경우 진달래, 8월은 여름휴가철, 10월은 단풍관광객이 몰리는 것과 비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립공원 개설 초기인 1970년대 초반에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4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백록담에서 야영하며 물에 뛰어들었다가 발생한 경우였다. 백록담에서의 수영은 이보다 앞서 1905년 8월 한라산을 올랐던 일본인 이찌시다가 백록담에서 통역으로 동행했던 목포인 김용수와 함께 수영까지 하며 여유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꽤나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익사뿐만 아니라 알코올버너가 폭발하며 화상을 입는 사고도 빈번했고, 흐린 날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만큼 원시적인 산행스타일과 허술한 장비 등으로 인해 악천후 때 사고가 많았던 것이다.

이후 특이한 산행으로는 1980년 11월에 3대의 오토바이가 등반관리소의 제지를 뚫고 성판악 남쪽 비정상코스를 통해 국립공원 구역에 진입, 등산로를 따라 백록담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986년 1월 지체장애자 5명이 겨울한라산 등산길에 올랐고, 1987년 11월 물구나무서기로 백록담을 올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당시 물구나무서기 세계기록 보유자인 신동욱은 뒷세오름에서 남벽코스로 정상까지 3시간 30분 만에 올랐다. 이어 1990년 5월에 전도소년체전을 앞두고 백록담에서 성화가 채화되고, 1993년 10월에는 시각장애인 17명이 한라산을 등반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통일에의 의지를 담아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이름으로 각종 단체에서 백록담과 백두산 천지의 물과 흙을 합치는 합수합토제(合水合土祭)를 갖기도 하는 등 이벤트의 장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000년대 제주도 산악운동은 1월 1일 0시 0분 0초에 한라산 정상에서 새천년 한라산 횡보점화 행사를 가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성산 일출봉제와 병행해 밀레니엄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는데, 0시 정각에 불을 올려 도내 전역에서 장엄한 불빛을 보게 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날씨가 흐려 백록담에서 산악인들만의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이어 2002년에는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을 철쭉제와 병행해 백록담에서 거행하기도 했다. 부산 아시안게임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성화채화 행사도 백록담에서 열리는 등 백록담은 남한 최고봉이자 민족의 영산으로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편 등산객의 증가와 함께 한라산 훼손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며 등산로의 변화도 가져왔다. 1973년 5월에 서귀포산악회(회장 강충남)에 의해 개척된 돈내코 등산로가 1978년 출입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통제됐다. 돈내코 코스는 당시 서귀포산악회가 종전 남성대 등산로의 길이 험한 까닭에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한 것인데, 하산시간이 남성대의 5시간에서 돈내코 3시간으로 2시간 단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1985년 5월에는 등산로 이외의 전 지역과 서북벽 구간이 훼손에 의해 통제된 반면 남벽코스가 새롭게 개발되었는데, 이마저도 1994년 7월 폐쇄된다. 현재 출입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보면 서북벽등산로 1.3km 전 구간을 비롯해 백록담 순환로 중 동릉 일대를 제외한 1.3km 전 구간, 돈내코 코스 9.4km 전 구간, 뒷세오름 - 남벽 정상 2.8km구간, 백록담 분화구 내 0.21km², 도로 등을 제외한 공원 전지역 147.8km² 등이다.

이와 함께 1988년부터 1일 등산을 원칙으로 지정된 코스 이외의 장소만 이용하여, 공원 구역 내에서의 취사 및 야영이 금지되고, 계절별, 등산로별 입산시간 조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등산 및 훼손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78년 1월 제주도는 한라산 자연보호를 위해 백록담에서의 야영 및 집단행사를 금지시키는 한편 5개 코스 이외의 입산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1979년 5월 한라산 보호와 등산질서유지, 5개 등산로 가운데 관음사와 돈내코 코스는 안전을 고려해 하산만 허용하고, 5, 6월에는 휴일에만 서북벽코스를 이용한 정상등반을 허용했는데, 정오까지는 등산만, 오후에는 하산만 가능토록 하는 시차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1985년 6월에는 정상 부근에서의 야영이 금지되고 12세 이하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해서도 등산을 통제하는 내용의 한라산국립공원 정비계획이 마련되며, 1986년 3월부터는 한라산 어리목과 영실코스에 대해 30명 이상의 단체등반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어 1986년 5월부터 1988년 4월 말까지 한라산 서북벽코스 등 12개 지역에 대해 통제되었는데, 통제구역은 정상 분화구와 윗세오름, 사라악, 영실기암, 탐라계곡, 삼각봉, 왕관릉, Y계곡, 구상나무밭, 눈향나무지대, 철쭉밭 일원이다. 1990년 7월에 한라산에서의 취사행위가 금지되는 한편 철쭉제 등 각종 산악행사 개최장소 변경과 함께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1988년 12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적설기 안전대책을 세우며,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1일 등산을 원칙으로 야영은 일체 금지하고 등산인원은 5인 이상으로, 적설량 30cm이상일 땐 전면통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산악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산악인들은 적설기 산행이 평상시보다 체력소모가 2배 이상 많고 일조시간이 짧아 당일에 정상을 다녀오기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매년 20개 팀 이상이 한라산에서 해외원정등반을 위한 훈련을 해왔다고 주장했었다.

현재는 사전에 신고한 해외원정 등 산악훈련 팀에 한해 야영이 허용되는데, 그 장소도 용진각 일대로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오름을 찾아서

제주도 한라산에는 산허리에 368개의 오름이 있다. 하지만 오름은 과거에는 마을 주변의 생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목장 또는 마을공동묘지로 이용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오름이 제주사람들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온 과정에는 오름나그네 김종철의 힘이 컸다. 해방 이후 한라산 등산로 개척과 산악구조 및 안전 계도활동에 온 힘을 기울였던 김종철은 1988년부터 『제주도지』에 ‘제주도기생화산 소묘’란 이름으로 오름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이어 1990년 『제민일보(濟民日報)』의 창간과 함께 신문에 오름을 연재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한라산이 오름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내면을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연재물은 1995년 1월 도내 330여 개의 오름을 소개하는 『오름나그네』(전 3권)란 이름으로 출간된다. 책 출간 당시 김종철은 암투병 중이었는데, 이 책은 산악인 김종철이 막바지 혼신의 힘을 사른 역작이었다. 김종철은 그해 2월 9일 타개했는데 『오름나그네』는 1,000회 이상 한라산을 오르내렸던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결정판이었던 것이다.

김종철이 타계(他界) 하자 “오름은 내가 좋아하는 고향의 살덩어리로 다니면 다닐수록 애정을 느끼고 행복해진다.” 는 그를 기리는 한편 오름을 오르며 제주의 오름에 대해 제대로 느껴보자는 후배들이 모임을 결성한다. 이름하여 ‘오름나그네’. 오름나그네는 1995년 5월 28일에 김종철의 유해가 뿌려진 한라산 선작지왓에서 “故 김종철 선생의 오름 사랑의 뜻을 기리기 위해 고인이 남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오름나그네’란 이름으로 창립하게 됐다.” 고 밝히고 있다.

매년 김종철 추모 등반을 비롯해 도내 오름을 하나하나 오르는 작업을 벌여온 오름나그네는 1997년 8월에 아부오름에서 회원과 200여 명의 오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송전탑 설치

반대 운동으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2000년에 오름오름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때부터 매년 탐라문화제 사업의 일환으로 오름오름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임체는 이보다 앞서도 있었다. 1991년 오름사진동우회로 출발한 오름사진연구회는 매년 제주 오름의 자연미를 카메라에 담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모나지 않고 동글게 휘어지며 그 자체로 완벽한 형태미를 가진 오름만이 지닌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오름 관련 단체는 2000년을 전후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 오름이 갖는 곡선미에 흠뻑 빠져 들기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면 오름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라산 등반에 비해 무리가 덜 간다는 이유와 한라산 등산의 경우 하루를 허비해야 하는 데 반해 오름 등반은 반나절이면 가능하다는 장점도 크게 한몫했다. 한라산 등반의 경우 나이 든 사람들이 다소 무리를 느끼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오름의 경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들 즐겨 찾는 곳으로 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화 『이재수 난』은 제주 오름을 대중화시키는 데 일대 전기를 마련한다. 구좌읍 아부오름에서 촬영된 『이재수 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름이 갖는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며 오름 자체가 유명 관광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2002년 2월에는 한 여행업체에서 오름 트레킹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여행상품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업체는 제주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오름과 문화유산 트레킹이라는 상품을 내놓았다며 향후 서울지역의 대형여행사와 손잡고 2박 3일 패키지상품을 출시기로 하는 등 상품판매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04년에는 도내 한 특급호텔에서 숙박과 오름 트레킹을 겸한 체험관광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오름의 가치와 관련해 2004년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총회에서 PATA 재단은 오름의 효과적인 관광자원 이용과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에 공로패를 전달하는 한편, 공식 브로셔(brochure)에 ‘오름’을 별도 소개하는 등 ‘오름’이 생태학적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이라고 공식 인증했다.

아태지역의 환경보호와 문화유산 보전 및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 발전 도모를 위해 지난 1984년 설립된 PATA재단은 매년 회원국가에서 신청한 재단 지원 요청사업 중 1개 사업만을 채택하여 사업 관리 기관과 지속적인 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동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때 ‘오름’은 최근 세계 관광업계의 공통 관심사인 ‘지속가능한 관광’에 가장 부합되는 관광 아이템으로 관심을 끌었으며, 정식 소개를 통해 세계 관광 전문지 또는 관광 상품 등에 ‘OREUM’이라는 고유명사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2001년에 남원읍의 물영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2005년에는 조천읍의 검은오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또 2004년 11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달 국내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선정하는 ‘11월의 가 볼 만한 곳’에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 기행이 선정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의 이러한 열풍 속에 각종 단체에서 오름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내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오름학교’가 있고,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오름야영캠프를,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에서는 남제주군 모구리 야영장에서 청소년 오름 축제를 열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주의 오름은 축제의 무대로 탈바꿈하기도 하는데, 제주 국제레저스포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오름 축제를 비롯해 구좌읍의 다랑쉬오름에서는 매년 패러글라이딩대회가 열리고, 2004년부터는 표선면 일대 ‘좌보미’ 오름에서 서귀포소방서가 주최하는 ‘제주119

오름 사랑 마라톤'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특히 제주119 오름 사랑 마라톤 대회에는 모두 1,640명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가를 신청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오름 사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오름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오름 열풍은 지난 2004년 제주도에서 집계한 오름 동호회 숫자에서도 나타나는데, 접수결과 도내 지역과 직장, 단체에서 115개의 단체에 동호인수가 5,3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0개 단체에 1,771명, 서귀포시 15개 단체 475명, 북제주군 6개 단체 339명, 남제주군 10개 단체 402명 등이다. 구성단위별 분포로는 사회단체가 45개에 2,8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이 36개 984명, 지역 24개 605명, 인터넷동호회 10개 994명 등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도내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오름 동호회가 조직돼 있고 직장이나 사회단체도 상당 부분 되는데, 신고를 하면 오름 산행에서 규제 등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오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38개의 카페가 등장한다. 이 중에는 회원수가 700명을 넘는 '제주오름사랑'을 비롯해 452명의 '제주오름', 236명의 '제주야생화', 208명의 '오름나그네' 등 동호인만도 수천 명에 이른다. 이러한 숫자를 감안할 때 동호회 수는 도내에 산재한 오름 368개보다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실제로 오름에 가 보면 휴일의 경우 많은 수의 오름에 10여 개의 오름 동호회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을 비롯해 평상시에도 아침저녁으로 운동 삼아 오름을 오르는 경우도 크게 증가했음을 느끼게 된다. 특히 마을 인근 오름은 운동시설까지 설치돼 공원화되고 있고, 다량쉬나 노꼬메, 아부오름, 따라비, 용눈이 등 유명 오름에는 휴일마다 수백 명의 발길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관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한라산 등산로처럼 도내 곳곳의 오름도 자연훼손으로 심한 몸살을 앓게 된다. 2002년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368개 오름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34개 오름이 송전·통신철탄 등 45개 시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보면 철탄을 제외한 통신관련 시설이 15개로 가장 많고 △군사용 시설 9개 △이동·무선 통신철탄 6개 △상수도 배수지 5개 △송전철탄 4개 △방송통신시설 3개 등이다. 심지어는 관광농원으로 조성된 오름도 있다. 특히 제주시 봉개동 개오리오름과 서귀포시 색달동 세오름,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등에는 통신·방송·전기 등 3~4개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섰거나 이동통신 2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철탄을 따로따로 설치해 훼손을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에서는 오름 안내석 설치와 함께 훼손지 복원에 나서고 있는데, 구좌읍 소재 다량쉬오름의 경우 등반로 정비 사업으로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입구에서 70m까지는 침목계단(폭 1.25m)을 시설했으며 이후 정상까지는 미끄럼 방지시설이 된 타이어매트(폭 1.5m)를 시설하는 등 등산로 정비를 하기도 했다. 급기야 2005년 9월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데, 용역을 발주해 생태탐방 가능성, 절대보전, 훼손복구 대상 등 오름별 특성에 따른 보전·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오름 훼손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더 이상의 오름 훼손을 막기 위해 오름마다 입산료를 받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들은 오름 입구와 정상에 인원을 배치, 주차나 등산로를 안내하고 계도한다면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는 물론이고 비양심적인 산림훼손이나 무단 채취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들 인원들에게 지급하고 일정 부분은 적법해 훼손되는 오름에 대한 복구비용이나 안내를 위한 시설보완 경비에 보태자고 주장한다.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유산 신청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제주도가 유네스코(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2년 12월 16일이다. 이어 2003년 5월 17일에는 제주도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명숙 환경부 장관, 스티븐 힐 유네스코 동북아시아지역 사무소장과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내 환경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야영장에서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시 유네스코가 도 전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보전방안과 관리체계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범위는 △ 한라산국립공원 △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지역 △영천과 효돈천 △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일대 등 83,094ha로,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백두산에 이어 세 번째로 2002년 12월 16일에 지정됐다.

이어 2004년 4월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관리 계획 용역이 발주됐고, 2004년 7월에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2004년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최근 도의회 중간보고회를 열고 관리방향을 제시하는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JIBR)의 세 가지 구역 중 중산간에 해당하는 '전이지역'의 곳자왈, 오름, 하천 등 자원을 중심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위상에 걸맞는 보전·관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2005년 4월에 제주도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회의 때 가칭'아·태지역 섬(해양) 생물권보전지역협회' 설립을 공식 제안·권고하고, 이 협회의 국제사무국을 제주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해 8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연방 등 5개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원국과 스페인, 팔라우의 섬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 유네스코 본부·지역사무소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9차 회의가'섬 생물권 보전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주선언이 채택되는데 제주도에서 제안한 '아·태지역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협력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포함할 것이므로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가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사무국은 제주에 설립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또 새로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준비를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한 양자·다자간 기관 및 연구소간 협력 강화, 생물권보전지역들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설립을 위한 네트워크 발전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기로 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정부와 제주도는 한라산과 용암동굴, 화산지형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 세계유산등록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처음 한라산에 대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5월이었다. 당시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용암동굴과 오름 원시림 등 제주의 수려한 자연경관인'제주도자연유산지구'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기초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6월 중 학술세미나와 학술조사 등을 시행, 2003년 2월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등록예정

범위는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을 포함해 동북사면의 기생화산군 및 용암동굴지대와 법정오름·산방산 등 서남사면 일대, 중문·대포주상절리대 등 서귀포 해안 일대 등이었다.

이어 2002년 10월에 제주도 자연유산 심포지엄을 제주에서 개최한 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국비 1억 4,000만 원과 도비 6,000만 원 등 2억 원을 들여 7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학술조사까지 벌였다. 이 때 제주도에서는 세계자연유산 지정기준이 되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는 곳으로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당처물동굴을 포함한 용암동굴군을 비롯해 한라산 정상부의 한대성 식물군집, 동북부 용암굴 입구 숨골에 형성된 상록수림 군집, 생물군집 형성과정으로 물장올과 검은 오름 및 물영아리에 형성된 화구습지식물군집,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천지연, 천제연 등 폭포와 당처물동굴, 영실기암, 백록담 및 오름군, 멸종위기종 보전으로 제주도 고유 식물종과 제주에서 자라는 한국 특산식물종 및 제주도 고유동물아종의 수와 분포 및 서식지 등을 꼽았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제주만의 특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징을 부각시켜야 함에도 국내 용에 그쳐 나중에 대상지역이 크게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2003년 11월에 열린 제주도 자연유산지구 신청과 관련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국제 홍보나 관리 계획, 주관기관 등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나 제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자연유산 신청 시점이 당초 계획에 비해 적어도 1년 이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당시 문화재청은 제주도와 용역진에 2004년 2월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용역진은 자료보완 등을 이유로 신청서 제출을 미루다 2004년 6월에 초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당초 용역단계와 달라진 게 없어 자료 보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없지 않았고, 이후 앞서 심포지엄에서 지적됐던 제주도자연유산등록추진협의회도 11월에야 구성되면서 초안에 이어 보완자료는 12월에 제출하겠다는 등 차일피일 일정만 늦춰진다.

그 이후도 추진상황은 지지부진을 벗어나지 못해 2004년 12월 열린 제주도자연유산지구 등록에 따른 실무자회의에서 우경식 강원대 교수는 “학술보고서와 등록신청 자료의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게 없을 뿐 아니라 신청서의 서술 체계에 일관성이 없고, 대상지역에 대한 설명도 일반적”이라 지적하고, 제주자연유산 대상지역의 비교우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보고서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도 학술조사단 보고서와 제주도의 등록 대상 지역이 다르고 제주도 용암동굴과 화산지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산방산, 송악산, 빌레못굴 등이 제외된 것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2005년 1월 21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는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로는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신청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최종 결론과 함께 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도 못한 채 또다시 용역에 들어가 2005년 새롭게 발견된 용천동굴까지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결국 이 용역은 정부의 합동감사에서 같은 사업을 두 번에 걸쳐 진행하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정부합동감사반은 용암동굴지대 등 9개소 3백14필지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용역을 제주지역 모 재단과 1억 9천만 원에 위법하게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성과물을 납품받았으나 부실로 인해 문화재청으로부터 3차에 걸쳐 보완요청을 받았고, 또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1억 5백만 원에 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7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시설현황

한라산 등산로

2004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계획에 의하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는 총 길이가 42.8km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등산객의 이용이 가능한 등산로는 어리목~윗세오름구간 4.7km, 영실~윗세오름 3.7km, 성판악~정상 9.6km, 관음사~정상 8.7km, 어리목~어승생 1.3km 등 총 5개소에 28.0km이며, 자연휴식년제구간으로 지정되어 등산객이 이용할 수 없는 등산로는 윗세오름~서북벽정상 1.3km, 윗세오름~남벽정상 2.8km, 돈내코~정상 9.4km, 백록담순환로 1.3km 등 총 4개소에 14.8km이다.

어리목코스

지난 1974년 이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로 개별 탐방객이 가장 많이 이용해 온 등산로가 어리목코스이다. 어리목코스는 제주시에서 1100도로를 이용하여 어리목 입구에 도착한 후 동쪽으로 난 포장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어서 들어가면 나오는 어리목광장이 출발점이다. 어리목광장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본소가 위치하여 있으며, 매점이나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이 곳을 출발하여 해발 1,700m에 위치한 윗세오름휴게소에 이르는 4.7km의 등산로가 어리목코스에 해당되며, 등산에는 일반적으로 대략 편도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 등산로에는 해발 1400m을 지난 사제비동산에 사제비약수, 윗세오름 직전에 오름약수로 불리는 두 군데의 약수터가 있다.

어리목광장을 출발하여 500m 가량 나무가 우거진 울창한 숲길을 지나면 10m 폭의 Y계곡이 나타난다. 백록담의 서북쪽 벼랑에서 시작되는 남(南)어리목골과 백록담 북쪽에 위치한 장구목에서 시작되는 동(東)어리목골이 합쳐진 Y계곡은 어리목등산로에서 가깝게는 10m, 멀게는 200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윗세오름까지 평행선을 이루며 사이좋게 이어진다. 예전에 이 Y계곡은 물이 흐르지 않는 제주도 대부분의 다른 하천과는 달리 평상시에도 물이 조금씩 흐르던 곳이었다. 그런데 제주 시민의 식수원인 어승생 수원지를 개발하면서 동어리목골과 남어리목골이 만나는 지점인 합수머리에 둑을 쌓은 후 이 물을 어승생 수원지로 끌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바닥을 드러낸 건천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 동의 대피소가 있었다. 등산 도중 물이 불어 건널 수 없을 때 이용하기 위해 지어진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건물이 노후하여 모두 철거되었다.

Y계곡을 지나면 참나무류와 서어나무류를 주요 수종으로 하는 숲길이 계속되는데, 해발 1,300m에 다다르면 '송덕수(頌德樹)'라 불리며 보호되는 수령 500년이 된 물참나무가 눈길을 끈다. 옛날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나무의 열매로 죽을 끓여 먹어 굶주림을 면했다고 하여 송덕수라 불리게 됐다는 유래가 있다.

어리목등산로를 출발하여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가파른 급경사 지대가 1,400고지인 사제비동산까지 계속된다. 사제비동산에 이르면 숲길이 사라지고 사방이 시원스레 트인 관목림과 초원지대를 만날 수 있다. 짙은 숲길에서 벗어나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마저 시원해짐을 느끼게 되는 곳이며, 땀 흘리며 올라선 후에 마시는 사제비약수의 물맛 또한 가히 일품이다. 사제비약수 이후부터 윗세오름대피소까지는 완만한 경사면으로, 돌길과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등산로가 동쪽으로 계속된다.

그리고 어리목등산로를 따라 다양한 오름들을 볼 수 있는데, 북쪽으로는 제주도 오름의 맹주

(盟主)라 할 수 있는 어승생악이 버티고, 그 왼쪽으로 헛망오름, 어슬렁오름, 불래오름이 펼쳐지며, 그 너머로 삼형제오름, 붉은오름 등이 있다. 맑은 날에는 비양도와 송악산너머 바다까지 펼쳐지니 제주도 서부 지역의 경치를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사제비동산에서 30여 분 가량 더 오르면 한라산 백록담의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펼쳐지며 비로소 종점이 눈앞에 다가선다. 백록담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죽은드레왓, 민대가리동산, 장구목 등이 백록담 서북벽으로 이어지고, 백록담 남쪽으로는 눈앞의 윗세오름과 그 너머 방해오름이 쉼 없이 이어진다. 이 곳이 만세동산이다. 만수동산이라고도 불리는 만세동산은 윗세쪽은오름까지 이어지는 널따란 고산 초원인데, 이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습지원(濕地原)이라 볼 수 있다.

만세동산의 물은 북쪽으로는 민대가리동산과 경계를 나누는 Y계곡으로 흐르고, 서쪽의 물은 사제비동산의 서쪽으로 흘러 한라교를 거친 후 한밤교를 통과한 Y계곡물과 합쳐진다. 예전에 이 곳은 한가로이 풀을 먹는 말떼가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내던 곳이다. 고수목마(古藪牧馬)라 하여 한라산 자락에서 뛰노는 말떼의 모습을 영주십경의 하나로 치는데 이 곳에서 보는 풍경이 최고일 것이다. 하지만 눈 덮인 겨울철,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이면 길을 잃기 쉬운 곳으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그 끝 지점에 윗세오름 대피소가 나온다. 만세동산을 지나서 윗세오름대피소로 가기 직전에 오름약수가 있다. 등산객들에게 물을 식혀 주는 감로수(甘露水)와도 같은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윗세오름의 물을 끌어와 약수터를 만든 것이다. 약수터 주변에는 훼손지 복구용으로 심은 구상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이 코스로 가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다. 어리목 코스의 또 다른 멋진 겨울철 눈 속에 파묻힌 숲길을 걷는 것과 만세동산의 구상나무와 바위에 엉겨 붙은 눈꽃을 감상하는 것이다. 윗세오름에 가면 커피와 라면 등을 판매하는 매점과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대피소가 있다. 이 대피소는 1977년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등반대장이었던 김영도가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대피소의 필요성을 말해 내무부 예산으로 짓게 되었다. 윗세오름대피소는 어리목코스과 영실코스의 종점이기도 하다.

영실코스

영실코스는 한라산의 서남쪽을 오르는 코스로 영실휴게소에서 윗세오름대피소에 이르는 3.7km 구간이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가장 짧은 등산로이다.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 걸린다.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영실계곡을 우회하게 되는데 이 때 눈앞에 펼쳐지는 영실기암의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 할 만하다. 영실기암은 옛 선인들이 영주십경의 하나로 쳤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봄에는 바위 틈의 진달래와 철쭉이 눈길을 끌고, 여름에는 울창한 나무숲과 시냇물이, 가을에는 붉게 물든 단풍, 겨울에는 바위와 앙상한 가지 위에 핀 눈꽃 등 1년 내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단풍으로 물든 풍경은 제주도 가을 경치 중 최고로 꼽는다.

영실 코스는 사시사철 흐르는 영실계곡의 시원한 물과 윗세오름대피소 직전에 노루샘이 있어 한라산에서 유일하게 식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산로이다. 한라산 서쪽 능선을 가로지르는 1100도로를 따라 제주시에서 중문 방향으로 가다보면 우리나라 국토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1,100고지에 이르게 된다. 1,100고지 탐라각휴게소 옆에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올랐던 산악인 고상돈이 잠들어 있다.

1,100고지를 지나 남쪽으로 1km를 더 가다 보면 다래오름 주변에 영실코스의 진입로가 있고,

이 곳에서부터 매표소까지의 거리는 2.5km 이다. 980고지에 있는 영실매표소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영실지소와 존자암의 진입로가 있다. 영실매표소를 지나 실질적인 등산의 출발 지점인 영실휴게소까지는 2.4km인데, 도로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12인승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영실휴게소까지 걸어가면 약 45분이 걸리고, 해발 1,280m인 이 곳에서부터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된다. 아름답리 적송 지대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2001년에 산림청에서 주관한 제2회 아름다운 숲 공모에서 '22세기를 위해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숲'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진가를 보여 주었다. 1,400고지까지는 평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며, 걷다보면 적송과 주변계곡의 물소리에 흠뻑 취하게 된다. 식수로 사용해도 될 정도의 1급수인 계곡의 물에 목을 축이는 것도 이 코스외 또 다른 매력이다. 이 계곡은 하류로 흘러 법정악을 거친 후 도순천, 강정천을 이루며 바다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이 곳에서 바로 동쪽의 능선을 타고 오르는 등산로가 있었다. 선작지왓 서남쪽에 위치한 탐궐 부근을 거쳐 윗세오름으로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폐쇄됐다. 설사 폐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석 사고의 위험과 급경사 등으로 오를 수 없는 상황이다. 자그마한 개울 2개를 건너면 곧바로 급경사가 시작되는데, 5분 정도 오르다 보면 해발 1,400m 표석이 나온다.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 곳은 영실코스 중 가장 많은 땀을 흘리는 곳이다. 그리고 돌계단을 다 오르고 난 후 시원스레 펼쳐지는 영실기암의 모습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이제까지 흘린 땀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어준다. 1,600고지까지는 제주도의 서쪽 오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제주도의 오름은 한라산을 경계로 동쪽과 서쪽에 밀집돼 있는데, 동쪽의 오름들은 백록담의 동릉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서쪽의 오름들은 이 곳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거리의 왼쪽에서부터 불래오름을 시작으로 어슬렁오름, 쳇망오름, 사제비동산이 이어지고 법정악, 거린사슴, 삼형제오름, 붉은오름, 천아오름 등이 보이며, 그 너머로 영아리오름, 다래오름, 한대오름, 더 나아가면 송악산, 산방산은 물론 비양도와 마라도, 가파도까지 한눈에 펼쳐진다. 1,600고지부터는 구상나무숲이 선작지왓 입구까지 이어진다. 구상나무는 지리산, 설악산 등 내륙의 고산 지대에도 간혹 분포되어 있으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라산에만 순림(純林)을 형성하고 있는 소중한 식물 자원이다. 등산로 바로 밑으로는 보기도 아찔할 정도의 깊은 벼랑이 이어지는데, 이곳을 병풍(屏風)바위라 부른다. 어찌면 설화 속에 나오는 500명의 아들을 기다리던 그 어머니가 숲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바위로 변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만든다. 구상나무숲을 통과하면 백록담이 보이는 대평원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산초원인 선작지왓이다. 갑갑하던 숲을 지나면 눈앞에 파란 하늘과 백록담, 윗세오름, 방애오름의 모습이 펼쳐진다. 선작지왓은 서쪽의 영실기암 능선으로부터 북쪽의 윗세오름 능선을 끼고 동쪽의 방애오름 능선에 이르는 1,600~1,700고지의 광활한 지역이다. 서귀포가 내려다보이는 남쪽은 삼림지대로 구분돼 있다. 등산로 왼쪽으로 오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만세동산과 윗세오름이다. 이 곳에서 윗세오름대피소까지는 10분 가량 소요되는데 거의 경사가 없는 평탄한 길이다. 등산로는 윗세오름과 윗세붉은오름 사이를 직각으로 돌아 윗세오름대피소로 이어지는데 그 전환점에 노루샘이 있다. 아침 일찍 노루들이 이 샘에서 목을 축인다고 하여 '노루샘'이라 불리는데, 여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선작지왓에 고산 습지를 이룬다. 영실등산로는 한라산의 보호를 위하여 윗세오름 너머의 정상 등반이 통제돼 아쉬움을 주지만 볼거리가 아주 많은 코스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봄이면 털진달래와 산철쭉, 여름이면 영실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신록, 가을이면 영실기암의 단풍, 그리고 겨울이면 영실기암에 얼어붙은 설화(雪花)와 구상나무, 눈꽃 터널 등 1년 내내 볼거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코스라 할 수 있다.

성판악코스

성판악코스는 한라산을 동쪽에서 오르는 코스로 경사가 완만한 반면 9.6km로 거리가 가장 길다. 등반 소요 시간은 편도 4시간 30분이다. 최근에는 연중 정상 등반이 허용되면서 등반객이 집중되는 곳이다. 성판악코스의 출발지점인 해발 750m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성판악지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횡단도로인 5·16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성판악코스를 개척하던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한국 최초로 백록담에서 생방송을 시도하려 했던 남양문화방송 편성부장 김종철은 성판악코스를 이용하여 장비를 백록담까지 등에 저 날랐다고 한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생방송은 하지 못했다고 함께 산에 올랐던 산악인 안흥찬은 회고한다. 그리고 5·16쿠테타 직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한라산 집중 등반을 실시했는데, 제주도 내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등반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성판악지소 광장에서 보면 동쪽 도로 건너에 아담한 오름이 있는데 바로 물오름이다. 물오름이라 불리지만 이 오름에는 물이 없다. 2000년에 이 곳에 주둔해 있던 국가기관이 이곳을 개방하여 오름 정상에서 주변의 오름 군락을 볼 수 있게 하여 도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어느 순간 이유 없이 폐쇄해버려 아쉬움을 준다. 성판악코스는 이 물오름 앞 광장에서 출발하여 한라산을 오르는 코스이다. 성판악코스라 불리지만 성판악은 등산로를 따라 2km를 올라가야 나타나는 오름(성널오름)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성판악지소를 출발하여 서어나무 등 활엽수가 우거진 등반로를 따라 1시간 20분 가량(3.5km) 가면 속밭(해발 1,140m)에 이른다. 이 곳은 1970년 이전만 하더라도 넓은 초원 지대로 진달래가 무성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후 무분별하게 심어진 삼나무로 지금은 사방이 짝 막혀버렸다. 1940년대 이 곳을 찾았던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은 이 일대를 가리켜 '한라정원(漢拏庭園)'이라 부르며 극찬한 바 있는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무어라 할지 궁금해진다. 1970년대 산림녹화(山林綠化)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심은 삼나무는 주위 식생을 파괴하며 음침한 숲 그늘을 만들어버렸다. 예전에는 등산로 북쪽을 큰속밭, 남쪽을 작은속밭이라 나누어 불렀다. 큰속밭은 북쪽으로 물장울, 태억장울에 이르는 광활한 벌판이었고, 작은속밭은 성널오름과 사라오름 사이를 아우르는데, 해발 1,100~1,300m 사이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벨트(belt)상으로 형성돼 있다. 겨울철 나뭇잎들이 떨어져 시야가 트이면 등산로 왼쪽 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오름이 성널오름이다. 오름의 동남사면에 높이가 약 30m, 폭이 약 300m에 이르는 대규모 수직 암벽이 있기 때문에 성널오름이라 불린다. 옛 문헌에는 '바위벽이 성벽과 같다(石壁如城板)'고 기록돼 있다. 한자로는 성판악(城板岳)이라 부르는데 등산 코스의 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속밭에서 40여 분(2.1km)을 더 가면 무인대피소(無人待避所)인 사라악대피소에 이른다. 해발 1,324.7m로 도내 화구호 중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사라오름이 등산로 왼쪽에 있다. 산정호수로 더 유명한 사라오름은 예로부터 제주도 최고의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곳에는 사라오름 동북쪽에서 나오는 생수를 1999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파이프를 이용하여 등반로까지 끌어와 등반객들이 마실 수 있게 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등산로에 식수가 없어 등산객들이 마실 물을 준비해야만 했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곳에서 다시 1시간 정도(1.7km) 올라가면 1,500고지의 진달래밭대피소(해발 1,540m)가 나온다. 대피소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상주하며 자연보호 활동과 조난자 구조, 등산 안내 등을 벌이는 한편, 간이매점이 있어 컵라면 등을 판매한다. 예전에 이 지역은 진달래밭이라 하여 털진달래가 많아 장관을 이루었다고 하나 지금은 제주조릿대 등에게 그 우위를 빼앗긴 지 오래다. 이 곳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의 동쪽 정상인 동릉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2.3km) 걸린다. 이 구간에서는 주변의 구상나무숲과 더불어 제주도 동부 지

역의 오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백록담 동쪽 지역의 구상나무숲은 우리나라 유일의 구상나무 순림을 자랑하는 한라산에서도 최대의 균락지다. 이 곳에서는 무작정 오를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올라야 한라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등반로 동쪽으로 사라오름과 성널오름이, 북쪽으로는 흙붉은오름과 돌오름이 발아래 펼쳐지고 그 너머로 쌀손장울, 태역장울, 물장울, 불칸디오름, 물오름,보 리악이 즐비하다. 더 나아가 도내 최대의 오름 밀집 지역인 동부 지역 중산간 오름들이 끝없이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성산일출봉과 우도에 가서야 그 눈길이 멈춰지는 곳이다. 이제 돌계단을 오르면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인 백록담 동릉 정상에 도착한다. 원래 1,950m인 백록담의 정상은 서쪽에 위치하나, 동릉 정상은 서쪽보다 17m가 낮은 1,933m에 불과하다. 백록담을 훼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1994년부터 자연휴식년제로 묶어 백록담에서의 순환을 통제했기 때문에 요즘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동릉 정상인 1,933m까지밖에 오를 수 없다. 정상에서 하산할 때는 올라왔던 성판악 코스로 되돌아가거나 북쪽에 위치한 관음사코스로 내려가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관음사코스

관음사코스는 한라산을 북쪽에서 오르는 코스로, 기록에 따르면 1841년 이원조 목사가 이 곳으로 등반에 나선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이용했던 등산로이다. 관음사야영장(해발 620m)에서 정상까지는 해발고도 차이가 1,313m이며, 등반 시간이 편도 약 5시간으로 가장 길어 지금은 일반 등산객보다 전문 산악인들이 즐겨 찾는 코스이다. 거리는 8.7km이고, 주변에 관음사라는 사찰이 있기 때문에 관음사코스로 불린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유일하게 취사와 야영이 허용된 관음사야영장에서부터 등반이 시작된다. 1995년 개장된 관음사야영장은 총면적 15,200평에 1,000명의 야영객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곳은 한라산이 원산지인 왕벚나무뿐만 아니라 산벚나무 등 다양한 벚나무류가 자생하고 있다. 등산로 오른쪽에는 하천이 울창한 숲과 함께 이어지는데, 30분 정도 올라가면 하천에 구린굴이 나타난다. 구린굴은 하천의 연결선상에 위치해 있다. 굴 위에도 여전히 하천이 형성돼 있고, 이 하천이 제주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병문천이다. 손인석 박사는 제주도 하천이 형성되는 한 형태를 구린굴로부터 설명한다. 구린굴은 하천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역사적 의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 조선시대 얼음을 보관했던 빙고(氷庫)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선 효종 때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원진의 『탐라지』에 보면 “빙고 - 한라산 바윗굴 속에서 언 얼음은 한여름에도 녹지 않는데 이것을 잘라다가 쓰므로 특별히 창고를 마련하여 저장하지 않는다(氷庫-漢羅山巖窟中所結永盛夏 不融 鑿來 給用 不別庫藏).” 라고 기록돼 있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는 14개의 굴(窟)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용진굴(10m), 어승생악에 있는 굴(250m), 구린굴(442m), 평굴(440m)을 빼면 모두 길이가 10m 이내이다. 용진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어승생악에 있는 굴은 일제시대 일본군이 만들어 무기고로 활용했던 곳이다. 바윗굴로는 구린굴과 평굴이 있는데, 구린굴의 중간은 2층 구조로 돼 있고, 2층에는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이 조그마한 샘물을 연상시킨다. 평굴은 높이가 0.3~3m로 낮아 사람이 드나들기에 불편함이 있다. 기록이 틀린 게 아니라면 제주목 관내 한라산의 동굴 중에서 빙고로 이용될 만한 곳은 구린굴일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구린굴 내부 바닥에 쌓여 있는 통나무들을 가리켜 일부에서는 얼음 밑에 깔았던 흔적이라고 견해를 피력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초창기 산악인들은 일제시대 일본군들이 동굴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웠던 통나무라고 말하고 있다. 구린굴에서 30분 정도 더 올라가면 탐라계곡이 나온다. 도중에 표고버섯 재배 시설로 버섯 균을 심은 나무를 담가두었던 연못과 예전에 숲을 구웠던 가마터 등도 보인다. 표고버섯 재배의 경우

한때는 제주도의 높은 소득원으로 각광받았으며 한라산의 여러 곳에서 성행했었는데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 아래 벌채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많이 쇠퇴했다. 솥가마터는 194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물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나무를 솥으로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다. 도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터가 나오는데 '박 씨(氏)표고밭'이라 불린다. 예전에는 이 곳에서 박모 씨가 표고 재배 장을 운영했었는데, 당시에는 대피소가 없던 시절이라 산악인들은 이 곳의 관리소에서 1박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조금 더 올라가면 탐라계곡이 나오는데, 계곡 직전에서 등산로가 아닌 왼쪽의 숲길로 들어서면 1960년대 후반 대학생들의 등산 대회 코스로 이용됐던 학사 코스로 접어들게 된다.

탐라계곡, 그 이름부터가 제주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 제주도의 주된 생활권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탐라계곡의 깊은 골짜기이다. 등산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하류로 500m 가량 내려가면 두 갈래의 지류가 합해지는데, 동쪽을 동(東)탐라계곡, 서쪽을 서(西)탐라계곡이라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예로부터 '큰내(大川)'라 불릴 정도로 그 규모가 깊고 큰 하천인 한천의 상류로, 탐라계곡은 관음사 코스를 바로 지척에 두고 백록담까지 이어진다. 동탐라계곡은 용진각을 거쳐 백록담 북벽으로 이어지는데, 최고의 깊은 골짜기를 자랑하는 계곡으로 관음사 코스를 등반하는 과정에서 두 번 만나게 된다. 개미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서탐라계곡은 삼각봉을 지나 큰드레왓의 절벽으로 이어진다. 등산로는 동탐라계곡과 서탐라계곡 사이의 능선으로 이어진다. 관음사 인근 산록도로변에서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형이 확연하게 보이는 곳이다. 동·서탐라계곡 사이의 능선을 옛 사람들은 개미에 비유했는데, 탐라계곡을 지나 소나무와 섞인 밋밋한 능선을 개미등이라 불렀고, 더 올라가면 삼각봉 직전 좌우로 동·서탐라계곡 폭이 좁아진 곳이 있는데 이 곳을 개미목이라 한다. 개미등은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억새와 보리수나무 등 키가 작은 식물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소나무 등 교목이 빼곡히 채워진 울창한 숲으로 변했다. 그 원인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라산에서의 방목이 자취를 감추면서 식생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미목은 탐라계곡에서 1시간 30분 정도(1.9km) 오르면 나타난다. 이어 삼각형으로 치솟은 삼각봉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등반객들을 압도한다. 옛 지도에는 연두봉(鵞頭峰), 즉 솔개의 머리라 했으니 얼마나 닮았는가를 음미해 볼 일이다. 삼각봉을 왼쪽으로 돌아가면 동탐라계곡으로 내려가는 사면이 나타나는데, 계곡으로 내려서면 쿵쿵 흐르는 물소리가 먼저 등반객을 반긴다. 용진각물이다. 해발 1,507.1m에서 샘솟는 용진각물의 하루 용출량은 360t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용진각대피소가 위치한 이 곳은 동서남 3면이 수직 절벽으로 치솟아 있고 북쪽은 탐라계곡이라는 깊은 계곡이 자리한다. 동쪽은 왕관릉, 서쪽은 장구목, 남쪽은 한라산 정상 북벽(北壁)이다. 우리나라 산악사 최초의 산악 사고가 일어났던 곳도 이 곳이다. 한편 계곡의 서쪽 경사면인 장구목은 한라산에서 눈사태로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용진각에서 볼 때 탐라계곡은 동쪽으로는 왕관릉이, 서쪽으로는 장구목이 자리한 협곡(峽谷)인데다 좌우가 70. 이상의 급경사 지역이다. 따라서 한번 눈사태를 만나거나 추락하게 되면 200m 이상 굴러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산악인들이 해외 원정 등반에 나가기 전 훈련 장소로 즐겨 찾기도 한다. 용진각대피소를 지나면 왼쪽으로 급경사의 돌계단이 계속된다. 30여 분을 오르면 왕관릉이 나타난다. 해질 무렵 서쪽의 장구목 능선에서 보면 붉게 물든 바위가 영락없는 왕관 모양이다. 왕관릉은 '연뒷돌'이라 불리기도 하고, 예전에 연대(煙臺)가 있었던 곳이라 전해진다. 실제로 조선시대 제주도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린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는 한라산 정상 바로 밑에 연대가 표시돼 있고, 1750년경 제작된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에도 연대가 표시돼 있다. 연대란 봉수와 함께 변방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기를

이용하여 위험을 알리는 방어 체제의 하나이다.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에 따르면 제주도 내의 연대와 봉수대는 63개소가 있었다고 한다. 연대가 38개소, 봉수대(烽燧臺)가 25개소다. 이 숫자 외에 별도로 한라산 중턱의 봉수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라산 허리에 하나의 봉수대가 있었고 해남의 백량(白梁)에 미치어 완급을 통보하였으나 해무(海霧)가 항상 자욱이 덮이므로 지금은 모두 철폐(撤罷)하였다.” 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기록에서는 한라산 중턱의 봉수대나 연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 존재 여부에 대해 지금도 논란이 많다. 그렇다면 왕관릉처럼 왜 이렇게 높은 곳에 연대를 만들었을까? 높은 곳에 연대를 설치했다는 것은 제주의 위급한 상황을 남해안을 통해 중앙 조정까지 알리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왕관릉의 서북쪽에 위치한 삼각봉도 옛 지도에서는 연두봉이라 표기되어 연대가 있었던 곳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삼각봉보다도 왕관릉에 더 큰 가능성을 두고 있다. 제주에서 목포까지는 88마일이다. 제주에서 연기를 피웠을 때 전라도 남해안에서 볼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금도 아주 쾌청한 날에는 한라산 중턱에서 남해안의 해남과 고흥반도까지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10여 차례는 된다. 생각해볼 일이다. 왕관릉은 바위로만 이루어져 연대의 존재 여부를 떠나 불을 피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왕관릉에서 백록담 정상까지는 평균 경사도가 27. 인 구상나무 숲길이 계속되는데, 대략 50분 정도 소요된다. 정상에 올라서면 제일 먼저 기암괴석들이 등반객을 반기며, 구상나무의 향기에 흠뻑 취하게 된다. 등산로 동쪽으로는 가까이에 흙붉은오름이 있고, 그 너머로 어후오름, 물장울 등이 펼쳐진다. 이제 정상이다. 김상헌의 『남사록』에 따르면 이 곳에서 한라산신제를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남사록』의 기록으로 보면 단(壇)이 설치될 위치는 이 곳밖에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기암괴석(奇巖怪石) 안쪽 사면으로는 송이층이 분포하는데, 계속되는 토양유실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녹화마대(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분해되는 재질로 만든 마대)를 이용하여 훼손지 복원 작업이 한창이다. 시로미와 돌매화나무 등이 드물게 자라는 곳이면서 백두산의 대명사 격인 들쭉나무가 있는 곳이다. 백록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서쪽 능선이다. 하지만 분화구 안 사면에 분포한 암석이 스코리아와 같이 쉽게 붕괴되는 돌 부스러기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무너져 내리는 등 훼손이 심각해지자 겨울철에도 동쪽 능선만 개방하고 있다. 비교적 고도가 낮은 북쪽 능선에는 비석이 하나 있다. 1948년에 발생한 4·3항쟁으로 통제됐던 한라산이 1955년에 개방되자, 이를 기념하여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를 세웠는데, 이는 제주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의미 있는 비석이다. 관음사 코스의 최종 종점은 백록담 동릉(東陵)이다. 성판악코스와 만나는 지점으로 분화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전망대 시설이 있다. 관음사코스는 한라산의 다른 등산로에 비해 많은 체력 소모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돈내코코스

한라산 횡단도로인 5·16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서귀포 직전에 제주도 하천으로는 드물게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돈내코 계곡을 만나게 된다. 이 계곡의 종류에 돈내코 야영장이 위치하는데, 이곳이 과거 한라산 남쪽에 있는 돈내코코스과 남성대코스의 출발지였다. 그러나 현재에 도로개설 등으로 돈내코코스를 이용하려면 해발 500m 일대의 공원묘지를 입구로 이용하여 해발 1,000m까지는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빗나무 유전자보존림, 해송 시험림 등을 따라 해발 1,000m 이상을 지나야 국립공원구역을 접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해발 1,000m까지는 낙엽활엽수림지역이며, 해발 1,000m 이상 지역은 소나무림과 부분적으로 관목림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돈내코 등산로는 지난 1994년부터 자연휴식년제 구간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전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더욱이 돈내코 등산로는 다른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에 비해 비교적 길고 등산객이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곳으로, 실제 한라산국립공원 입장객 통계를 시작한 1974년 이후 나와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이들 등산로는 남북정상을 향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훼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돌바닥, 돌계단 등이 과거 모습 그대로 있다. 또한 이 등산로에 설치 시기가 불확실한 대피소인 평지암대피소(평지귀)가 해발 1,500m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북정상에서 돈내코 코스로 2km 하산 지점에 위치하고, 30명 정도의 인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되지 않아 거의 폐허가 된 상태이다. 이 돈내코 등산로는 지난 2004년부터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산남 지역주민들의 개방요구에 따라 개방을 위한 사전조사 및 보호시설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승생코스

어승생악(해발 1,169m) 코스는 가벼운 등산을 원하는 탐방객이 즐겨 찾는 코스로 거리는 1.3 km,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뒤편에 입구가 있다.

예전에는 산악인들이 어승생악 정상에서 만설제를 지내기도 했다. 어승생악 정상에 서면 제주 시가지가 한눈에 보이고 동쪽으로는 멀리 성산일출봉부터 서쪽으로는 한림 앞바다에 떠 있는 비양도까지 펼쳐진다. 어승생악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한라산 정상과 주위의 오름 30여 개가 차례로 펼쳐진다. 백록담을 정점으로 하여 그 오른쪽으로 큰드레왓, 장구목, 윗세오름, 만세동산, 사제비동산, 민대가리동산, 족은드레왓, 헛망오름, 삼형제오름, 노로오름, 천아오름, 산세미오름, 발이오름, 비양도, 고내봉, 도두봉, 노루생이오름, 거문오름, 남짓은오름, 민오름, 사라봉, 별도봉, 열안지오름, 삼의양오름, 골머리오름, 절물오름, 바농오름, 개오리오름, 물장울, 쌀손장울, 태역장울 등이 쉼 없이 이어진다. 또한 어승생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산체가 가장 큰 오름으로 주변에 깊은 계곡이 발달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어승생악 정상에 올라 백록담 방면으로 보면 외도천의 상류인 'Y계곡'이라 불리는 어리목골이 한눈에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흔아홉골'이라 불리는 골머리계곡이 보인다. 어승생이란 이름은 임금이 타는 말인 어승마(御乘馬)에서 유래되었다. 1792년(정조 16년) 이 곳에서 용마(龍馬)가 태어났다. 조명검 목사는 용마를 왕에게 바쳤고, 왕은 그에게 노정(盧政)이라는 벼슬을 하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풍수설에 따르면 어승생악은 궁마어천형(宮馬御天形)·천마유주형(天馬遊駐形)이라 하여 하늘나라의 상제가 말을 타고 하늘을 달리는 형국이라고 전해진다. 그만큼 좋은 말이 이 곳에서 많이 생산되었음을 보여 주는 이야기들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들이 미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어승생악 중턱에 미로처럼 수많은 진지 동굴을 팠던 전적지였다. 지금도 정상에 서면 북쪽 바다를 향해 입을 벌린 일본군의 토치카가 말없이 옛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생태 체험 코스를 목적으로 등산로 곳곳에 식생과 동물 등 자연생태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동쪽으로 난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된다. 시간 여유가 없을 경우, 짧은 시간에 한라산의 묘미를 느끼고자 할 때, 어린이들의 체험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5년 현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어리목광장에 위치한 본소 1개소와 영실, 성판악지소사무소 2개소, 관음사안내소 1개소 등 모두 4개의 관리사무소가 각 지구별로 위치해 있다.

매표소

한라산국립공원 내 매표소는 어리목매표소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매표소가 각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입장료징수, 탐방객 안내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실 및 성판악지소의 매표소는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하여 별도의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차장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등 4개 등산코스 입구에 4개소와 1,100고지의 1개소 등 모두 5개소가 있으며, 총 면적은 17,537㎡에 주차대수는 362대이다. 어리목이 6,820㎡, 주차가능대수 151대로 가장 넓다. 주차장 관리는 모두 국립공원공원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으며 이 중 4개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어리목진입로 입구를 포함한 1,100고지 주차장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다.

야영장

한라산국립공원에는 1995년에 조성된 관음사지구 1개소의 야영장이 유일한데, 관음사 코스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총 50,248㎡의 면적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

음사지구야영장은 연평균 약 836명의 야영객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용객 또한 여름철 더위를 피해 놀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음사코스를 이용하여 등산하는 등산객이 적어 야영률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관음사지구 야영장의 주요 시설로는 화장실·취사장·샤워장·텐트 시설대·잔디광장 등이 있고, 이 중 텐트설치대는 야영장 조성 시 기존 산림을 이용하여 나무 그늘에 설치해 최적의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총 4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위치해 있으며, 이 중 자연발효화장실이 32개소로 7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세식화장실이다. 수세식화장실은 대부분 1979~1987년에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돼 현재 개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피소

한라산국립공원에는 탐방객의 안전과 휴식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 8개소의 대피소가 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일일 등·하산 원칙을 세워 추진하므로 대피소의 기능이 대부분 상실하였다. 윗세오름대피소 2동, 진달래대피소 1동, 용진각대피소 1동, 사라악대피소 1동, 탐라계곡대피소 1동, 평귀대피소 1동, 어리목대피소 1동을 제외한 나머지 대피소는 철거하였다. 또한 위의 대피소 중 윗세오름 통나무 대피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피소도 시설이 노후하여 개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관관리 공원시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모두 3개의 민간 단독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 휴게소는 민자 유치로 인하여 국립공원 지정 초기인 1979년도에 대부분 설치되었으며, 탐방객이 집중하는 탐방로 변에 위치하여 탐방객을 상대로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3개소 모두 오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발생하는 생활 오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1개의 휴게소만이 존재함으로써 독점으로 인한 불친절 영업행위 등의 경우가 있어 국립공원관리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제2장 한라산의 산악활동사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한라산은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성산 일출봉에서 떠오른 해는 하루 종일 한라산 자락을 맴돌다가 고산 수월봉 너머로 소멸해 가는데, 해돋는 순간과 해넘이 순간에도 해는 언제나 한라산과 눈맞춤을 한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 한라산은 섬의 한가운데 해발 1,950m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라산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신성한 존재였다. 그래서인지 제주도민들에게 한라산은 오르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산이라기보다는 제주사람들의 생사고락을 관장하는 신(神)들이 거처하는 곳, 곧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져 현대적 개념의 등산은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라산에 등산 형태의 입산이 이루어지는데, 한라산 정상에서 국가의 번영과 백성의 안민을 기원하는 제사 의식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 현대처럼 등산로가 나 있지 않은 시절에는 한라산을 오르는 데 이삼 일이 걸리는 난코스였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원제는 연초에 행해지기 때문에 매서운 겨울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 사상자도 생겨났다. 요즘처럼 고성능의 방한장비를 갖추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연유 때문에 한라산 정상에서 지내던 제사의식은 현재의 산천단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한라산 정상으로의 등산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주인공은 제주에 부임한 목사 이거나, 제주에 유배 온 정치적 인물 등이다. 조선시대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문인(文人)들이었다는 점이다. 과거를 통해 정치권에 입문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터라, 전국의 유명한 경치를 둘러보며 시를 읊는 것이 당시 문인들의 특권이었다.

특히 한라산이 어떤 곳인가. 예로부터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영산(靈山)으로 불렸고 북녘의 끝자락 백두산과 더불어 이 땅을 수호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산이 바로 한라산이었다. 또한 중앙집권적 시대에 한라산은 마음만 있을 뿐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절해고도에 있었던 산이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곳이었기에 부임한 목사나 유배에서 풀려난 정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라산에 올랐을 것이다. 조선 최고의 시인이라 알려진 백호(白湖) 임제(林梯)나 구한말의 의병장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등이 한라산을 올랐던 대표적 인물이다.

원시림으로 들어선 당시의 한라산을 혼자 오를 리는 만무했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한라산 등정기록을 살펴보면, 많은 짐꾼과 현지 안내인을 앞세워 지금의 영실 지경에 있는 존자암지에 머무르다가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정상으로 향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처럼 기상악화에 대비한 산장 시설이 없어서, 수행동(修行洞)이란 불리던 영실 존자암지가 한라산 등산의 전초기지였던 셈이다. 더구나 영실 지경은 한라산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곳 중의 하나여서 시인 묵객(墨客)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당시의 등산은 현대적 의미의 등산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상 등정이나 산악훈련이 아닌 그저 경치를 감상하는 유람의 성격이 강했다. 예로부터 신들의 거처라 여겨지던 곳을 찾아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기던, 말 그대로 유람(遊覽)의 성격이 짙었다. 한라산 정상에 백록담 외벽에는 화산폭발 당시 형성된 단단한 현무암벽이 있다. 바위벽에는 조선시대에 이곳을 거쳐간 시인 묵객들이 글씨를 새긴 마애각(磨崖刻)이 남아 있는데 일종의 다녀간 기록, 곧 방명록(芳名錄)인 셈이다.

1 한산의 동계 첫 조난사

조선시대의 한라산 등산이 이러한 유람적 성격이 강했다면, 현대적 의미의 등산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의 일이다.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국내의 북한산이나 백두산, 금강산 등지에서 정상정복을 위한 등반방식과 암벽 등산로 개척에 열을 올렸다. 알프스에서 시작된 현대적 의미의 등산운동, 곧 산을 정복함으로써 인간의 영역을 넓히는 서구 알피니즘(Alpinism)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 알피니즘에는 당시 제국주의를 표방하던 세계열강들의 자국 팽창의식이 숨어 있었다.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험준한 산을 정복함으로써 자국(自國)의 우수성을 만천하에 증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반도를 점령하고 중국 대륙까지 넘보던 일본 제국주의도 이처럼 국내의 산을 정복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다. 한라산에 대한 첫 동계등산(冬季登山)은 1936년 벽두에 당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산악부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한라산에서의 적설기(積雪期) 동계등산은 말 그대로 전인미답(前人未踏)의 황무지에 다름 없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라산은 해발고도가 1,950m로 지금처럼 횡단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한라산 등산은 해안가에서부터 정상까지 발품을 팔아야 올라갈 수 있었다. 현재의 산천단 정도가 등산의 시작점인 셈이다. 지금처럼 잘 닦인 등산로도 없던 시절, 눈 쌓인 한라산을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등반대는 이를 위해 1935년 여름부터 등반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조선총독부 내 철도국 직원이 동원되었는가 하면 11월에는 제주영림서에서 한라산의 어깨 높이에 있는 개미목에 집을 지었다. 이른바 개미목 산장인데 현재의 관음사 코스 용진각(龍鎮閣) 지경이다. 이 산장을 지은 것은 당시 제주영림서인데, 제주지역의 산림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셈이다. 국가기관에서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등반을 위해 산장을 설치하는 등 전폭적으로 등반대를 지원한 것은 동계 한라산 최초의 정상정복을 위해 일본정부가 암묵적으로 지원했다는 반증인 셈이다.

대학생과 철도국 직원 등 9명으로 결성된 당시 등반대는 현재의 관음사에서 한라산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당시 경성제대산악부의 등반 소식을 듣고, 한라산 동계 초등반이라는 영예를 위해 일본의 나니와(浪速)고등학교 산악부원 3명이 이 등반에 합세하게 되었다. 이들은 결국 경성제대와는 반대 방향인 서귀포에서 출발하기로 하고, 1월 1일 이전에는 정상에 서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한라산의 겨울 초등반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한겨울의 한라산은 결코 녹록한 산이 아니었다. 개미목 산장에서 정상 직전의 화구벽(火(x)壁)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했던 경성제대 산악부는 갑자기 한겨울 한라산의 폭풍설에 갇히고 말았다. 바다에서 불어와 거칠 곳 없는 바람은 한라산 정상을 할퀴듯이 지나갔고, 눈조차 뜰 수 없게 만드는 눈보라가 사정없이 휘몰아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의 백록담 텐트 속에 있던 등반대원들은 과감히 산장으로 하산을 감행했다.

불행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설(暴風雪) 속에서 체력마저 떨어진 그들에게 하산 길도 쉽지않은 않았다. 결국 하산 도중 등반대원 중 한사람인 마에카와 도시하루(前川智春)가 실종되고 말았다. 마에카와(前川)는 한라산 등산 역사에서 공식적인 첫 조난자인 셈이다. 겨울 한라산의 첫 등정이라는 영예를 안았던 대학생 마에카와는 이국만리(異國萬里) 머나먼 땅에서, 겨울 산의 폭풍설 속에서 스무 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당시 실종된 마에카와를 구조하기 위해 대원들은 개미목 산장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심지어

산장에서 길을 잃어 하산한 것을 가정하여 탐라계곡까지 수색했다. 그러나 마에카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해 봄 겨우내 쌓였던 한라산의 눈이 녹고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나던 무렵, 마에카와는 개미목 산장과 불과 150m 떨어진 숲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한라산 겨울 첫 등반은 그렇게 끝났다. 등반이 끝나고 이 등반을 이끌었던 등반대장 이즈미 세이치(泉靖一)는 충격을 받았다. 구조 당시 제주의 이름난 무속인(巫俗人)이 마에카와는 5월에 발견된다고 예견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이즈미(泉)에게 그런 예견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 그러다가 서울에서 마에카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그것도 무속인이 예견한 그 5월에.

이 사건으로 이즈미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동경(東京)으로 돌아가 전공을 바꾸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문화인류학이었다. 제주도에서 한 무속인으로부터 받았던 문화적 충격이 앞날이 창창한 한 젊은이의 보장된 장밋빛 진로까지 바꾸어놓은 셈인데, 이즈미는 이후 수차례 제주도를 오가며 제주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학에 심취했다. 1960년에 이즈미는 제주도의 민속과 문화를 담은 『제주도』라는 책을 펴냈다. 이후에도 이즈미는 동양의 민속에도 계속적인 연구 활동을 펴서 일본의 문화인류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선구자로 존경받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인문학자들이 『이즈미 평전』을 써내었는데, 이는 이즈미의 사상과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한라산에서의 한 젊은이의 죽음이 낳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만하다.

2 1940~1950년대의 산악활동

1940년대에 들면서 제주농고의 학생들이 극기 훈련의 일환으로 한라산을 등정했다. 이 전통은 1980년대까지 제주의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행해졌는데, 밀바탕을 들여다 보면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의 군사문화의 한 단면을 보는 듯싶다. 곧, 등산이라는 노동을 통하여 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극기 훈련을 통한 강인한 남성성을 키우려는 군인정신의 발로로서, 일제시대에서부터 흘러온 것이었다. 당시 정상에 올라 기록으로 남긴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똑같은 모자와 의복과 신발을 신고 있다. 기록상에 학생이란 기록이 없었다면 영락없는 군인의 모습이다. 이러한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었던 학생들의 한라산 등산은 해방 이후 제주도 일주로 대체되었다가 4·3 항쟁의 발발로 중단되고 말았다.

해방이 된 후 일본군들이 제주도에서 물러가자, 일부 도민들에 의한 한라산 등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에는 전문적인 산악단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카메라 등 기록장비가 귀한 시절이어서 당시의 등반기록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와중에 진정한 한국의 산악인들에 의한 현대적 의미의 한라산 등반이 시작된 것은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그 이듬해의 일이다. 일정시대, 일본의 산악회원들과 경쟁하듯 한국의 산악인들이 한라산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46년, 우리나라 산악단체의 선구자격인 한국산악회에 의해서이다. 물론 일정시대에도 조선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백령회'가 일본산악인들과 경쟁하면서 일제강점에 대한 무언의 저항운동을 펼쳤다. 당시 백령회는 북한산과 금강산 등지에서 암벽코스를 개척하는 등 활발한 산악활동을 펼쳤다.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백령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산악인들은 해방된 지 한 달 후인 9월 15일에 종로 YMCA 강당에서 '조선산악회'를 창립했다. 해방된 나라에서 처음 생긴 산악단체인 셈이다. 후에 조선산악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회명을 한국산악회로 개명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산악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등 민족정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던 한국산악회는 해방과 더불어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국토규명운동을 1차적 목표로 내세웠다. 그 동안 마음대로 여행조차 할 수 없었던 식민지를 벗어나 해방된 조국의 땅을 답사하고자 했던 애국심의 발로였다. 그 첫 목표가 바로 한라산이었다.

국토규명사업의 첫 목표를 한라산에 둔 것은 당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일제치하에서도 백두산과 금강산 등은 같은 대륙에 있어, 일체 치하에서도 등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라산은 우리 국토의 최남단 섬에 있어, 그 만큼 접근이 어려웠다. 더구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 제주도를 미군과의 마지막 옥쇄작전을 위한 병참기지화에 열을 올리던 때라, 한라산을 등산한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해방 이듬해인 1946년 2월 한국산악회 국토규명사업을 위한 한라산 학술등반대가 해방 이후 적설기 한라산 등반의 첫 주인공이 되었다. 이 등반대는 한국산악회 초대회장인 송석하 대장을 비롯하여 당시 백령회 활동을 주도했던 전문산악인 김정태를 비롯한 주형렬, 신업재, 이재수, 채숙, 박순만, 현기창, 이용민, 임병호 등 산악인 10명과 학술조사단원 조명기(민속), 윌리엄 케르(William L. Kerr, 고고학), 김수경(사회), 메이슨(Russel C. Mason, 미군 중위), 크네스피치(E. I. Knethvich, 미군정청 문화교육국장 고문관, 민속), 임동혁(녹음), 양재용(방송국), 이원익(방송국), 이천기(방송국) 등을 포함하여 19명이 참여했다. 이 학술조사단에는 당시 제주도에서 학술조사활동에 심취 중이던 석주명 박사가 현지에서 합류했다.

1936년에 나비채집을 위해 제주를 찾았던 석주명은 당시 서귀포에 있었던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에서 근무하면서 제주도에 관한 학술조사에 심취해 있었고, 마침 제주도를 찾아온 한국산

악회의 학술등반대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석주명은 이후에도 한국산악회 학술담당이사, 한국산악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산악회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이 등반대에는 미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케르 등을 비롯한 미국인 3명이 동행했는데, 미군정하에 있었던 당시라 이 등반대가 이용한 배편도 미국의 LST(미군특별수송함)였고, 제주에서도 미군 트럭을 이용했다. 나라 잃은 설움에서 벗어나 독립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외세에 의해 간접적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등반대는 스키를 이용하여 한라산을 등반함은 물론 19일 동안 한라산과 제주도의 민속 및 생태조사활동을 병행하며 한라산에 대한 첫 조사연구 등산이란 기록을 남긴 셈이었다. 등반 후 학술등반대는 그해 6월 서울 남산의 국립과학관에서 등반대의 이용민 대원이 촬영한 기록영화 『제주풍토기』를 상영했다.

학술등반대가 미군 수송선을 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1946년 3월 1일이었다. 3월의 한라산은 아직도 겨울이 물러가지 않은 때였다. 당시 전문산악인들이 겨울 적설기 등반에 나설 때는 스키가 필수적이었다. 알피니즘의 본고장인 알프스에서부터 흘러들어온 등산문화였기에 겨울 등반을 위해 스키 타는 기술은 등반의 필수과목이었던 셈이다. 사실 눈 덮인 산으로 접근할 때 가장 용이한 방법이 바로 스키 등반이었다.

당시 김정태를 비롯하여 한라산학술등반에 참여했던 산악인들은 대부분 스키에 능통했다. 한라산에 오르기 전, 이미 그들은 겨울철의 백두산과 관모봉, 금강산 등 북한의 산과 지리산에서의 겨울 등반으로 적설기 스키 기술을 익혀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해방과 더불어 38선이 고착화되면서 남과 북의 왕래가 어렵게 되자, 이들의 관심이 비로소 한라산에 쏠리게 된 것이다. 특히 한라산 정상부는 3월에도 눈이 남아 있어 남한 내에서는 유일하게 그 시기에 적설기 스키 등반을 할 수 있었다.

등반대는 비 오는 날씨 속에서 제주읍에서 4일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한라산 등반길에 올랐다. 출발지는 해발고도 600m의 관음사. 19명의 대원들은 3명의 인부(짐꾼)를 대동하고 선발대와 본대로 나뉘어 개미목, 지금의 삼각봉 인근을 향해 올랐다. 출발 당시에는 비가 내렸으나 해발 1,000고지 이상에서는 눈으로 바뀌었다. 당시 개미목에는 30cm의 눈이 덮여 있어 스키 등반이 가능했다.

개미목에 베이스캠프를 친 등반대는 다음날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한라산의 겨울 날씨였다. 날씨는 갑자기 사나운 폭풍설로 변하고 말았다. 등반대원 중에는 겨울 등산이 처음인 학술조사원들이 있었으므로, 등반대는 등반을 포기해야 했다. 김정태를 비롯한 베테랑 산악인 4명만이 왕관능을 향해 올랐고, 나머지는 텐트가 있는 개미목으로 후퇴했다.

선발대들도 고전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왕관능에 급경사를 이룬 사면이 빙판을 형성하고 있어서 스키 등반이 불가능했다. 일행들은 스키를 지금의 용진각에 놓아 두고 아이젠을 착용하고 왕관능에 올랐다.

왕관능에 캠프를 친 선발대는 다음 날 새벽, 용진각에 두고 온 스키를 가지고 정상으로 향했다. 김정태, 신업재, 이재수, 이용민 등 4명의 대원은 스키를 타고 왕관능을 거쳐 백록담 동릉 정상에 섰다. 이용민 대원은 가지고 간 영화 필름으로 백록담의 전경 등을 촬영했다. 정상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베이스캠프가 있는 개미목으로 내려섰을 때, 또 다시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사방을 가득 메운 자욱한 안개로 1~2m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들은 서둘러 하산을 결정하고 본대가 있는 개미목으로 내려왔다.

개미목은 그나마 폭풍설이 심하지 않았다. 스키에 능통한 김정태, 박순만, 주형렬 대원이 탐라

계곡으로의 하산을 위해 스키를 타고 계곡을 정찰했다. 그러나 탐라계곡 중단부의 3단 폭포에서 이들은 계곡으로의 하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다시 개미목으로 오른 후, 능선을 따라 하산했다. 이 때 정찰했던 탐라계곡의 3단 폭포는 2년 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기록될 한라산에서의 조난사고 장소가 된다.

한국산악회의 1차 학술등반 이후 제주 4·3의 전운이 감돌던 1948년 1월, 한라산에는 1차 학술등반대에 이어 한국산악회 소속 5명의 대원들이 입산했다. 그들은 1차 등반대가 본격적인 한라산의 적설기가 아닌 3월에 이루어졌으므로, 진정한 한라산 적설기 등반기록을 남기기 위해 벽두에 한라산 적설기 등반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당시의 한국산악회 기록을 보면, 1947년 말부터 전락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산악회 내의 젊은 회원들 사이에서 한라산 적설기 등반을 산악회의 공식행사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산악회 내부에서는 적설기 등반 경험이 풍부한 대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적으로 등반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젊은 회원들의 한라산 적설기 등반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자, 경험이 풍부한 현기창 대원을 등반대에 합류시키기로 하고 산악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등반대가 꾸려지게 된 것이었다.

1차 대원과는 달리 2차 대원들은 학술조사보다는 순수한 등산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순수한 산악활동으로서 눈덮인 한라산을 스키로 횡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전락 대장을 비롯해 현기창, 박종대, 남행수, 신방현 등 한국산악회원 5명으로 구성된 등반대는 당시 제주도로 급파되던 서북청년단들과 함께 목포에서 제주의 산지향으로 입항하여 관음사코스로 한라산에 올랐다. 이들의 목표는 백록담을 넘어 서귀포로 건너가는, 그야말로 최초의 한라산 횡단등반이었다.

당시 한라산에는 보기 드물 만큼 많은 눈이 내렸다. 1월 6일 제주에 들어온 등반대는 1월 11일 관음사에 도착했다. 다음 날 인부 3명을 대동한 등반대는 탐라계곡을 건너 개미등에 올라섰다. 개미등에는 일제시대 경성제대 산악부의 적설기 등반시 설치한 산막 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일행은 인부 3명을 하산시킨 후 이 곳에 텐트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정상 등반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등반대는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적설량이 많은 상태에서 눈 까지 얼어붙어 있어서 등반대는 아이젠을 착용하고 등반에 나섰다.

왕관능에 올라서면서 등반대는 12년 전 한라산 적설기 초등을 이뤄낸 후 이 곳에서 조난사한 마에카와 도시하루의 조난기념비를 지났다. 왕관능을 올라선 일행들은 비스킷 등으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오후 4시 경, 정상에 올라섰다. 그러나 정상 등정의 기쁨도 잠시, 정상에 서자 날씨는 급변했다. 거센 바람에 설치한 텐트가 무너져 내렸다. 등반대원들은 스키를 이용하여 텐트를 고정시키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거센 눈보라를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바람이 적은 곳을 찾아 텐트를 이동해야만 했다.

그토록 원했던 한라산의 적설기 등반에 나섰던 한국산악회의 젊은 대원들은 한라산 정상에 휘몰아치는 폭풍설과 싸워야 했다. 폭풍설은 그칠 기미가 없는 가운데, 텐트 안에 모여 앉은 대원들은 교대로 텐트를 압박해 들어오는 눈을 치워내기에 바빴다. 텐트 밖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 옷은 뽀뽀하게 굳어 얼어붙은 동태와도 같았다.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등반대는 서귀포 방향으로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거센 눈보라 때문에 도저히 정상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던 전락 대장은 눈보라 때문에 눈조차 제대로 뜯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전 10시 경 잠시 눈보라가 멈춘 사이 대원들은 눈에 묻힌 텐트에서 장비를 꺼내 하산을 시도했다. 텐트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남벽으로의 하산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맑은 날 남벽을 정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곳을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더구나 남벽은 300m가 넘는 수직 암벽이 버티고 있었다. 자일을 이용하여 하산을 시도했던 등반대는 과감히 서귀포 방향으로의 하산을 포기하고 다시 백록담으로 귀환해야만 했다. 당시 산악회의 기록에, 얼어붙은 신설 위로 새로운 눈이 1m 50cm나 쌓인 상태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바람에 날린 신설(新雪)들이 바람이 막힌 지형으로 몰려가 쌓인 탓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관상청의 자료를 보면 이 날 제주도에는 순간 최대 풍속 32여m의 돌풍이 불었다고 한다. 산지향에 정박되어 있던 수송선에서도 두 명의 군인이 바람에 날려 익사했다고 하니, 거센 돌풍이 한라산 정상에 불었던 것이다. 한국산악회의 기록에는 현기창 대원이 배낭을 맨 채 바람에 날렸다 떨어졌다고 한다. 그 만큼 눈보라가 거세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타원형의 백록담 속을 눈보라 속에서 헤매던 등반대는 가까스로 백록담 북벽에 도달했다. 평소에는 10분이 걸릴 거리였지만, 4~5m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때문에 북벽에 올라서는 데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정상에서도 바람은 멈출 기세가 없었다. 관음사 방향으로 하산을 시도했지만, 이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몇 시간을 눈보라 속에서 하산하던 일행은 기진맥진했다. 안개 속에서 눈을 파내어 바람을 피하고 담요를 덮었다. 옷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다. 온 몸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불조차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 대원들은 추위에 몸을 떨었다. 이런 와중에 전탁 등반대장이 복통을 호소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대원들은 밀려드는 졸음을 아내기 위해서 점호를 외치며 폭풍설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눈보라 속에서 영원히 잠들지 않기 위해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것 밖에 없었다.

그렇게 눈보라 속에서 밤을 지새운 등반대는 다음 날 키슬링과 스키 일부 등 무거운 짐을 모두 놓아둔 채, 비상식량 등 필수품만을 휴대하고 신속한 하산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여 몸을 녹이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300여m를 그렇게 미끄러지듯 내려오자 왕관릉 표지가 보였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탈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용진각의 산막 터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눈 사면을 내려온 대원들은 허망했다. 워낙 많은 눈이 내린 용진각의 지형은 출발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게다가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탈진한 상황에서 용진각에서 개미등으로 올라서는 비탈을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전탁 대장은 몽롱해지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대원들에게 스키 스톱으로 두들겨 달라며 하산을 하고 있었다.

등반대는 깊은 눈을 헤치며 개미등으로 전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탈진한 대원들은 자꾸만 탐라계곡 쪽으로 흘러 내렸고, 전진은 더디기만 했다. 결국 등반대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탐라계곡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그 길만이 지친 몸을 이끌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비교적 컨디션이 좋은 현기창, 신방현 대원이 스키를 신고 하산하여 구조를 요청하기로 하고, 박종대, 남행수 대원은 전탁 대장을 양쪽에서 부축한 채 탐라계곡으로 하산을 시작했다.

내리막길이라 해도 계곡의 지형은 울퉁불퉁 솟아 있는 바위 때문에 걷기가 힘들기는 매한가지였다. 눈과 얼음으로 얼어붙어 두툼해진 바지 때문에 몇 번이고 눈 속에서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하산하는 일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이미 탈진한 전탁 대장을 부축해서 내려오면서도 선발대에게 '야호'를 외쳐댔다. 혹시 구조대가 이를 들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에 기댄 채, 대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지친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 사위는 어두워져 사방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밤 9시 경 부축을 받으며 내려오던 전락 대장이 몸을 움찔거렸다. 그것은 고통의 끝에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순간과도 같았다. 두 대원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락 대원을 누이고 호흡을 확인했다. 뻣뻣하게 얼어붙은 장갑을 두른 손목 둘레에는 얼음의 테두리가 엉겨 붙어 있었다. 이미 맥박이 멈추어 있었던 것이다. 폭풍설 몰아치는 험준한 계곡에서 전락 대장은 한라산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조난사고는 한라산에서의 한국인 최초의 조난사고였으며 광복 후 첫 적설기 조난 사고였다. 1월 16일 밤이었다.

남행수, 박종대 대원은 전락 대장의 시신을 지키며 하얀 눈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혹시나 하는 희망에 야호를 외쳤으나 들리는 것은 겨울 산의 적막한 바람소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스키 스톱으로 시신이 있는 곳을 표시하고 주변의 지형을 가슴에 담은 두 대원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700여 m 쯤 하산하자 폭포가 나타났다. 탐라계곡의 삼단폭포였다. 수직절벽을 이룬 10여 m의 절벽이 놓인 것이다. 마침 구조를 요청하러 스키를 신고 하산하던 두 대원도 이 절벽에 가로막혀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원들은 절벽을 우회하여 능선으로 올라섰다. 피켈로 얼어붙은 눈 비탈을 깎아내어 발 디딤을 만들며 계곡을 빠져나왔다. 눈으로 뒤덮인 산은 황홀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대원들의 눈에 풍경이 들어올 리 없었다. 네 명의 대원은 쉬지 않고 눈 덮인 숲속을 내려갔다. 가도 가도 길은 끝날 기미가 없었다. 허기진 배를 비스킷 한 조각으로 달래며 하산을 계속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구름 사이로 관음사 건너편의 삼의양 오름이 희미하게 형체를 드러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사고 다음 날 밤 9시가 되어서야 기진맥진한 채 관음사에 도착했다.

조난신고를 접수한 제주경찰청에서는 기동대원 10명과 소방대원 10명으로 구조대를 편성하여 담요와 들것을 준비하여 다음 날 오후 관음사에 도착했다. 4명의 대원들은 구조대원들이 타고 온 트럭에 실려 도립병원으로 옮겨졌다. 대부분의 대원이 동상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한라산에서 최초로 희생된 전락의 시신은 한국산악회의 회원들에 의해 3월 15일 조난지점에서 발견됐다. 3월 20일 관음사에서 한국산악회의 홍종인 부회장과 산악회원, 전락의 유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비식이 거행되었고, 3일 후에 합장영결식이 열렸다. 그로부터 열흘 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4·3 무장 항쟁의 서막이 올랐다.

4·3항쟁이 발발하자 한라산은 주로 무장대의 거점지로 이용되었다. 이른바 무장대의 본거지가 한라산이었던 셈이다. 일제시대 일본군의 옥쇄작전을 위한 어승생의 참호 등이 무장대의 기지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경찰과 무장대 간의 유혈충돌로 인해 제주도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한라산 등반은 전면적으로 통제되기에 이르렀다.

그해 10월 제주도 경비사령관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중산간에 있는 산록의 마을 주민들 또한 해안마을로 강제이주하기에 이르렀다. 한라산의 산악운동은 해방 후 제대로 된 싹을 키워보지도 못한 채 사회적 혼란 속에 빠져들면서 한라산 등반사는 단절의 시대에 접어들고 말았다. 게다가 6·25까지 겹치면서 한라산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암흑기를 맞았고, 1954년 9월에 이르러서야 한라산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시 언론인이던 김종철(金鍾喆)과 식물학자인 부종휴(夫宗休)와 고영일(高瀛一), 현임종(玄林鍾) 등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경찰을 대동하여 한라산을 출입하였다. 제주산악계 1세대를 이루는 이들의 한라산 등반은 훗날 한라산이 개방되면서 제주도에 산악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6·25동란이 끝나고 한라산이 평화를 되찾게 되면서 한라산에서의 산악운동에 본격적으로 시동

이 걸리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중앙부에 우뚝 솟아 있어 제주도민들에게는 신앙의 모태였던 한라산으로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돌아온 한라산의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 120명의 제주대학생들이 단체로 한라산을 오르다가 하면 제주도 내의 각 기관장과 제주신문사 직원들이 한라산을 올랐다. 이를 기화로 제주도 내의 각 단체별로 한라산 등산대회가 개최되는 등 한라산 산악운동의 여명기가 도래했다. 그렇지만 산악회 조직 등 전문적인 등반은 그로부터 5년 뒤에 시작된다.

당시 서울에서는 종전 후 본격적인 산악운동이 일어났다. 각 대학별로 산악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토를 순례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48년 한라산에서 적설기 조난사고를 당한 바 있는 한국산악회에서는 1956년 1월 당시의 조난사고를 기념하고, 또한 이를 설욕하고자 한라산 적설기 등반대를 파견했다.

1953년 영국 팀이 이끄는 에베레스트(Everest) 원정대가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섰다는 보도가 국내에도 전파되었다. 8,848m의 지구 정상에 인간이 올라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악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또한 일본이 히말라야(Himalaya)의 마나슬루에 등반대를 파견하는 등 해외에서는 활발한 해외원정 등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한국산악회에서도 해외원정을 염두에 둔 훈련등반이 절실했다.

휴전선으로 길이 막혀버린 백두산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선정된 곳이 한라산이었다. 더구나 한라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타고 등반훈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또한 겨울철 한라산의 지형과 악천후는 히말라야와 비슷해서 원정등반을 위한 훈련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1948년 한국산악회의 적설기 훈련에서 대장이 조난사(遭難死)하는 등 한국산악회로서는 유서가 깊은 곳이었다.

등반대는 한라산 적설기 등반을 위해 지형에 맞는 텐트를 설계하여 제작하는 등 세심한 준비를 했다. 스키 등반을 위해 오르막을 오를 때 스키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씰(Seal :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든 것)을 준비하는가 하면, 목이 긴 피켓, 아이젠, 오버슈즈 등의 전문적인 장비들도 마련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등산장비들은 미군용 장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한국산악회에서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방편으로 미군의 장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장비들을 자체 제작하거나 별도로 조달했다. 또한 등반에 필요한 식량 등도 미군용 시레이션에 한국식단을 가미하는 등 식량을 개선하는가 하면 등반 1개월 전부터는 남산에 모여 체력훈련까지 실시했다.

대원의 선발에도 신중을 기했는데, 대학산악부 내의 유능한 회원들도 포함하여 베테랑 산악인 23명을 구성했다. 등반대는 대장에 당시 한국산악회 회장인 홍종인을 비롯하여 등반대장에 김정태, 김정호(남벽 리더), 엄익환(장비), 손경석(은행), 이희성(수송), 안종남(식량), 남행수(베이스), 임석제(보도), 정원(기상), 이문종(기상), 이민재(의료), 김용웅, 한태균, 정정권(통신) 등 한국산악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1948년 조난사한 전택의 조카인 전담과 김연덕, 고성환, 김영윤, 김효근 등이 합세했고, 이화여자대학 사범대학산악부의 유은산, 탁순애, 박원경 등이 동행했다. 총 23명의 대원이었다.

등반대가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1956년 1월 5일. 관음사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등반대는 4개조로 나뉘어 눈 쌓인 한라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A조는 김정태를 리더로 엄익환, 손경석, 전담 대원, B조에는 이희성, 안종남, 김연덕, 고성환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2개조는 개미등 코스, 지금의 관음사코스를 통하여 개미목까지 교대하며 등산로를 뚫었다. C조는 김정호, 김영윤, 김효근 대원이 맡았는데, 이들은 서귀포에서 출발하여 남성대코스를 통해 정상 남

쪽인 남벽 안부에 캠프를 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48년 2차 적설기 등반의 목표였던 한라산 횡단등반을 위한 것이다.

홍종인 대장을 비롯한 남행수, 정원, 이문종, 이하영과 이화여대사대 산악부원들이 무전반과 같이 등반대를 지원하는 수송대를 맡았다. 이 등반대의 학술부분을 맡은 이송녕 박사는 제주도를 일주하며 제주도의 방언을 조사했다.

1월 13일이 되어 A, B조가 정상공격을 하는 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라, 서양에서는 금기의 날이라고 해서 정상공격은 다음 날로 미뤘다. 다음 날 아침 두 개의 정상공격 조는 정오 무렵 백록담 정상에 올라섰다. 정상에 선 이들은 고(故) 전택 대장의 뜻을 기리는 뜻에서 손경석, 김연덕, 전담 대원을 남벽코스로 하강하게 했다. 40여kg에 이르는 배낭을 지고 남벽의 등산로를 스키로 내려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었다. 앉았다 일어설 때도 누군가 들어주어야만 했을 정도였다. 남벽 아래에는 서귀포에서 올라온 C조가 기다리고 있었다. 3명의 스키 하강 조는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C조가 있는 캠프에 도착했다. 숙원이던 한라산 스키 횡단등반이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이 등반은 사실상 한국의 산악운동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해방 이후 행해지는 산악운동의 규범이 될 만한 것이었다. 등반의 준비 단계인 인원과 장비의 선정에서부터 등반 일정, 체력훈련 등을 통하여 알피니즘이라는 새로운 산악운동이 국내에 전파된 이후, 산악인들 스스로 그 운동의 실천을 모범적으로 행한 등반이었던 셈인데, 그 등반의 대상지가 바로 적설기의 한라산이었다.

또한 이 등반이 끝난 후 등반대는 서울에서 각 분야별 보고회를 가졌는데, 기록사진과 장비전시회, 컬러슬라이드 필름에 음악과 해설을 녹음한 싱크로나이즈 보고를 함으로써 산악운동이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시회를 서울만이 아닌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원주 등 전국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가짐으로써 한라산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지방에서의 산악운동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등산사의 큰 획을 그은 등반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산악회에서는 1956년 적설기 한라산 등반에 이어 다음 해에도 적설기 훈련 팀을 파견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번처럼 극지법에 의한, 캠프1, 캠프2를 설치하고 정상공격을 한 후, 정상에도 캠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사실 한라산의 적설기 등반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히말라야로 진출하기 위한 현지적응훈련의 성격이 짙었다.

특히 한라산에서의 예상치 못하는 기후와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자는 차원에서 각 고도별로 캠프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1차 등반 때의 장비의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장비의 실험과 스키를 대용할 수 있는 설피의 사용, 쌀밥을 취사가 아닌 휴대식량으로의 이용 등도 실험했다. 이것은 훗날 한국 산악인들이 히말라야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초석이라 할 만하다.

1957년의 등반 대원은 홍종인 대장을 비롯하여 이송녕, 김정태, 이희성, 안종남, 전담, 고성환, 이문행, 남궁기, 엄익훈, 선우문옥, 이은종, 이민재, 문희성, 이강흡, 김국민, 김승업, 조장희, 이재인, 김규호, 한택영, 김근원 등 18명이었다.

해방 후 제주인에 의한 한라산 등반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여고와 신성여고생들이 경쟁하듯 한라산 등반에 나섰다. 당시 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기형, 고영일, 김종철, 안흥찬, 김현우, 부종휴, 김규영, 강태석, 김승택, 김택화, 김두현 등이 학생들을 이끌고 한라산 등반에 나선 것이다.

3 1960년대의 산악활동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1950년대까지의 등반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친 것이었고, 한국산악회와 같은 조직을 갖추고 한라산을 등반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이다. 당시 학생들을 이끌고 한라산 등산을 주도했던 교사들과 기자 등은 당시 제주사회에서 인텔리에 속하는 젊은 지식인층이었다. 이들이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를 창립하면서 제주의 산악인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가 하면, 뒤이어 제주지역에 각 직능별·지역별 산악회를 결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 모티프가 된 것이 바로 1961년 1월에 발생한 서울법대산악부 이경재의 조난 사고였다.

서울법대산악부는 1월 7일 제주도에 들어와 5박 6일의 일정으로 한라산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등반대장인 윤인근을 비롯하여 10명의 대원이 참가한 훈련대원들은 1월 8일에 관음사코스를 올라 해발 600m 지점에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세 개의 조를 나누어 등반했다. 다음 날에는 두 개조가 눈 덮인 등산로를 따라 탐라계곡까지 진출하여 두 번째의 캠프를 마련했다. 남은 조는 식량과 장비 등을 지고 2캠프에 놓아두고 하산하여 전 대원이 베이스캠프에서 다음 날부터 등반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중간에 장비와 식량을 올려놓은 다음 마지막 캠프에서 정상으로 향하는 등반방식을 극지법(極地法) 등반방식이라 하는데, 이는 히말라야의 거봉을 오르기 위한 운행방식이었다. 당시 한라산을 오르는 대부분의 등반대가 이 방식을 택하고 있었으며, 한국산악회의 적설기 등반 때도 이 방식으로 운행되었다.

첫 번째 캠프를 설치하고 베이스캠프에 모인 그 날 밤부터 한라산에는 눈보라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눈이던 것이 아래쪽에서는 비로 변했다. 베이스캠프에 설치한 텐트에는 순식간에 비가 새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텐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비바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사실 겨울 산에서는 눈도 눈이지만, 비에 젖으면 상당한 곤란을 겪기 마련이었다. 침낭과 옷가지가 젖어버리면,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보온능력이 상실되고 체온이 내려간다. 그런데 적설기 산악훈련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을 대학생들이 운행 첫날부터 비바람을 맞으며 밤을 보내야 하는 곤란을 겪은 것이다. 그렇다고 등반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대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행을 시작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 등산로는 질퍽거렸고 고도를 높이며 올라갈수록 비는 차츰 눈으로 변했다. 삼각봉에 도착했을 무렵 대부분의 대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옷은 추위에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들은 삼각봉을 횡단하여 용진각 계곡에 이르러 캠프를 쳤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비에 젖은 텐트를 치고 추위를 피하려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가 않았다. 사방은 안개로 휩싸이고 추운 날씨 때문에 버너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대원들은 서로의 몸을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면서 폭풍설 속의 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 날 내리 3일을 비와 눈 속에 시달린 대원들은 왕관릉을 거쳐 한라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설수록 기온은 더욱 더 내려갔고 눈보라는 심해졌다. 정상의 바람 때문에 대원들은 눈조자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요즘처럼 좋은 장비가 없었던 시절이라 대원들은 젊은 패기와 정신력으로 사력을 다해 정상으로 올라갔다. 천신만고 끝에 오후 35분이 되어서야 정상에 섰다.

백록담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대원들은 그칠 기미가 없는 폭풍설을 뚫고 하산을 시작했다. 어두워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어지고 휴식 없는 강행군에 피로는 쌓여만 갔다. 다행히 용진각까지 무사히 하산했다. 이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약간의 식량으로 허기를 달랜 대원들은 첫 번째 캠프가 설치된 곳까지 하산을 시도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너무나 지친 나머지

지 중간 지점에서 비박을 해야만 했다. 눈이 많은 곳을 골라 눈동굴(雪洞)을 만들었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대원들은 필수 장비만을 휴대한 채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 길도 가슴까지 빠지는 눈을 헤쳐야만 했다. 극도의 육체적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당시 1학년이던 이경재는 거의 이끌리다시피 하산했다. 탐라계곡을 빠져나왔을 때 이경재는 거의 혼수상태와 같았다. 대원들은 교대로 이경재 대원을 업고 달리다시피 관음사를 향했다. 그러나 관음사대피소 5백여 m를 앞에 두고 이경재 대원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갔다.

사고 소식은 곧바로 도민사회에 퍼졌다. 당시 이경재 대원은 경기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으며, 서울법대산악부가 결성된 이후 첫 조난자가 되었다. 당시 대학생들로 구성된 등반대는 한라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인지 등반장비도 허술했지만, 한겨울 한라산의 악천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등반에 나선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 조난소식은 제주의 뜻있는 산악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고였다.

자신들의 뒷밭이자 모산(母山)인 한라산에서 아직 인생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넋을 한라산의 설원에 묻어야 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책임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주의 뜻있는 산악인들 사이에서 조난구조대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조난사고 발생시의 구조도 구조이겠지만, 한라산을 찾는 산악인들에게 한라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 미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큰 목표였다. 그러한 의미를 담은 산악단체가 1961년에 발족하게 되는데,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전국 유명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악구조대의 이름이 모두 '구조'가 우선인 '구조대'이지만 제주의 구조대만큼은 '안전'이 우선인 '산악안전대'이다.

안전대를 결성한 이들은 김종철·고영일·안홍찬·부종휴·현임종·김형희·김규영·강태석·김현우 등 9명이었으며 초대대장에는 김종철 대장이 추대되었다. 이들 안전대원들은 해방 이후부터 한라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산악인이자 당시 제주사회의 교육계와 언론계에 몸담고 있던 지식인층이었다.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는 조난구조 예방과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산악구조대의 효시(曉示)인 셈인데, 안전대의 조직이야말로 그 동안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한라산에서의 산악활동을 한곳으로 모아 한라산에서의, 크게는 제주도의 산악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가 산악인들의 순수한 인간애에 바탕을 둔 민간산악구조대의 후원자로 나서으로써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는 한라산에서의 실질적인 산악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후 산악안전대가 주축이 되어 한라산의 각 등산로마다 안전을 위한 이정표들이 세워졌으며, 한라산 곳곳의 주요 지점마다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산장들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다. 바로 이듬해에 한라산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 탐라계곡에 대피소가 지어진 것을 필두로, 1963년에는 용진각대피소, 1964년에는 영실대피소가 들어섰다. 이렇게 제주의 산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산악운동이 활성화 되면서 회원수들도 늘어났고, 이는 후일 각 지역별·직능별 산악회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의 초대대장을 역임했던 김종철 대장은 1961년부터 1969년까지 4대째 안전대장을 맡아 사실상 산악안전대의 기틀을 다졌다. 취임 당시 34세였던 김종철 대장은 대원들을 이끌고 한라산 대부분의 등산로를 개척하고 다듬었다. 관음사 - 탐라계곡 - 용진각 - 왕관릉 - 정상으로 이어지는 관음사코스과 서귀포 - 남성대 - 방아오름 - 정상으로 이어지는 남성대코스, 성판악 - 사라악 - 진달래밭 - 정상으로 이어지는 성판악코스, 아흔아홉골 - 어승생 - 만세동산 - 윗세오름 - 정상으로 이어지는 어리목코스, 영실 - 탐궐 - 선작지왓 - 정

상으로 이어지는 영실코스 등은 모두 이 시절에 정비된 등산로들이다. 현재의 등산로와 사실상 일치하는 것이다.

안전대원들은 당시 이 모든 등산로를 답사하며 이정표와 표식기,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함은 물론 못이나 망치 페인트 등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며 이들 표지판을 정비하는 일을 도맡았다. 이것은 요즘처럼 용역을 받아서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순수한 봉사정신과 산악인으로서의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초창기의 적십자산악안전대를 이끌었던 김종철 대장은 후일 제주의 오름을 일일이 답사하고 연구하여 1995년에 제주의 오름을 집대성한 『오름나그네(전3권)』를 세상에 내놓았다. 저술 막바지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 의사로부터 휴양할 것을 권고 받았지만, 진행 중인 책의 출판을 미룰 수 없었던 선생은 책이 나오는 순간까지 투병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름나그네』를 펴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제주인들은 물론 제주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고, 오늘날 제주도민의 애독서가 되었다. 특히 이 책의 출판 후 제주 사람들의 오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제주도에 오름 등반 열풍이 불었다. 1990년 말부터 불어닥친 인터넷 바람으로 제주도에는 오름을 답사하는 인터넷 모임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김종철 대장은 제주산악계에 진정한 산악정신을 심고 가꾸어 온 제주산악인의 정신적 지주로 남아 있다. 젊은 시절부터 언론인으로, 교육인으로 또한 산악인으로 모범적인 생을 살다가 한라산 선작지왓의 탐궤에서 영원히 한라산의 품에 안긴 그야말로 한라산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한라산의 산 증인이었다.

김종철 대장 이후에는 현재 제주산악계의 원로인 안흥찬 대장을 비롯하여 김승택·김태열·양하선·고길홍·박훈규·장덕상·강경호·강성규 대장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적십자산악안전대의 핵심이념이라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대원들은 창립 후 6년 동안 안전한 등산로의 개척과 표지판 설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적십자안전대의 기록을 보면 6년 동안 16회의 훈련기간 동안 51일간에 걸쳐 전 코스의 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연인원 110명이 참여했다. 그렇다고 당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 출동할 때마다 2~3명이 조를 이루어 행했음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당시 산악안전대원들이 대피소마다 설치한 ‘안내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써 있다.

‘산은 자애롭고도 무자비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등산을 위하여

1. 무모한 행동은 조난의 원인이 됩니다.
2. 충분한 식량과 장비를 갖추십시오.
3. 익숙지 않은 코스는 반드시 안내인과 동행하십시오.
4. 수목을 함부로 다치게 맙시다.
5. 암석은 대체적으로 굳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6. 표식판이나 산장시설은 손상치 맙시다.
7. 물은 깨끗이 씹습니다.
8. 숙영지를 떠날 때는 다음 사람을 위해 청결, 정리하고, 화목을 마련해 둡니다.
9. 유고시 가까운 표고밭이나 경찰, 또는 본 안전대에 빨리 연결하십시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산에서의 안전요령과 한라산 지형의 특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성어린 마음이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등산인구가 그리 많지 않던 시절,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도타운 인정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안전대원들에 의해 한라산 곳곳에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선다 해도 조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1962년 여름, 한라산에서는 한겨울이 아니 여름에 귀중한 인명사고가 일어났다. 다름 아닌 여름철 폭우에 의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계곡물이 넘 치면서, 이를 건너던 등산객이 급류에 휩쓸린 사고였다.

당시 제주도에는 태풍 로라가 접근하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제주도의 하천은 평소에는 대부분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그러나 폭우가 쏟아질 때면, 조그만 지류에 흐르던 빗물이 큰 계곡으로 몰려들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은 엄청난 수량을 한꺼번에 하류에 내려 보낸다.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두고 '내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하천의 엄청난 물이 한꺼 번에 쏠려 내린다는 뜻이다. 한라산의 대표적 계곡의 하나인 탐라계곡은 이렇게 여름철에 잘 '내치는' 곳 중의 하나이다.

로라가 상륙하기 하루 전인 1962년 8월 1일, 전남대 건축과 2학년생인 오태근은 동료인 이하 규, 안공순 등과 함께 서귀포에서 남성대코스를 거쳐 정상에 올랐다. 그들이 지닌 장비라곤 쌀 한 말과 담요 3장, 여름철이라 이만 하면 별 탈이 없으리라 여긴 것이다. 그러나 태풍에 실려 온 폭우에 한라산의 기상은 급변했다. 이들이 정상에 섰을 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상에서 관음사코스로 하산을 서둘렀다. 그러나 폭우 속에서 그들은 숲속에서 담 요를 뒤집어쓰고 비박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그치지 않는 비 속을 뚫고 하산을 하던 중 탐라계곡을 만나게 된다. 계곡은 이른바 '내치고' 있었다. 그 내치는 계곡을 오태근이 먼저 건너려는 순간, 급류에 휘말리고 말았다. 남은 이들은 도저히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음날 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어느 정도 급류가 약해진 틈을 타 두 사람은 계곡을 건너뛰다시피 관음사로 내달렸다. 조난 사실이 산악 안전대에 전달되자, 김종철 대장과 안흥찬 대원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들이 탐라계곡에 도착했을 때, 급류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계곡을 건너는 곳에서 150여m 아래쪽 계곡의 가로로 드러누운 고목에 시신이 걸려 있었다. 불어난 계곡물에 희생된 조난자를 구조 하며 안전대원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 계곡 가에 급류시 대피할 수 있는 오두 막 한 채라도 있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그로부터 석 달 후 탐라계곡 건너편 언덕에 조그만 집이 지어지게 되었다. 지금의 탐라계곡 대피소 바로 옆 자리.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 이 곳에 비상시 대피할 대피소를 짓게 된 것이다. 이 집을 짓는 데 소요된 비용은 49,000원. 당시 제주적십자사에서 이 비용을 부담했다. 돌과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우고 함석지붕을 얹은 6평짜리 집이었다. 산악안전대원들의 청원에 의해 지어진 이 집은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한라산의 관음사 코스는 예나 지금이나 힘겨운 등반코스임이 분명한 듯 하다. 특히 탐라계곡 과 더불어 개미등 너머에 있는 용진각 계곡도 급류가 넘칠 때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1964년 여름, 제주도에는 태풍 헬렌이 몰아치고 있었다. 당시 명지대학교 1학년 김재경과 현정남·오세일·김구범·이광용 등 다섯 명은 방학을 맞아 제주도에 여행을 왔다가 한라산에 들 게 되었다. 태풍 전야의 한라산은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 보였고, 관음사를 통해 탐라계곡까지 오른 일행은 짧은 패기를 믿고 정상으로 향했다. 여름철이라 담요 한 장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기고 간 그들에게 서서히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은 한라산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용진각엔 계곡마다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온 몸이 젖어버린 상황에서 여름철에 겪

는 추위를 이기지 못한 이들은 하산을 감행했다. 그러나 계곡물은 이미 밤새 피부은 폭우로 넘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탐라계곡과는 달리 계곡의 깊이도 그리 깊지 않았고 넓이도 만만하게 보였다. 일행은 서로를 허리띠로 묶고 계곡을 건너기 시작했다. 맨 앞을 가고 있던 김재경이 갑자기 '앗' 하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서로가 허리띠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섯 명이 모두 급류에 휩쓸렸다. 급류 속에서 연결한 끈이 풀리면서 오세일, 김구범, 이광용은 간신히 바위를 붙잡고 계곡을 빠져나왔지만 김재경, 현정남은 급류에 떠내려가고 말았다. 계곡을 빠져나온 3명은 계곡을 향해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길로 뛰다시피 하산하여 조난사실을 알렸다. 적십자산악안전대와 경찰이 현장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계곡물이 잠잠해져 있었고, 계곡에서 150여m 아래쪽에서 김재경의 시신을 수습했다. 현정남의 시신은 수색 4일 만에야 김재경의 시신이 발견된 50m 아래 계곡의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 계곡물이 가라앉기를 조금만 기다렸더라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이 사고가 난 지 한 달 후에는 휴가 중이던 군인이 개미등에서 추락사를 당하는 참변이 일어났다. 동료 1명과 함께 한라산등반에 나섰던 이태연 상병은 관음사코스로 정상 등정 후 개미등까지 무사히 내려왔다. 아직 여름의 땀별이 남아 있던 9월이라 두 등산객은 몹시도 목이 말랐다. 삼각봉을 빠져나와 개미목 상단에 이르자 계곡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갈증에 목말랐던 이상병은 '조금만 내려가면 물이 있겠다.'는 생각에 절벽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나 물은 보이지 않았고,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디뎠던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1966년 8월 30일 제주에는 여름의 불청객 태풍 '베티'가 큰 피해를 남기고 물러갔다. 이 당시 한라산에서는 40여 명의 등산객들이 폭우와 강풍 속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원들은 조난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영실과 탐라계곡, 용진각대피소 등에 대원들을 파견한 상태였다. 그런데 폭풍우 치던 밤, 한라산의 숲속에서 안전대원들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고립된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8월 17일부터 한라산에 들어와 약초를 캐고 있던 최상수와 정운호였다. 약초꾼인 이들은 함덕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산속을 누비며 약초를 캐다가 태풍이 오는 줄도 모르고 한라산 정상 가까운 왕관릉까지 올라왔다.

이들이 지닌 장비는 비닐 두 장이 전부였다. 비바람 속에서 비닐은 무용지물이었고 태풍이 한라산에 들이닥친 그 날부터 추위에 떨어야 했다. 폭풍우 속에서 한라산의 밀림 같은 숲속을 헤매던 두 사람은 가까스로 왕관릉에 다달아 용진각대피소를 발견하고는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 그러나 최상수는 이미 탈진상태였고, 정운호는 용진각으로 달려가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용진각에 대피 중이던 등산객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상수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 있었다. 한 여름에 온 몸이 비에 젖어 동사한 것이었다.

그 해 겨울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에서 18세 청년이 눈보라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선린상고 3학년이던 조영철은 제주에서 만나서 알게 된 서석주와 박중언, 황윤홍과 함께 겨울 한라산을 올랐다. 황윤홍만이 조선대학교 학생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제주도에서 여행 중에 만나 의기투합한 네 명은 1월 13일 겨울 한라산을 올라 탐라계곡대피소에서 첫 날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눈 속을 헤집고 삼각봉과 용진각을 거쳐 네 명은 한라산 정상에 다다랐다. 힘든 산행이었지만 정상의 설경에 취해 분화구의 능선까지 한 바퀴 돌고 해질녘이 되어서야 용진각으로 내려왔다. 기분 좋게 저녁을 먹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겨울 산의 낭만을 즐기던 것도 잠시, 갑자기 하늘에 별들을 삼키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바람도 세차게 불면서 한라산의 겨울밤은 폭풍설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엔 문을 열기도 어려울 정도로 눈이 쌓였다. 한참을 눈을 치우고 밖으로 나오자 지

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고 눈보라가 사정없이 휘몰아쳤다. 일행은 서로를 끈으로 묶고 하산을 서둘렀다. 그러나 눈보라 속을 뚫고 하산하던 그들은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고 말았고, 폭풍설이 휘몰아치는 숲에서 악몽과도 같은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날씨는 그대로였고, 가슴까지 차는 눈 속을 헤집고 나서야 눈 속에 파묻힌 등산로 표지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위치는 지금의 등산로 4.4km 지점의 적송지대였다. 용기를 내고 탐라계곡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날은 이미 캄캄해졌고, 너무나 지친 나머지 졸음에 지쳐 쓰러졌다. 겨울 산의 추위 속에서 잠드는 건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자꾸만 잠 속으로 끌려가는 조영철을 황윤홍은 따귀를 때려가며 깨웠다. 황윤홍은 이대로 있다간 큰일이 날 것을 우려해서 과감히 혼자 하산을 감행했다. 조난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러나 황윤홍도 얼마 못가 눈 속에서 쓰러지기를 몇 번, 밤 9시 경에야 남문파출소에 도착해서 쓰러졌다. 곧바로 구조대가 편성되어 현장으로 달려갔다. 서석주와 박중언은 관음사에 도착해 쓰러져 있었고, 조영철은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남아 있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황윤홍은 조영철의 사망소식에 “영철이는 옷도 제일 따뜻하게 입히고, 몸이 약해서 짐도 안 지웠다.” 며 울부짚었다.

1969년 11월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던 한라산에서 여성이 조난사를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부산에 살던 설덕수 양은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여동생이 제주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생을 찾아 제주에 왔다. 오랜만에 만난 자매는 3일 동안 제주도 관광을 하며 서귀포에 머무르고 있었다. 때마침 눈앞에 한라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두 자매를 유혹했고, 한라산을 함께 오르자는 언니의 권유에 동생인 필수 양도 따라나섰다.

그러나 장비도 없이 초겨울에 도시락 하나 들고 나선 산행은 결국 비극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들이 남성대코스를 통해 정상에 오른 시각은 오후 3시. 11월의 해는 너무도 짧기만 했다. 갑자기 날씨마저 나빠져서 하산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허둥지둥 하산 길을 재촉했지만 어두워가는 산속에서 자매는 급기야 등산로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폭우 속에서 길을 헤매다가 언니인 설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폭우 속에서 자매는 부둥켜안고 산속에서 잠을 지새웠다. 해발 1,500고지였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좋아질 기미가 없었고 언니는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다. 당황한 필수 양은 언니를 들쳐 업고 하산을 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언니에게 입던 외투를 덧입혀 비를 피할 수 있게 한 다음 산 아래로 달리듯 내려갔다. 천신만고 끝에 남성대 부근 마을에 도착해서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지척을 분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과 함께 언니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언니는 간밤의 추위 속에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한라산 최초의 여성 조난자였다.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가 조직되어 한라산 곳곳에 등산로가 정비되고, 등산객들을 위한 대피소도 들어설 무렵, 제주도에는 개별 단위의 산악회가 등장했다. 바로 제주산악회이다. 1964년 결성된 제주산악회는 기존의 적십자산악안전대가 한라산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조난자 구조에 역점을 둔 반면 알피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산악단체를 기치로 내걸고 창립했다. 창립회원은 대부분 적십자산악안전대의 대원들이었는데, 부종휴·김종철·안흥찬·고영일·김현우·현임종·김두현·강태석·고영섭·최양명 등이었다. 7월 21일 적십자사 사무실에서 회원들은 당시 제주농고와 오현고 교장을 역임한 흥정표 선생을 산악회장으로 선출하고, 전문산악단체가 탄생했음을 선포했다.

5·16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전국의 유사단체 등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당시까지 산악계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산악회가 주도해 왔으나, 전국 단위의 산악연맹체를 만들라는 당국의 권유로 대한산악연맹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나 제주에는 당

시 개별적인 산악회가 없던 시기여서 대한산악연맹은 후에 가입하게 되었다. 다만 1968년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국토종주삼천리 행사에 제주지역을 대표해서 바로 이 제주산악회가 제주에서의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제주산악회를 뒤이어 오현고등학교 산악부가 1968년에 창립되고, 한라산우회도 이 시기에 결성되었다.

오현고등학교 산악부는 당시 오현고 교사를 맡고 있던 김승택 선생이 주도했다. 당시 김승택 선생은 제주의 산악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산을 알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산악회를 만들게 된다. 특히 이를 위해서 창립 전체인 1967년 말부터 제주의 산악인들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알피니스트의 자세(강사 김종철), 학생과 등산(강사 안흥찬), 응급처치법(강사 임석효), 산악안전법(강사 김현우), 등산계획과 편성(강사 김조철) 등 이론교육은 물론 한라산을 직접 강사들과 답사함으로써 실질적인 등산기술을 배우는 기회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겨울철 적설기 한라산 등반을 더하여 이듬해 3월 고등학교 산악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오현고등학교 산악부는 후일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오현등고회를 결성하여 제주도산악연맹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제주도의 산악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한라산우회는 알피니즘 구현이라는 전문산악단체보다는 한라산과 제주도의 학술조사에 비중을 두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산악단체였다. 당시 한라산우회는 부종휴·고영일·문기선·오용호·장승홍·강현익·조성무·박병호·박덕기·김용길·현승헌·김혜옥·고점배·김석 등 14명이 참여했고, 부종휴 선생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당시 부종휴 선생은 해방 이후부터 한라산의 식물상 조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제주도의 민속과 고고학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학술조사에 큰 무게를 가졌던 한라산우회는 한라산의 새 등산로 개척, 중산간 마을에 산재한 동굴에 대한 학술조사, 민속 및 역사, 주민생활 등을 조사했는데, 흠뻑은오름에서 흰진달래를 최초로 발견해서 당시 식물학계에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한라산우회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산재한 동굴조사에서 괄목한 만한 기록들을 세우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1970년대 중반에 해체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제주산악회를 중심으로 육지부의 산악단체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제주도에도 대한산악연맹 제주지부가 결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산악연맹에 가입하려면 두 개 이상의 산악단체조직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지부가 1969년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1968년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국토종주삼천리 행사에 제주지역을 대표해서 바로 이 제주산악회가 제주에서의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국토종주삼천리는 당시 제주도의 남쪽 끝 마라도에서 시작하여 휴전선까지 각 지방의 산악인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국토를 순례하는 전국적 규모의 산악운동이었다. 그러나 당시 제주에는 제주산악회만이 유일하게 산악회를 구성하고 있어 단위 산악회가 제주대표가 되어 이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남과 북으로 대치하던 시절이어서 종주는 지금의 설악산 북쪽 진부령 바로 위쪽에 있는 향로봉에서 끝맺어야만 했다. 먼 훗날 통일이 되면 다시 향로봉에서 백두산까지의 대장정을 목표로 한 이 행사는 조국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치러진 셈이다.

대한산악연맹에서 파견된 산악인들과 함께 서귀포의 서귀국민학교에서 1박을 한 제주의 산악인들은 다음 날인 1968년 7월 10일에 마라도에서 행사에 참가한 산악인의 서명이 새겨진 연맹기와 기념페넌트, 행사계획서를 병 속에 넣어 등대 옆에 묻었다. 이 때 파낸 흙을 징표처럼 병 속에 넣어 제주의 다음 기착지인 전라남도의 산악인들에게 인계할 계획이었다.

종주 팀은 마라도에서 나온 후 하원을 경유하여 영실에 당도했다. 지금의 영실휴게소에는 입

승정이란 산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곳에서 종주대원 전원이 야영했다. 다음 날에는 영실의 오백장군과 탐괘, 윗세오름을 거쳐 서북벽을 통하여 정상에 올라섰다. 때마침 장마기간이라 정상에는 빗줄기가 쏟아졌고, 용진각에서 막영하려던 계획을 수정하여 개미등을 통하여 제주시내까지 곧바로 하산을 강행했다.

다음 날 제주의 산악인 대표로 종주대에 참여한 안흥찬·김현우·김승택 대원은 제주에서 안성호를 타고 목포로 향했다. 전라남도의 산악인들에게 국토종주삼천리 깃발과 마라도에서 담은 흙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전달식은 목포의 진산인 유달산 유선각에서 이루어졌고, 한라산의 상징적 꽃인 한라솜다리(에델바이스)도 함께 전해졌다. 이 행사에는 대한산악연맹의 김두고 회장 외에 강호기·김초영·신종욱·양승혁·이원직·최남진·최명길 등이 참여했고, 제주산악인 중에는 전달식에 참여한 세 대원 외에 홍정표·오상철·박요찬·김용구·김병일·문화자·방경옥·이정덕·양하선·고인지·김지훈·한철언·손성권·이창흠 등이 참가했다.

이 행사가 치러진 지 34년 세월이 지난 2003년 3월, 마라도에는 그 날의 행사를 기념하는 조출한 기념식이 마련되었다. 당시 종주의 주역들 중에서 지금은 한국 산악계의 원로가 된 당시의 종주대원들이 국토종주삼천리의 시발점이었던 마라도에 다시 온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제주의 산악원로 안흥찬 선생이 제주석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썼다.

‘統一에의 意志 / 國土縱走三千里 始發点’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제주산악회가 주관한 이 날 행사는 젊은 시절 이 땅의 소중함과 통일에의 의지를 담아 34년 전의 종주에 참여했던 산악인들로서는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었다. 특히 한국산악계의 발전을 위해 젊음을 산에 바치고 이제는 초로의 산악원로가 된 60대산회(회장 박진)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이 날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강호기·곽귀훈·곽수웅·김기왕·김명수·김용구·김재도·김종욱·김훈봉·박명선·박상열·박재곤·박진·성산·신귀현·안흥찬·이동주·이창억·임문현·조병우·최상복 등 60대산회 회원과 제주의 산악인인 현충남·박훈규·안영백·진창기·양봉훈·부상혁·고행국·나범석·이승학·김근애 등 총 40여 명의 산악인이 참여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악인들 외에도 일반인들도 등산을 위해 한라산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에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각 코스별로 안전한 등산을 위한 표지기가 설치되면서부터 이제 한라산은 산악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도민과 멀리 육지부에서 제주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육지부의 산과는 달리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한라산은 특이한 경관을 지닌 산이었고, 윗세오름 일대의 일명 ‘선작지왓’ 일대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이어서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코스였다. 특히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1100도로가 개통되어 어리목과 영실로의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한라산을 찾는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이 곳을 이용하여 한라산을 오르게 되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선작지왓 일대는 진달래와 철쭉이 분홍빛의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아름다운 풍광을 드러낸다. 제주의 산악인들은 이런 풍경을 일반 등산객들과 함께 나누고, 산악인들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는 뜻에서 철쭉제를 개최하고 있다. 최초의 철쭉제는 1967년 5월 21일 제주산악회가 주관이 되어 치러졌다.

초창기의 철쭉제는 대부분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서 치러졌다. 첫 행사는 당일 한라산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백록담에서 치르지 못하고, 물장을 산행 후 하산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첫 해에는 행사를 주관한 제주산악회 안흥찬 회장과 김종철·김현우·김형희·현승율·문화자·장영자·오상철 회원과 7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듬해에 치러진 철쭉제 때에 비로소 정상에서 치러졌는데, 당시 한라산 정상에서 지낸 산신제는 조선시대 이후 거의 500여 년 만의 일이었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는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3월 16일 한라산 정상에서 치러졌으나, 이 행사로 인해 사상자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일자 제단을 지금의 산천단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철쭉제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철쭉여왕을 선발했는데, 첫 철쭉여왕은 장보순 양이 차지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일보 사진기자에 의해 행사내용이 보도된 이후 철쭉제는 세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에 치러진 철쭉제에는 방송국의 카메라가 동원되었고, 전국에 한라산 정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철쭉제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철쭉제에 맞추어 산상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철쭉제의 기획 의도는 사실 한라산을 오르는 이들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함과 동시에 등산객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관광객을 한라산으로 불러들여 제주도의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한라산 정상에서 철쭉제 행사를 치르는 동안,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지반이 약한 백록담 사면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일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산로 주변과 행사장을 뒤덮고 있는 벼과(科) 식물인 김의털 등 한라산 고원지대의 대표적 지피식물, 곧 한라산의 흙을 덮고 있는 잔디 종류 식물들이 파헤쳐지면서 맨 흙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철 장마기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면, 등산로가 골을 이루며 백록담 사면이 급속하게 훼손되는 것이었다.

급기야 당국과 산악연맹 등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산악인들은 한라산 보호를 위해 철쭉제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는 한편, 행사장도 뒷세오름이나 어승생오름으로 변경하여 치르게 되었다. 그렇기는 했어도 당시의 한라산 철쭉제는 분명 한라산의 아름다움과 이채로운 풍경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도 서울 등 육지부에서는 철쭉꽃이 만발할 무렵인 오뉴월에 제주도 여행을 세운 이들의 철쭉제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기도 한다.

해방 이후부터 전국의 내로라하는 산악인들이 정기적으로 한라산을 찾았던 것은 한라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다른 아닌 겨울철의 변화무쌍함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라산 백록담 북벽 남쪽의 용진각 일대는 조릿대로 덮인 300여m의 급경사를 이루는 사면과 수직의 암벽 등이 히말라야의 지형과 비슷하다.

또한 겨울철 이 곳에 2m가 넘는 눈이 쌓이면, 설상훈련과 글리세이딩 훈련(눈으로 뒤덮인 경사면을 미끄러지면서 자기제동을 연습하는 훈련인데, 히말라야의 만년설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는 산악훈련의 방법)을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격인 곳이다. 또한 겨울의 한라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적설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산이었고, 해방 이후에도 전락 대장의 조난사로 전국의 산악인들에게도 적설기 한라산의 혹독한 기후는 정평이 나 있었다. 그래서 1969년부터 제주대학 주최로 전국 대학생 적설기 한라산등산대회가 열리게 된다. 제1회 대회는 1969년 정초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이 행사에는 서울법대·경희대·홍익대·명지대·우석대·동아대·전북농대·제주대 등 8개의 대학산악부팀과 오리엔트캠프 클럽 등 모두 9개 팀을 비롯하여 64명이 참가했다.

제주시 관덕정에서 개회식을 가진 후, 참가자들은 관음사를 경유하여 지금의 삼각봉 - 용진각 - 정상 - 뒷세오름 - 영실 - 서귀포 제주대학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따라 3박 4일 동안 겨울 한라산에서 야영을 해가며 짧은 패기와 기량을 선보였다. 사실 이 행사는 등산기량을 겨루는

등산대회라는 개념보다는 전국의 대학산악부원들의 화합과 젊은 산악인들의 교류의 장이라고 봐야 더 정확한 표현일 터인데, 이 대회는 첫 대회를 시작으로 1975년 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 당시 현재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 바로 관음사 코스의 탐라계곡에서 계곡을 건너지 않고 탐라계곡 서쪽 능선을 타고 올라 왕관릉을 거쳐 정상으로 이어지는 코스인데, 당시 이 코스를 학사코스라고들 불렀다. 물론 지금은 공식적인 등산로가 아니어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등산로의 희미한 자국 위로 무성한 조릿대가 사람의 키보다 높게 자라 있다.

4 1970년대의 산악활동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서귀포백록산악회와 오현등고회, 표선산악회, 한국설암산악회, 성널산악회, 굴부리산악회, 탐라산악회, 창공산악회, 파라다이스등산스키부, 산방산악회, MBC산악회, 제주대산악회, 제주대직장산악회, 제우산악회, 오름산악회, YMCA산우회 등의 산악회들이 생겨나면서 대부분 지역이나 학교 동문, 직장 등을 중심으로 산악회를 결성하여 제주도의 산악운동을 주도했다. 해방 이후 4·3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산악운동의 암흑기를 맞았던 제주산악계는 1960년대 들어 제주적십자산악안전대의 창립과 더불어 그 태동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산악회가 결성된 이후 각 분야별로 산악회들이 생겨나는 1970년대에 비로소 제주산악계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는 셈이다. 전국조직인 대한산악연맹의 제주도연맹으로 연합한 제주산악계는 해마다 산악인들이 구심점이 되어 철쭉제와 만설제, 전도산악인의 밤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산악인들 간의 우정을 다지는 한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보호운동을 벌였다. 특히 1960년 말부터 제주도에 불기 시작한 개발바람으로 인해 제주산악인들은 한라산을 보호하자는 기치 아래 성판악 - 정상간 포장도로 개설 반대운동, 성판악 - 정상 - 영실코스로 이어지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을 펼치며 한라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러한 자연보호활동과 산악인들 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제주산악계는 보다 전문적인 분야로 활동영역을 넓혀 갔다. 특히 제주산악인의 모산(母山)이라 할 수 있는 한라산 집중등반대회를 연례행사로 치르기 시작했다. 한라산 집중등반대회는 제주의 산악인들이 여러 조로 나뉘어 한라산을 등반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제주산악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는 바탕이 되었다.

1970년대 들면서 국내산악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해외원정 등반의 개화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추렌히말 등정 후 본격적인 해외원정의 물꼬를 튼 이후 1970년대에 마나슬루와 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의 8,000m급 봉우리에 대한 등반이 이루어진다. 이에 제주산악계에서도 대한산악연맹이 추진하던 1977년 에베레스트 원정훈련에 제주의 산악인을 파견하게 되는데, 1974년 1월 제주산악회원이던 양하선·강경수 대원이 지리산에서 행해진 동계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훈련에는 훗날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는故 고상돈(高相敦) 대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 훈련 당시 제주의 산악인 양하선(梁河善) 대원의 회고에 따르면 “고상돈은 제주의 산악인들을 고향 어른이나 산악회의 직속 선배 모시듯이 하는 예의가 깎듯한 청년”으로 기억했다.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를 떠나기 전, 제주산악회에서는 타지에 살면서도 고향사랑이 남다르고 심성 또한 맑은 산악인인 고상돈을 명예 제주산악회원으로 위촉했다고 한다.

1948년 제주에서 태어난 고상돈 대원은 어린 시절을 제주에서 지내다 청주에서 산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1977년 대한산악연맹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참여하여 마침내 세계의 지붕 8,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서며 자랑스러운 제주인의 기개를 세계만방에 떨쳤다. 제주가 고향인 고상돈은 귀국 후 그리운 고향을 찾아 제주도를 방문했고, 전 도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제주시내를 한 바퀴 돌고난 고상돈을 위하여 당시 제주산악인들이 모여 정상의 사나이를 환영하는 뜻에서 한라산에서 환영등반과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제주산악계에서는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9월 15일을 ‘산악인의 날’로 지정하여 한라산에서 산악인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지 이 년 후, 고상돈은 한국일보사가 주최한 국내 최초의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Mckinley, 6,194m)봉 원정길에 올랐다. 이 원정에는 고상돈 대원의 죽마고우이자 제주산악회 회원 박훈규 대원과 청주의 이일교 대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상 등정 후 하산 도중 눈사태를 맞고 고상돈·이일교 두 대원은 영원히 하얀 산의 설원(雪原)에 잠들고 말았고, 당시 함께 눈사태에 휩쓸렸던 박훈규 대원은 극심한 동상으로 손과 발을 하얀 산에 바쳐야 하는 비운을 맞았다.

당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고상돈 대원의 뜻밖의 조난사고는 실로 제주산악계의 슬픔이 아닐 수 없었다. 사고 후 고상돈 대원은 경기도 광주의 한남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장례식에 참여했던 서울제주도민회원과 제주의 산악인들은 제주도가 낳은 영웅이자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고상돈의 묘가 제주도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이에 묘를 한라산으로 이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제주산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듬해인 1980년 10월 17일 고상돈의 묘는 한라산 삼형제오름 자락의 1,100고지에 이장되었다.

이장을 마친 제주의 산악인들은 고인의 뜻을 기리고 제주산악인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고상돈 기념사업회'를 만들기도 했다. 제주의 산악인들은 고상돈 대원이 맥킨리에서 산화한 5월 29일 오후 3시 30분이면 해마다 1,100고지에 모여 고인을 위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묘역에 고상돈의 동상이 제막되어 한라산을 지나는 모든 이들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있다.

1100도로에 고상돈의 제단이 있다면, 한라산 정상 서쪽의 장구목 정상의 바위벽에는 한라산에서 하얀 산을 꿈꾸다 한라산에서 산화한 故 고동익을 기리는 동판이 있다. 고동익은 제주대학교 산악부장 시절 폭풍설 몰아치는 한라산에서 겨울철 산악훈련에 나섰다가 꽃다운 젊음을 이산에 묻은 제주 산악인이다. 고동익이 겨울철 산악훈련을 위해 한라산을 찾은 것은 1983년 12월 19일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겨울이었다. 7명의 제주대학교 산악부원들은 폭풍설 속의 어리목코스를 올라 윗세오름에 훈련캠프를 마련했다.

때마침 날씨는 눈이 쌓인 후 쾌청하게 맑았다. 대원들은 지금은 통제된 코스인 장구목과 서북벽 사이의 계곡에서 피켈과 아이젠 등을 이용하여 설상훈련(깊은 눈 속에서 안전하게 전진하고 하산하는 산악훈련)과 설동(추위를 피하기 위해 눈 속에 파는 동굴) 파기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윗세오름에 베이스캠프(훈련본부)를 마련한 이들은 산벌른계곡(한라산 정상 남쪽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흐르는 'V' 모양의 깊은 협곡을 이룬 한라산 최대의 계곡, 제주말로 산을 '벌른' 내라고 해서 산벌른내라고 한다), 어리목계곡 등지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심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이 날 훈련에 합류하게 되어 있던 한 대원은 심한 가스로 베이스캠프를 찾지 못하고 등산로 주변에서 비박을 해야만 했다. 가까스로 베이스캠프를 찾고 보니,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이스캠프가 있었다. 심한 안개 때문에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훈련 팀은 장구목을 넘어 한라산 북쪽의 탐라계곡으로 훈련등반에 나섰다. 탐라계곡은 산벌른내와 같이 한라산에서 가장 깊고 험한 계곡 중의 하나였다. 계곡 중간 중간에는 수십 미터의 협곡을 이룬 바위 절벽이 즐비했고, 한라산 북쪽에 있어 겨울철에는 햇살이 잘 들지 않는 곳이어서 적설량 또한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 한라산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최초의 조난자로 기록된 전택 대원의 조난사고도 바로 이 탐라계곡 중단부였다.

해가 떠오르기 전 베이스캠프인 윗세오름을 출발한 훈련대원은 고동익 대장을 비롯해 모두 5

명이었다. 이들은 장구목을 거쳐 용진각 대피소에 도착했다. 맑은 날씨였으면 이제 막 해가 떠오를 시간이었다. 그러나 심한 눈보라 때문에 시야는 바로 눈앞의 지형지물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깊은 적설로 탐라계곡 동쪽 능선으로 이어지는 일명‘학사코스’를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너 시간의 악전고투 끝에 대원들은 학사코스를 따라 동탐라계곡과 서탐라계곡이 합수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 곳에는 여름철 계곡물이 갑자기 불었을 때, 등산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에서 세운 대피소가 있었다. 본래의 계획은 이 곳에서 탐라계곡을 관통하며 계곡 등반을 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훈련과 심한 눈보라 속에서 이미 많은 체력을 소모한 상태였다. 훈련 팀은 과감히 계곡등반을 포기하고 개미등 능선을 따라 오르기로 했다. 개미목과 삼각봉을 거쳐 용진각대피소에 도착한 훈련 팀은 우유와 비상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다. 베이스캠프가 있는 윗세오름까지는 장구목을 넘어야 했다. 용진각에서 장구목으로 오르는 사면은 평균경사도가 40. 에 이르는 급사면이었다. 장구목에 오르는 데만 두어 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다. 게다가 장구목으로 오르는 사이 이미 날은 어두워졌고, 렌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에 의지한 채 눈 덮인 설사면(雪斜面)을 올랐다. 장구목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30분. 대원들은 더 이상 전진하기가 어려웠다. 눈앞에 윗세오름이 어른거렸지만, 심한 눈보라 속에서 길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장구목 일대는 나무가 없는 광활한 초원 지대여서 어둠 속의 눈보라 속에서는 방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형이었다.

대원들은 서둘러 설동을 파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했다. 석유버너를 피웠다. 연료는 삼분의 일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밤새워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선 화력을 최저 상태로 유지하며 연료를 아껴야 했다. 남은 식량이라곤 초코파이 1개와 크래커 1봉지. 설동 속에서 대원들은 산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안했다. 자정이 넘으면서 버너의 불꽃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석유가 떨어진 것이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 대원들은 앉은 자세에서 즐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서의 졸음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대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냈다. 길고 긴 어둠이 걷히며 새벽이 찾아들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다.

눈보라는 여전했다. 심한 안개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섯 명의 대원들은 서로 순서를 정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차례로 베이스캠프를 향해 눈보라 속을 헤쳐 나가기 시작했다. 고동익 대장은 맨 뒤에서 걸어갔다. 눈보라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대원들이 윗세오름 베이스캠프가 있는 방향으로 1.5km를 전진했을 때, 고동익 대장은 20여m 뒤에 처져 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전진하면 윗세오름에 다다를 것이었고, 구상나무숲에 들어서면 바람도 잘 것이었다. 앞서 가던 대원들은 우선 베이스캠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깊은 눈 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가까스로 베이스캠프에 도착했을 때, 고동익 대장은 보이지 않았다. 베이스에 남아 있던 대원이 급히 발자국을 뒤쫓아 장구목 쪽으로 갔다. 윗세오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고동익 대장은 이미 의식을 잃은 후였다. 눈보라 속에서 저체온증(低體溫症)으로 동사(凍死)한 것이었다. 저무는 해가 비양도 너머 서해바다로 떨어지며 한라산 서북벽으로 저녁노을이 쏟아질 무렵, 장구목 정상에 바위벽도 붉게 물든다. 저녁 햇살 비기는 이 바위벽은 당시 눈보라 속에서 하얀 산을 동경하며 산에서 산화한 고동익 대장의 넋이 서린 곳이다. 제주대산악부에서 산에서 스러져간 젊은 영혼을 기리는 동판을 세웠다.

5 1980년대 산악활동

1970년대를 제주 산악운동의 여명기라 한다면, 1980년대는 산악운동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전역에 태동하던 개별적인 산악단체들은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을 구심점으로 보다 조직적인 산악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 무렵 대한산악연맹이 추진하는 '86 K2 원정대 훈련 팀이 한라산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우리나라 산악계(山岳界)를 이끌던 기라성 같은 산악인들이 끼어 있었는데, 당시 제주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현충남 회장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주의 젊은 산악인들을 모아 한라산에서 겨울 적설기 산악훈련을 하게 된다. 한라산에서는 그야말로 최초의 산악교육이었던 셈이다.

이 때 제주의 젊은 산악인들을 위해 강의에 나섰던 이들이 유한규·박인식·최창돈·윤대표 등 당시 우리나라의 산악계를 이끌어가던 전위적 클라이머(climber)들이었다.

사실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겨울철 산악훈련의 최적지였다. 설악산이나 북한산 등은 암벽등반 훈련 대상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겨울철 훈련지로는 한라산만큼 좋은 곳이 없었다. 정상 인근에 펼쳐진 광활한 벌판에는 거침없는 바람이 몰아쳤고, 경사진 면에는 깊은 눈과 바위 등이 펼쳐져 있다. 이러한 지형은 화산 지형이 아닌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인데, 히말라야 고봉의 지형이 또한 한라산과 비슷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라산, 특히 겨울의 한라산은 히말라야로 가기 위한 훈련대원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일종의 관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한라산으로 몰려든 전국의 산악인들로부터 극한 등반을 위한 기술을 익히게 된다. 당시만 해도 귀에 생소한 글리세이딩(설사면에서 미끄러질 때,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제동하는 기술), 프론트포인팅(빙벽 등반시 등산화 끝에 돌출된 아이젠을 이용하여 정면으로 빙벽을 오르는 기술. 당시까지만 해도 빙벽을 등지고 오르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아이젠 워킹(아이젠을 등산화에 착용한 상태에서 설사면을 걸어가는 기술) 등을 전수받게 된다. 이후 한라산에서는 이러한 등산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한라산에서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1985년에 결성된 제1기 한라산산간학교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던 30여 명의 회원이 학생으로 참여한 이 학교는 등산에 필요한 산악기술과 등산의 역사, 알피니즘의 정신 등 다소 생소한 체험을 하게 된다. 사실 등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스포츠적인 측면이 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이라는 대상과 합일을 이루려는 인간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등산의 문화적 측면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등산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라산에서 이러한 산악운동이 198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점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산악운동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무렵 제주의 산악계에도 암벽등반의 열풍이 불어왔다. 등산의 모든 행위는 사실 걷는 등산에서 시작된다.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 평지를 걷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길은 단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소통의 길이지만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황무지와도 같은 자연 속으로 동화되는 길이다. 인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의 길에는 소통을 위한 길에서는 볼 수 없는 바위가 있으며 계곡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다. 산악인은 그러한 험난한 자연의 길을 몸으로 겪고 이겨내면서 그 정신의 세계를 넓혀간다. 그런 의미에서 등산을 무상의 행위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제주의 산악인들은 한라산 곳곳에 산재한 계곡과 바위 등을 탐험하여 왔다. 어리목골의 선녀바위와 탐라계곡, 백록담 화구벽의 남벽 등 험난한 길을

찾아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갔고, 1970년대는 그런 개척등반의 초창기라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한라산이 우리나라의 일곱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한라산에서의 산악운동 또한 위축되기에 이른다. 여기에서 1980년대 들면서 국내 산악계에 불어닥친 자유등반의 열기가 제주도에도 파급되면서 등반의 대상지도 한라산을 떠나 제주도의 계곡 등지로 그 영역의 폭을 넓혀갔다. 애월읍 광령의 무수천이 그 자유등반의 메카로 등장하게 된다.

무수천은 한라산 정상 서쪽의 어리목골에서 발원한 계곡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경계선을 이루며 외도 바닷가로 흘러드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물줄기 중의 하나이다. 이 계곡에는 용암이 흘러내리던 자국을 따라 미끈한 현무암벽들이 계곡 양쪽을 두르고 있다. 높이가 고작해야 20여m도 되지 않는 바위이지만, 수직의 형태이고 때로는 동굴처럼 천장을 드리우기도 한다. 짧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오를 수 없는 벽. 그것이 산악인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대상이 된 셈이다.

1980년대에 국내산악계에 던져진 화두는 바로 그것이다. 짧으면서도 강력한 에너지의 분출을 요구하는 수직의 암벽. 예전의 암벽등반은 사실 기구를 이용한 것이었다. 즉, 바위 틈새에 썬기와도 같은 기구를 삽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바위를 오르는 소위 '인공등반'이다. 그러나 오로지 인간의 육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무기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암벽등반(프리등반)의 개념인데, 1980년대의 광령계곡은 제주도에 그 자유등반의 메아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야외음악당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광령계곡의 암벽에는 전위적 모험심에 불타는 제주의 산악인들의 피와 땀이 어린 '길'이 십여 개가 있다. 이 '길'은 두 발로 걸어가는 수평의 길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발로 기어가는 수직의 길이다.

그 동안 제주도 내에서의 산악운동은 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걷는 등산 위주였다. 물론 대정읍의 단산과 서귀포의 외돌개 해벽, 효례천의 계곡 등지에서 간헐적인 암벽코스 개척 등의 암벽등반이 행해졌다. 특히 한라산 어리목계곡의 선녀바위와 백록담 남벽 등지에서도 제주의 산악인들에 의해 암벽등반이 행해졌다. 1970년대에 개척된 이러한 암벽코스는 제주의 산악인을 길러내는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다가 국내 등반계에 자유등반의 바람이 불면서 이 곳 제주도에도 광령계곡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암벽등반 코스가 개척되었던 것이다. 이 광령계곡의 암벽코스들은 당시 등반수준으로도 전국 다른 시도의 암벽에 대등할 정도였다. 자유등반을 위한 코스에는 5.9급에서부터 5.14급까지 암벽을 오르는 난이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데, 광령계곡에는 5.12급대의 코스가 제주의 클라이머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 곳은 등산잡지 등을 통해 전국의 클라이머들에게 소개된 이후 내로라하는 클라이머들이 방문하여 등반하기도 했다.

암벽등반과 더불어 산을 오르는 등산기술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빙벽등반기술이다. 한라산에는 탐라계곡과 영실 등에 빙벽 등반을 할 수 있는 빙폭(氷瀑)이 있다. 빙폭은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흐르다가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물 표면이 부풀어 오르면서 얼어붙는 빙벽을 말한다. 영실계곡의 중앙폭은 20여m의 높이에 수직으로 고드름 덩어리의 얼음이 얼어붙어, 1980년대부터 빙벽등반이 행해졌다.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설악산 토왕성 빙폭이 완등된 후 빙벽등반기술이 일반화되면서 전국의 빙폭들이 등반대상지로 떠올랐다. 게다가 빙벽등반 장비의 발달로 이러한 빙벽등반은 급속하게 산악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특히 해외의 거봉, 즉 알프스나 히말라야 등 하얀 산을 가기 위해 빙벽은 반드시 익혀야만 하는 등반기술 중의 하나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한라산에서도 영실 중앙폭이 등반대상지로 떠오르게 되는데, 1980년대 무렵부터 빙벽등반이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1980년대 들어 제주산악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등반기술의 영역도 그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등반기술의 확장과 더불어 1980년 말 이후 불어닥친 해외여행 자유화의 훈풍으로 제주 지역 산악인들의 알프스나 히말라야 등 해외원정등반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바탕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져진 산악등반 기술이 밑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1986년에는 전국 규모의 히말라야 원정대에 제주산악인이 참여하게 된다. 바로 '86아시아게임을 축하하기 위한 대한산악연맹 주최의 K2봉(峰) 원정대에 서귀포백록산악회의 배종원 대원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K2봉은 8,611m로 세계 2위봉이지만 가파른 암벽과 거센 바람, 낙석과 눈사태 등 험난한 등반과정 때문에 '죽음을 부르는 산'이란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등반이 어려운 산이었다. 당시 세계 최고봉이던 에베레스트보다도 더 등정하기 어려운 산으로 정평이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히말라야의 거봉을 우리 제주산악인도 등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1980년대에 비로소 실현되게 된 것이다. 특히 제주의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를 올라갔던 고상돈이 제주 출신이라는 자긍심이 있었다. 게다가 1979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에서 제주 출신 산악인 박훈규 대원과 함께 등정 후 하산 길에 하얀 산에 영원히 묻혀 버린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제주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맥킨리에 대한 원정등반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선배 산악인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하얀 거봉을 후배 산악인들이 절실히 원했던 것은 인지상정이었던 것이다.

6 1990년대의 산악활동

1980년대 들어 다져진 산악기술의 발달과 산악문화의 활성화로 제주산악계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등산대상지의 영역을 넓히게 된다. 해외 거봉으로의 진출이 많아진 것이다. 1991년 대한산악연맹에서 주최한 초오유·시사팡마 원정대에 제주산악회의 고상현 대원이 참가했다. 이듬해에는 국내 최초로 여성들로만 구성된 여성에베레스트 원정대의 정찰 등반에 제주산악회의 임희재 대원이 제주를 대표하여 참여하게 된다. 임희재 대원은 이후 1993년 여성에베레스트 등반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제주산악인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원정사고도 잇달았다. 1992년 제주상고 출신들로 구성된 제주산악연맹의 설암산악회에서 히말라야의 랑탕리룽(7,234m) 동계초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그러나 설암산악회의 랑탕리룽 원정대는 정상 등정 후 김진현 대원이 두 명의 셸파와 하산 도중 조난사고를 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또 같은 해 5월 제주대학산악회의 양영수·진성종·홍성탁 대원이 북미의 최고봉 맥킨리에서 눈사태로 조난사고를 당하게 된다.

연이은 해외에서의 조난사고로 제주산악계는 한동안 시련을 맞아야만 했다. 1979년에 이은 대형 조난사고의 발생은 제주도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제주산악인들은 이러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이후로도 끊임없는 훈련과 담금질을 통해 해외 거봉 등반으로 진출하여 제주산악인의 기개를 떨쳤다.

이러한 도전정신은 1999년 가을 세계 6위봉인 히말라야의 초오유(8,201m)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제주도산악연맹이 주최한 이 원정대는 1979년 맥킨리에서 고상돈과 함께 등반 중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는 아픔을 겪었던 박훈규 대장이 제주의 산악인들을 인솔하여 히말라야의 정상에 제주 산악인의 기개와 용기를 심었다. 이 등반에서 김상조·강성규·문봉수·오희준 대원 등 4명이 48일간의 악전고투 끝에 히말라야 초오유의 정상에 서게 된 것이었다. 이후에도 제주의 산악인들은 히말라야는 물론 제3의 극지라는 북극과 남극 등에도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등반대상자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 나갔다. 이러한 활발한 해외 원정등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라산에서의 갈고 닦은 기량도 기량이거니와 한라산이라는 모산(母山)에서 몸에 밴 산악인으로서의 불굴의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7 2000년대의 산악활동

2001년 벽두 한라산에서는 제주의 젊은 산악인들이 눈사태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아직 한겨울 한라산의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2월 16일, 용진각 계곡 일대는 희뿌연 안개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제주도 내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계합동훈련팀은 용진각에서 안개 자욱한 꼴르와르(계곡과 능선을 잇는 비탈의 오목한 부분)를 통해 장구목 정상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당시 장구목은 서북풍에 실려 온 눈들이 장구목 정상의 바위에 가로막히면서 덩이를 이룬, 일명 눈 처마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 눈 처마는 기온이 내려가는 밤중이나 새벽녘에는 바위와도 같이 단단한 편이지만, 한낮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한라산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눈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훈련 팀이 이 날 훈련을 하던 장소가 바로 이 눈 처마 바로 아래의 꼴르와르였던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0시 경, 훈련대원 8명이 가파른 계곡을 올라선 후 정상 바로 아래의 능선에 올라서던 순간이었다. 안개 속에서 집채만 한 눈덩이들이 순식간에 대원들을 삼켰다. 8명의 대원 중 가장 선두에 섰던 변모 대원(모대학 산악부 OB)만이 쏟아지던 눈덩이의 충격으로 50여m정도 튕겨 나갔고, 나머지 대원들은 대부분 눈 더미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사고 직후 눈 더미 속에서도 나무에 부딪힌 대원들은 다행히 눈 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나왔다. 대부분 타박상과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8명 중 4명만이 무사했고 나머지는 모두 눈 속에 잠긴 것이다. 대원들은 서둘러 눈 속을 수색했다. 사고 직후 10여 분의 시간이 긴박하게 지나갔고, 눈 속에서 나오지 못한 것은 3명이었다. 박윤복·강우석·박미정 대원이었다. 송영학 대원은 급히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용진각으로 내달렸고, 나머지 대원들은 계속해서 세 명의 대원을 번갈아 애타게 부르며 스키스톡을 이용하여 눈 속을 탐침하는 구조작업을 벌였다. 용진각에 도착한 송영학 대원은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등산객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고소식을 적십자산악안전대에 알렸다. ‘용진각에서 눈사태 발생, 3명 실종, 급히 구조 바람’이라는 구조요청을 하자마자 송영학 대원은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올라갔다. 사고 발생 1시간 후, 실종된 대원 중 장우석 대원이 발견되었다. 눈 속에 파묻히면서도 장대원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있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그는 눈 속에 파묻혀간 것이다. 장우석 대원을 발견한 바로 옆에서 박윤복 대원의 배낭이 잇따라 보이면서 구조작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들은 두 대원을 눈 밖으로 꺼낸 다음, 곧바로 인공호흡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흐른 뒤였다. 부상당한 몸으로 구조작업을 하던 훈련대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이 때 정상 부근에서 산악훈련을 하던 목포대 산악부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송영학 대원의 구조 요청으로 사고소식을 접한 국립공원과 적십자산악안전대에서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목포대 산악부원들에게 사고소식을 알린 터였다. 곧바로 목포대 산악부원들이 마지막 남은 박미정 대원의 구조에 가세했다. 이윽고 한라산국립공원의 구조대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20여 명이 넘는 구조대는 눈사태가 난 지역 일대를 샅샅이 탐침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30여 분 후, “찾았다.” 는 외침이 들렸다. 인근의 구조대원들이 모여들어 눈을 파내기 시작했다. 배낭이었다. 박미정 대원의 것이었다. 다시 주변을 뒤졌다. 잠시 후 다시 외침이 들렸다. 이번엔 헬멧이었다. 박미정 대원의 하얀 헬멧. 눈을 조금씩 걷어내자 웅크린 자세로 1m 깊이의 눈 속에 누워 있는 박대원의 모습이 드러났다. 안개는 여전히 용진각 계곡의 하늘을 덮고 있었고, 사위는 어느덧 어둠을 향해 가고 있었다. 사고소식을 접한 적십자산악안전대원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고, 제주지역의 방송국과 신문사 기

자들도 1,500고지의 용진각 산장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한라산 인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특전사 대원들도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원들은 부상당한 대원들의 치료를 위해 우선 후송했다. 계곡을 뒤덮은 안개 때문에 헬기구조는 불가능했고, 7km에 이르는 험악한 산길을 들것으로 후송해야 했다. 이 날 밤 자정이 되어서야 구조작업은 끝이 났다. 구조대를 비롯한 군인과 경찰 등 200여 명이 투입되었다. 다행히 구조 작업 중에는 2차 눈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신속하게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고 수습 후 용진각 계곡의 눈 속에서 산화한 장우석·박미정 대원은 사후 영혼결혼식을 치러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제3장 한라산의 훼손·복구 및 자연보호

한라산에는 따뜻한 기후에서 생활하는 생물에서부터 추운 기후에서 생활하는 생물에 이르기까지 각종 희귀 동·식물이 함께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관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자원의 보전 및 학술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광 등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면에서도 대단히 소중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한라산,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과 국민의 다양한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 증대로 등반객의 이용이 증가하여 인위적인 요인은 물론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훼손이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한라산국립공원의 경관자원과 자연생태계 보전 문제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당국과 국립공원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협조 없이 공원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원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중점대책과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정규 관리계획은 아주 미흡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한라산국립공원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당국은 정규관리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잘못된 이용에 의해 야기된 경관 및 생태계 훼손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훼손지(毀損地) 복구 및 시설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또한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관리자나 용역기관의 전문가는 계획 관련분야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관리와 자연공원관리의 개념을 혼동하기도 하고, 계획의 위계질서와 과정을 무시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로인해 국립공원관리 당국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노력이나 일반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은 이용의 편리성이 보장되거나 향상되지 못한 채 경관가치가 저하되고 자연생태계 교란의 위험에 처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한라산의 훼손을 예방하고 등산로 훼손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1986년부터 서북벽등산로(윗세오름~서북벽 정상)의 자연휴식년제(自然休息年制)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자연휴식년제는 한라산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일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접근방법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여러 보호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모노레일 설치, 케이블카 설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라산의 최대 현안 문제가 되었던 훼손이나 복구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보호사업이나 계획 등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1 한라산 훼손지 복구역사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를 중심으로 훼손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은 1985년 12월 제주도에서 발표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漢拏山天然保護區域) 학술조사보고서(學術調查報告書)』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생태계 파괴 실태파악과 자연자원의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조사단장 : 김형욱)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결과이다. 다만 1985년 7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특정지역 제주도개발계획’에서 일부 한라산의 보전을 위한 한라산 입장객의 상한설정, 등산코스의 다양화, 등산로 윤번제 운영, 입장객 예약제, 계절별 차등 입장요금 적용, 단체등산금지 등의 보전대책을 제시한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한라산 훼손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에서 각 등산로의 고도별 파괴(破壞)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발 1,400m 이상에는 등산로 이외의 여러 갈래 길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이 몹시 파괴되어 돌이 돌출되고 고랑이 만들어졌다고 보고하면서, 백록담 일대와 장구목 일대가 훼손이 심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 당시 훼손대책에 대한 제언을 보면 “천연보호구역에는 아직도 우마(牛馬)를 방목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식생이 훼손되거나, 등산로가 무너지는 일이 빈번하고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시원점(始原點)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등산로 중 돌로 바닥을 깔았거나 계단을 만든 경우 등산객들이 장시간의 등산으로 딱딱한 돌바닥을 피(避)해서 그 옆을 밟고 지나가며, 또는 보폭을 고려(考慮)하지 않은 돌계단을 기피(忌避)함으로 해서 등산로 주변의 훼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괴된 등산로를 보수할 때는 돌 대신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보폭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의 한 방안으로 가운데에 빈 시멘트 블록을 만들고 흙을 채워 시설해 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실코스과 어리목(어승생)코스의 몇몇 곳과 장구목 지역들은 강우 시에 지표를 흐르는 빗물을 고려하지 않고 등산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심한 훼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절한 수로설치(水路設置)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표토가 유실되어 식생이 훼손된 곳은 정비하여 주변 식생을 인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일도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윗세오름 대피소 주변은 이미 상당한 면적의 훼손이 발생해 있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미 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진 어떤 지역을 선택하여 야영지로 지정하고 단 곳은 일체금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을 보면, 당시 한라산 등산로나 대피소 등의 이용 행태를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게 한다. 이처럼 한라산의 훼손은 1980년대 초에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복구나 보호대책은 그 당시에 아주 미흡했다.

더욱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백록담을 일주하는 길은 비교적 좁으나 모든 등산객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식생은 완전히 훼손되어 있고, 특히 정상 주변에는 폭 11m, 길이 30m 가량의 면적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그리고 일주로 중에서 관음사코스로 내려가는 곳에서부터 성판악코스로 내려가는 곳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서북벽의 서쪽과 남벽 주위가 각각 15~20m 정도로 훼손 정도가 심했다. 동벽 주변은 17~30m 정도의 면적이 훼손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정상의 일주로에서 분화구 밑으로 여러 군데 수로가 형성되어 계속 토사가 밀려 내려가서 백록담이 얕아지고 분화구 내의 식생이 계속 파괴되고 있으며, 특히 관음사코스로 내려가는 부근에는 분화구 속으로 풍화된 암반과 토사가 심하게 흘러내리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훼손문제 제기 등으로 1986년 제주도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백록담지구 훼손지 복구공법 연구보고서 - 기초적 연구 및 복구시설 설계 -’ 용역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부속 농업개발연구소(연구책임자 : 우보명 교수)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 보고서에는 백록담 사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복구공종을 제시하면서 훼손지 및 산사태지 800㎡에 대해서는 야면석을 이용한 돌흙막이 공사, 돌 수로 공사 등 15공종의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속 작업은 중앙문화재위원회의 거부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987년 정우엔지니어링(연구진 : 이영길 기술사 및 도시계획팀)에는 자연환경 훼손방지 및 접근로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접근로 및 이용방안 개선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그 결과 성판악지구 도로건설이나 1100고지에 로프웨이(rope way) 등의 보전대책이 제시되었는데, 훼손지 복구공사에 대한 시행 접근은 미흡하였다. 또한 1987년 정우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한라산국립공원계획을 수립토록 용역이 실시되었으나 보전이나 관리목표가 막연하고 관리방향이 명확치 않으며, 제안된 등산로를 단일등산로로 정비나 통제, 로프웨이 설치, 입장객 제한, 사방사업설치 등 보전수단이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연구진이 제시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나 돌 포장도로는 고산지에 위치한 국립공원의 도로개념에 부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후 1991년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한라산 등산로 훼손지 복구 실시설계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책임연구원 : 박종화 교수)에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1991년부터 공원당국에서는 장구목일대 등에 양카매트 포설공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1993년 ‘한라산 등산로 및 남벽 정상부 훼손지 복구설계’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책임연구원 : 박종화 교수)에 다시 의뢰하게 되었는데, 이 때 지금까지 훼손지 복구공사로 시행되고 있는 녹화매대(green bag) 공법이 제시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 장구목 일대 및 남벽정상 등을 시작으로 녹화매대 공법에 의한 훼손지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면서 한라산 훼손지 전역에 동일한 공법으로 훼손지 복구공사가 실시된다. 그리고 몇몇의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1997년에는 ‘한라산 정상보호계획’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속 환경계획연구소(소장 : 김정욱)에 의뢰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비교적 기존 훼손지 복구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별 훼손지 복구공법이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훼손지 복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진다. 이후 훼손지 복구와 관련한 용역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백록담의 고갈현상(枯渴現象)과 암벽붕괴(岩壁崩壞) 원인 분석을 위한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 용역’을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이처럼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 및 자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용역은 지난 1985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를 시작으로 2004년 ‘한라산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붕괴 방지방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과정에서 한라산 훼손지에 대한 적절한 공법 제시 미흡 등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훼손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2 한라산 훼손 유형 및 원인

훼손 현황

한라산은 지형이나 지질적 특성과 등산객의 과도한 이용 등에 의해 등산로 주변과 정상부 일대에 훼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라산의 훼손 면적에 대한 마지막 조사는 지난 2000년 제주도에서 실시한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 수립' 용역이었는데,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훼손면적은 22.5ha(225,870㎡)로 파악되었다. 이들 훼손 면적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어리목등산로 주변 훼손 면적이 74,000㎡로 전체 면적의 32.8%를 차지하여 가장 넓은 훼손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실등산로 주변이 24.4%로 관음사나 성판악등산로 주변의 2.1%, 0.6%에 비해 훨씬 높은 훼손 면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훼손 면적의 분포는 탐방객의 한라산 이용 행태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라산 등산로 주변의 훼손은 탐방객의 이용 정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분석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정상부 일대는 전체 훼손 면적의 17.9%인 40,320㎡로 단위면적당 훼손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난 1993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라산의 훼손지 면적이 195,300㎡로 조사되었는데, 7년이 경과한 2000년에는 15.7%인 30,570㎡가 증가한 225,870㎡로 나타나 지속적인 복구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상부 일대의 경우는 지난 1986년부터 출입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등산객 통제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993년 이후 7년 동안 훼손 면적이 142.9% 증가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등산객 답압(踏壓)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초기 발생된 훼손지가 집중강우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복구 면적은 전체 훼손 면적의 58%인 131,240㎡로 나타났고, 앞으로 산술적으로 94,630㎡를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 유형

한라산의 훼손은 토양침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토양침식은 주로 물, 바람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토양입자가 분리되고 분산되어 이동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침식은 정상 침식, 즉 자연적인 지표의 풍화상태로서 토양의 형성과 분포에 기여하는 자연 침식과 이상침식이 있다. 이상침식은 정상 침식보다 더 빠른 침식으로서 주로 사람의 작용에 의한 지피식생의 파괴와 물이나 바람 등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속침식으로 구분된다. 한라산의 훼손지는 가속침식중에서 우수침식과 붕괴형 침식이 주로 진행되었다.

한라산 등산로별 훼손 유형을 살펴보면, 전 등산로에 대한 훼손 유형은 거의 유사하지만 훼손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유형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어리목등산로는 전 구간이 답압에 의한 등산로 및 주변지피식생의 사멸이 초래되었고, 고산 초지 및 관목림지대는 등산로 주변에 면상침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어리목등산로 해발 1,400m 이상 지역인 사제비등산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등산로 주변에서 쉽게 관찰된다. 영실등산로는 전 구간이 답압에 의한 등산로 및 주변지피식생의 사멸과 토양의 고결화가 이루어졌다. 고산 초지 및 관목림지대는 어리목등산로와 유사한데, 해발 1,600~1,700m에 위치한 선작지왓 일대와 윗세오름 일대 등산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판악과 관음사 등산로는 등산로 종 침식, 등산로 및 주변식생의 사멸, 등산로 주변 구곡침식이 이루어졌으나 등산로로 이용되는 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훼손 정도가 미미하다. 한편 정상 일대의 경우 지피식생 훼손에 따른 집중 강우 등에 의한 토양침식이 화구호로 유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석, 기반암 붕괴 등에 의한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벽 및 서북벽은 낙석이나 기반암 붕괴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이고, 지피식생 훼손 등의 현상은 과거 등산로로 이용되었던 정상 순환로와 분화구 내사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훼손과 환경조건

식생구조 및 답압

최근 20여 년 동안 한라산의 식생보전을 위해 여러 번의 기초조사 과업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등산로나 등산객 집결지에 분포하는 자연식생에 대한 답압 저항성, 훼손지에 유입되는 선구식생의 종류 및 유형, 고산 초지 구성종의 발아력, 내침식력 등 훼손과 식생과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제시된 적은 없다. 식생의 답압 저항력이나 내침식력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더라도 각 등산로 주변을 관찰해 보면 등산로 주변의 파괴 정도가 식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즉, 낙엽활엽수림과 침엽수림지대의 각 등산로에서는 침식 및 등산로 확장, 또는 셋길형성현상은 나타나나 등산로 주변의 하층식생은 그다지 파괴되지 않는다. 이는 등산객들이 등산로 주변에 발달한 관목성의 하층식생을 잘 통과하지 않는다는 보행특성에도 기인하지만 식생 유형에 따라 답압이나 침식에 대한 저항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서 관목림 및 초원지대에 위치한 거의 모든 등산로에서는 그 주변 식생파괴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지화(裸地化)의 면적도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산 초지를 구성하고 있는 김의털(*Festuca ovina*)이나 검정겨이삭(*Agrostis trinii*) 등으로 구성된 초본식생이 답압에 취약하며 회복도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0년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 용역에서 한라산 아고산대 초지군락의 답압 실험을 실시한 결과, 65kg의 학생이 20회 이상 답압(踏壓)시 지표식생이 파괴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한라산 아고산대의 답압에 의한 훼손취약성이 높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등산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고산대는 등산객에 의해 쉽게 훼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등산로별로 출현 빈도는 약간씩 다르지만 정상부로 올라갈수록 교목성 목본식생보다 털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for. *ciliatum*), 산철쭉(*Rhododendron yedoense* var. *poukhanense*), 시로미(*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눈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등 관목성의 목본류와 김의털 등의 초본식생이 발달하고 있다. 이들 초본식생은 답압에 쉽게 마멸될 뿐만 아니라 근계가 깊게 발달하지 못하여 쉽게 파괴되고 있다. 등산로나 등산로 주변의 나지에 이입하는 선구식물들을 보면 근경을 형성하는 제주조릿대(*Sasa quelpaertensis*)와 호장근(*Reynoutria elliptica*), 한라고들빼기(*Youngia denticulata* var. *alpina*), 털새(*Arundinella hirta* var. *ciliata*) 등 초본류가 가장 먼저 근경을 뺏거나 착생하는데, 이러한 식물들이 다른 식물 종들보다 답압에 비교적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해발고도 및 경사

한라산에서는 고도가 높을수록 식물의 생육기간이 짧고 적설(積雪) 및 결빙(結氷)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므로 고도가 높은 훼손지는 저지대의 훼손지에 비해 동일한 강우조건에서도 단위면적당 토양 침식량이 증가하고 식생 회복력도 저하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한라산 훼손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보고서들을 보면, 한라산의 지형이나 지질, 토양에 관한 조

사결과는 많으나 고도 및 경사 등의 지형 여건과 훼손과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실험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다. 1997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의뢰한 ‘한라산정상보호계획’ 용역 보고서에 일부 제시되는 것에 그쳤다.

한편,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표토의 침식은 답압에 의한 나지화 저항성, 식생의 근계(根系) 특성, 부식(腐植)이나 함수량(含水量) 등 표토(表土)의 조성, 표토의 두께 등과 경사와의 관계로 결정되며, 이들은 식생유형(植生類型)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여기서 식피지(植被地)와 나지(裸地)에서 토양의 유실량이 다른 것은 분명하지만 유연한 표토와 견고한 심토(深土)에서는 그 성질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심토의 발달 정도와 토심의 깊이가 각각 다른 한라산의 경우에 훼손지의 침식(浸蝕)량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훼손지는 그 침식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경사도 40% 이상의 급경사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 정상 화구호 내사면, 정상부 서북벽등산로, 남벽등산로의 1,625~1,890m구간(34. 경사)은 경사가 심하여 침식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실제로 남벽등산로는 개설된 후 단기간 내에 심각한 수준으로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남벽은 등산로가 비탈면에 대해 직등(直登)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등산로의 종단구배가 높아 강우 시에는 등산로를 따라 빗물이 흐르고, 침식력이 증대된 유수(流水)에 의해 등산로 주변이 침식이나 붕락될 가능성이 높았다. 관음사등산로나 성판악등산로는 그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여 산사태나 붕괴의 위험은 남벽등산로보다 낮은 편인데 일부 구간에서는 침식구(浸蝕區)가 발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토가 유실되어 심토가 노출되는 정도의 파괴는 자연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침식구가 발달하게 되면 자연회복은 매우 어렵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부 등산로 주변에 발달한 침식 구역은 자연회복이 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침식 구역의 확장을 저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복구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훼손과 이용자 특성

한라산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입장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74년도에는 불과 3만3,000여 명이 공원을 이용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1990년대부터는 매년 50만 명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라산을 찾는 탐방인원을 통계하기 시작한 지난 1974년 이후 32년 동안 탐방객의 등산로별 이용 상황을 보면, 어리목과 영실의 2개 등산로에 79.6%의 등산객이 집중되고 있으며, 성판악과 관음사등산로는 20.4%의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리목과 영실등산로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상 통제 등의 이용객 분산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에는 어리목과 영실등산로의 이용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일부 등산로의 이용 집중은 1980년대부터 영실과 어리목등산로 및 그 주변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 성판악등산로는 정상 부까지 크게 파괴되었다.

한편, 200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수는 연 73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라산의 등산로별 생태적 수용능력조사는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된 본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용규모에서 급격한 생태계 파괴가 시작되는지를 명백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현재의 훼손 실태로 보아 돈내코등산로를 제외하고는 목재 데크 시설이나 자갈포설 등의 등산로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등산로가 자연조건에서의 수용능력의 범위를 이미 일찍부터 넘어선 것이 분명하므로 한계수용능력을 수치로 설정하여 확인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생태적 수용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 인해 일단 생태계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이용의 규제만으로는 손상된 생태계가 자연회복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도로 및 그 주변지역의 식생이 파괴되는 주요 원인은 사람이 밟을 때에 생기는 기계적 작용, 즉 답압(踏壓)과 방목지 등에서 동물이 밟아서 생기는 피해, 즉 제상(蹄傷)이다. 과거 방목금지 이전에는 일부 지역에서 제상도 있었지만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의 식생 피해의 일차적인 원인은 답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복구의 대상이 되는 훼손지는 등산객의 과도한 이용 또는 잘못된 이용 행태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이는 훼손 면적과 입장객 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쉽게 유의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의 규모와 행태를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라산은 전 국민에게 휴양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용의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나 이용 행태를 규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은 과도한 또는 잘못된 여러 가지 이용 행태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 행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규모를 조절하는 방법을 검토함과 동시에 생태계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편리한 등산로 시설을 설치하고, 훼손된 등산로 부지와 등산로시설의 내구력을 강화하며, 교육을 통해 이용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훼손 원인과 과정

일반적으로 등산로의 훼손 현상은 식생, 지형, 토양 등의 생태적인 조건과 등산로의 형식, 포장재료, 정비방식 등의 물리적인 조건 및 이용의 규모, 시기와 기간, 보행행태(步行行態) 등 이용상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파괴의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등산로의 정비와 식생복원시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라산국립공원의 특정 등산로와 그 주변 지역의 침식이나 일부 집결지의 훼손 규모와 정도가 어떤 생태적·물리적 환경 또는 이용 요인에 의해 야기됐는가에 대해 정량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었으며, 그 훼손 과정을 도면화(圖面化)한 사례도 거의 없었다. 현지 관찰과 기존의 자연지역 훼손 현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파괴원인과 과정을 유추해보면, 등산로 주변의 훼손은 일부 등산로 노선설정의 비적절성(非適切性), 불편한 등산로 포장시설, 답압에 의한 식물체의 훼손 및 사멸(死滅), 답압에 의한 토양의 고결화(固結化), 빗물에 의한 나지의 가속 침식, 잔존식생의 서릿발 피해, 진동에 의한 기반암 붕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백록담 화구호의 파괴는 내사면 붕락과 침식에 의한 암설과 토사가 화구호로 유입·퇴적되어 매몰, 급경사지 붕락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등산로 시설 파괴는 불량한 돌 포장 및 돌계단 구조, 과도한 답압, 등산로 시설 주변의 침식과 침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3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자연보호 현황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의 기본 원칙

선진외국에서는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지역의 관리자들이 탐방객 이용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 기법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첫째는 계획과 설계의 기법을 통하여 이용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둘째는 이용 금지와 이용제한 등의 방법으로 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셋째는 탐방로 체계의 조정, 교육의 실시와 정보의 제공으로 이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이용에 대한 내구력(耐久力)을 강화해 주는 부지관리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관리기법들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이용의 규제와 부지의 강화기법에 치중하고 있으며 계획과 설계기법에 대한 연구는 다른 기법연구에 비해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미국에 비해 영국의 경우는 자원보전과 이용의 효율적 관리계획에 대한 연구나 자연경관의 보전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물의 설계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특히 전 원위원회(Countryside Commission)의 훼손지 복구사례에 관한 기술보고서와 자연지역의 시설물설계 도면집은 그 질적 수준이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일본 국립공원협회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야외 레크리에이션 시설집(施設集)과 자연공원시설 정비지침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규제기법을 관리시책으로 채택하여 활용하기도 하고 설문 조사 때에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나, 이 기법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립공원의 정책이나 지침 등이 관리시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해당 지역의 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정규관리계획이 작성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의 영향을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하위계획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은 이용계획과 보전계획으로 구성되는데 이 훼손지 복구계획은 보전계획에 포함된다.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 현상을 보면 등산객의 답압으로 인하여 일단 나지화(裸地化)된 고산 초지(草地)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자연회복이 되지 않는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식생의 회복력보다도 침식력이 크며, 방치해두는 것만으로도 파괴가 계속 진행되었다. 식생의 회복력은 파괴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고산 초지에서는 처음 지 피식생의 지상부가 마멸되어 나지화되어도 아직 뿌리가 살아 있는 단계, 두 번째는 식생의 죽은 뿌리가 남아 있는 단계, 세 번째는 식생의 조직이 파괴되어 표토의 유실·침식·압축 등이 발생한 단계, 네 번째는 심토가 노출된 단계, 다섯 번째는 심토가 노출되어 침식구가 발달한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의 단계에서는 출입을 금지하여 답압을 막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며, 두 번째의 단계에서는 주변 식물의 근계신장과 종자 번식이 가능하다. 세 번째의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곳에서는 낙하한 종자도 씻겨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자연 복구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토양침식이 심화된 단계에 있는 훼손지는 이용을 금지시켰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복구하지 않으면 그 원래의 자연 특성이 회복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훼손지를 성공적으로 식생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3단계의 녹화공종을 훼손지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이 이러한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첫째, 식생 복원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한다. 훼손지를

식생공에 의해 녹화하는 것은 식생을 도입하여 토양침식과 비탈면 붕괴를 막고, 재해를 방지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된 경관이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 녹화 및 최종 복원을 어떠한 식생으로 해야 하는가’, ‘유지관리를 어느 정도로 실시하는가’ 등의 복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않으면 도입식물종이나 식생공의 유형과 공사규모가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복원의 목적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면 설계단계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공법과 재료를 선택하는 일도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나 관리단계에서 시공기술자들이나 관리자들이 계획자나 설계자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게 되어 복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사업 시행 후 사업 성공 여부를 평가·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녹화 상태의 최종 목표는 초지, 관목림, 교목림으로 크게 구별되나, 초지상태로 하는 데도 단일종(單一種)으로 하는 경우, 혹은 2~3종의 혼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목본군락으로 하는 데도 주요 구성 수종을 무엇으로 하는가 등에 따라 복원 목표가 달라진다. 둘째, 토양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식물의 생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초공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비탈면의 경우에는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물이 생육할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배수공 등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공이 완료되면 목표식생을 도입하기 위한 식생공(植生工)을 시행하여 녹화를 한다. 식생공의 계획단계에서는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여 녹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도입 식물종과 번식 방법을 결정한다. 특히, 한랭지인 한라산 아고산대의 경우는 동상(凍傷)이나 적설(積雪) 등의 장애에 견디어 낼 수 있도록 동계까지 전면피복을 완성시키는 것과 고사하지 않고 월동할 수 있는 크기까지 충분한 생육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동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되도록 배수를 좋게 할 필요가 있는데 한라산과 같은 고산 자연지역에서의 지표수 처리는 집중처리방식보다 분산처리방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식물 천이(遷移)에서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목본류(木本類)를 포함한 현지의 극상림(極上林) 상태의 자연식생 구성종을 도입하여 녹화하지 않으면 관리가 무척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넷째, 생육상황을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 후의 기반과 식생의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각종 관리가 필요하다. 식생에 대해서는 도입한 식물의 종류, 본수, 피도, 활력상황 뿐만 아니라 침입식물의 상황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상, 수년 내에 도입식생이 쇠퇴하고, 주변에서의 이입에 의한 식생천이가 시작되는 일이 많다. 마지막으로 녹화가 어려운 곳은 낙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방지 대책에 주력한다. 한라산의 정상부 일부는 현재의 기술과 장비로 복구가 불가능한 곳이 많다. 이러한 곳을 방치해 두면 침식이 계속 진행되어 낙석 재해가 뒤따를 수 있다.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 현황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는 1991년 어리목 등산로 주변에 식생 및 토양안정화 재료인 앙카매트를 이용한 공법에 의해 새 심기 공사를 시작으로 1992년에도 동일 공법으로 장구목 일대에 실시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는 백록담 남북 정상을 시작으로 흙이 담긴 녹화마대를 훼손지에 피복하는 공사가 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 공사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훼손지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훼손지 복구에 따른 자재와 흙을 운반하는 데 헬기를 이용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넓은 면적을 복구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숲지대나 작은 면적의 복구에 경제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어리목등산로에 단선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각종 자재를 운반케 되어 지속적인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지난 1986년 '한라산 백록담지구 훼손지 복구공법 개발에 관한 기초적 연구 및 복구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이루어진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암벽 붕괴방지방안'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라산 훼손지 복구와 관련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대학과 기술용역업체에 용역과업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복구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제안된 계획과 설계에 근거하여 시행된 일부의 복구사업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일부의 경우는 연구진의 의도를 감독자나 시공사 또는 관리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그 원인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중 1991~1992년에 앙카매트 포설 및 새 심기 공법에 의해 복구한 장구목일대 등 일부 지역은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식생 피복율이 5% 미만으로 식생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중강우에 의한 토양유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훼손 면적이 증가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복구 실패의 예라 할 수 있다.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공법들은 고산과 같은 한랭지가 아니라 저지대의 사방공사(砂防工事) 등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적용되는 토목구조물 또는 사방공작물의 설치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사의 실패원인은 공사지역이 화산회토 등으로 이루어져 지반이 연약한 곳이거나 적설이 많은 한랭 지역에서 도입된 구조물이나 식생이 동상을 입게 된 탓으로 판단된다.

한편 등산로 주변 훼손지 복구의 연중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한 기간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1997년 10월 어리목~윗세오름 구간에 4.7km에 걸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 당국에서는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훼손에 영향을 주지 않게 설치된 단선 모노레일이 첫째, 연중복구체제 구축 및 기존 복구 공사비의 60%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둘째 45. 까지의 경사면이나 숲지대까지 시설이 가능하여 헬기 등의 자재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복구가 가능하고 셋째, 항공운송비의 절감으로 동일 예산으로 많은 면적의 복구가 가능하고 넷째, 산악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운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조난자나 환자구조에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한라산 복구 작업과 병행한 주요한 성과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 및 산사랑 전 도민 운동으로 1997년 3월 23일부터 전개했던 훼손지에 "흙 한 봉지 나르기 운동"은 제주도와 제민일보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 제주연맹 및 도내 각 직장산악단체가 후원하는 '한라산에 새 생명을...'의 환경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진 운동으로, 한라산을 찾는 등반객들이 흙 한 줍씩을 들고 파손현장을 찾아가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자연사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어리목등산로 등 4개 등산로 입구에 흙이 담긴 그린백(마대)을 마련, 등반객들이 이를 복구지역까지 옮겨 더 이상의 침식과 토사유출을 막고 우리가 망쳐 놓은 한라산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자는 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도내·외 신문 등 언론, 학계 등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1997년 3월 23일에 당시 신구범(愼久範) 제주도지사, 제민일보 김효황(金孝晷) 회장,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 김영훈(金榮訓) 회장을 비롯한 공무원, 산악인, 도민 그리고 관광객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리목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흙 한 줍 나르기 운동을 시작한다. 더욱이 이 날 운동에는 38개 기관·단체(대구광역시 청운산악회, 법무사 김승용사무소, 제주도청, 제주시청 산악회, 북제주군청 산악동우회, 방송통신대 산악동우회, 한국 BBS 제주연맹, 청솔회, 제주은행 산악회, 임업협동조합 제주도지회, 부산5동회, 제주교도소 봉사회, 대한산악연맹 제주도연맹, 제주대 직장산악회, 표선상고 산악부, 일심 산악회, 한국통신 제주통신망운영국 한라산악회, 제주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명산악회, 서귀포시 영천산악회, 한국전력 서귀포지점, 굽부리산악회, 한국전력

제주지사, 표선산악회, 제주Y산악회, 한국활공협회 제주지부, 서귀포 백록산악회, 부천 한마은회, 제주도 관광협회, 경동보일러 제주대리점, 제주신라호텔, 서귀포 교육청, (주)남주개발 하얏트 호텔, (주)한라중공업, 축협중앙회 제주도지회, 제주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한국보이스카웃 제주연맹, 제민일보) 등이 참여하면서 운동 열기를 높게 하였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만6,600여 명이 동참하여 6만4,454kg의 흙을 옮기는 성과를 거두는 등 지난 2001년 12월말까지 624t의 흙을 운반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 운동은 이러한 거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탐방객에게 한라산 되살리기에 대한 의식과 함께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신운동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5년 12월 현재 한라산 전체 훼손 면적의 64.9%인 146,540㎡가 복구되었으며, 앞으로 79,330㎡를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구 면적은 지난 1991~1992년에 어리목 등산로 주변과 장구목 일대 등에서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한 양카매트 포설에 의한 복구 면적 9,960㎡를 제외하고 지난 1994년부터 녹화마대 공법에 의해 실시된 복구면적이다. 이는 양카매트 포설에 의한 복구 가 식생복원 등에 효과가 미미하고 훼손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이들 지역에 다시 녹화마대 공법에 의한 복구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997년부터 이루어진 식생 복원사업은 복구지 주변의 자생식물종자 1,450ℓ를 채종하여 73천㎡에 파종하였고,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제주도 수목시험소 및 한라산연구소 등에서 증식시킨 아고산대의 자생식물 36종 256천여 본을 복구지에 식재하는 등의 식생복원사업이 이루어졌다. 주요 수종으로는 목본류가 구상나무, 떡버들, 시로미, 눈향나무, 산수국, 백리향, 산철쭉, 털진달래 등 18종이며, 곰취, 눈개쑥부쟁이, 한라부추, 섬바위장대, 설앵초, 호장근, 한라구절초, 구름체꽃, 한라개승마, 섬잔대, 용담, 수리취, 한라장구채 등 18종의 초본류가 복원되었다.

훼손지 및 복구지 식생 변화

한라산의 훼손지역은 처음 등산로 개설 때 주변의 돌을 사용하여 흙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었고, 사람의 답압으로 식물이 죽게 되고 흙이 유실되면서 본격적으로 훼손이 급진되었다. 이들 훼손지는 복구 목표에 따라 안정된 식생 생육기반을 조성해야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흙을 구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흙을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구할 수 없고, 국립공원 내에서 흙을 채취할 경우 또 다른 훼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지대의 흙을 고지대로 운반하고 있는데, 이는 저지대 흙이 고지대로 올라갔을 경우 흙속의 씨앗이 발아(發芽)하여 고지대 생태계를 교란(攪亂)시킬 가능성도 있다. 즉, '저지대 흙속의 씨앗 및 미생물로 인한 고지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고지대 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책으로, 첫째는 흙 자체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표토를 사용치 말고 심토를 사용하여 문제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조사구를 설정하여 실험을 병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저지대 묘포(苗圃)장에서 복구에 사용할 식물을 양생하여 복원하고 있다. 더불어 고지대에 적응해 온 식물이 저지대에서 자라온 식물을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지대로 옮긴 흙에 한라산의 고지대에서 채종한 여러 종류의 고산성 자생식물(自生植物) 종자를 파종시키고 있다. 네 번째는 저지대에서 올라온 식물은 매년 개화기 이전과 결실 전에 걸쳐 예초(刈草) 및 제거를 하여 확산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훼손지 및 복구지역 식물의 재생과 그에 수반되는 현상을 규명하고, 기반 안정 후 식생

복원의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한라산 복구지 및 훼손지 식생 변화를 1997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 조사는 장구목 복구지역 등 10개 지역에 조사구 및 시험포를 조성하여, 저지대 식물의 유입과 생존 여부 규명, 고지대 자생식물의 유입과 피복이나 복원 소요시기 파악, 훼손 지역 내 식생 변화와 자생식물 자생력 등을 규명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주요 수종(樹種)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거나 종간 상대적 우점도 조사, 수종간 출현빈도 조사 및 종구성의 다양성 분석, 조사구간의 종구성간 유의도(有意度)나 상이도(相異度) 및 천이(遷移)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결과 중 일부는 지난 2002년 한라산연구소에서 발표되었는데, 이들 자료는 고지대 훼손지 식생 복원 때 기초자료 제공 및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라산 훼손지 복구 후 식생 피복도의 변화

한라산 복구지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에 대한 한라산연구소의 지난 2002년 조사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식생 피복도의 변화는 아고산대의 훼손지 중 1997년 이전에 기반 안정을 시키는 복구공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4~10년이 경과한 후의 식생 피복도는 복구지역에 따라 평균 5.3~97.5%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구 공법, 경과 기간 및 위치 등에 의해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 1994년 녹화마대 피복 공사를 실시하여 7년이 경과한 남벽정상 일대, 장구목 일대, 사제비동산 일대 등 3개 지역의 식생 피복도는 평균 72.2~97.5%를 나타내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남벽정상 일대와 동일 공법으로 복구하여 4년이 지난 윗세오름 일대 복구 지역은 식생 피복도가 평균 43.3%를 보여 다소 낮았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 1991년 한라산 훼손지 복구에 처음 시도되었던 토양안정재료인 앙카매트로 복구 공사를 실시한 장구목 일대의 복구 지역은 복구 후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식생 피복도가 평균 5.3%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 지역은 복구 공사 5년 후에는 식생 피복도가 평균 11.3%였는데 오히려 감소된 결과를 보여 식생훼손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앙카매트로 복구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한라산의 환경에서 식생 복원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의 복구 지역별 식생 피복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벽정상 일대는 복구 후 3년이 경과한 1997년에 평균 37.2%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복구 후 7년이 지난 2001년의 식생 피복도가 평균 78.3%로 나타나 4년 동안 4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생 피복도가 복구 초기인 1997년부터 3년 동안 연 12%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약 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구공사 때 일정량의 새 심기 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복구 후 초기 3년 동안의 식생 피복도 증가율은 추후 4년 동안의 증가율보다는 훨씬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구목 일대는 두 종류의 복구 공법, 즉 녹화마대 피복 공사와 앙카매트 공법에 의해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복구 공법에 따라 뚜렷한 식생 피복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녹화마대 피복 공사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복구 3년 후에 식생 피복도가 평균 80% 이상으로 나타나 급속한 녹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구 4년 후에는 식생 피복도가 평균 58.7%로 급속히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하면서 7년 후에는 평균 72.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저지대 흙을 이용하여 복구할 때 목초지 등의 흙을 이용함으로써 복구 초기에 오리새(*Dactylis glomerata*)와 같은 목초류 및 토끼풀(*Trifolium repens*) 등 저지대에 자라는 식물

들이 다량 출현하여 복구지역을 피복하였다가 이들 식물이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점차 분포 범위가 감소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제주조릿대나 김의털과 같은 주변 자생식물의 이입으로 식생이 변환되면서 식생 피복도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양카매트 공법에 의해 복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복구 후 5년이 지난 1997년에 평균 11.3%의 식생 피복율을 보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10년이 지난 후에는 평균 5.3%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생 피복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양카매트 공법이 집중강우 등 고산지대의 독특한 환경조건에서 기반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지속적인 토양유실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식생 피복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난 사제비동산 일대는 녹화마대 피복 공사에 의한 복구가 이루어졌는데, 3년이 지난 후 평균 70%의 식생 피복도를 보였고, 7년이 경과한 후에는 평균 97.5%의 식생 피복도를 나타내 비교적 토양안정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지역은 한라산 아고산대의 복구지역 중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서, 다른 고지대의 복구지역보다 환경적인 피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국지적인 지형을 갖고 있고, 식물의 생육환경이 양호하여 식생 피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윗세오름 일대 복구 지역의 식생 피복도는 복구 5년이 지난 후 평균 43.3%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장구목이나 사제비동산 일대 등과 동일한 녹화마대 피복 공사로 복구를 하였는데도 식생 피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윗세오름 일대인 경우 복구 공사에 사용한 흙에서 목초류와 같은 저지대 식물의 출현이 아주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식생 피복도는 종자파종, 야생풀포기심기 등 식생도입처리에 의해 대조구보다 아주 빠른 피복 속도를 나타낸다. 이 지역에 주변 자생식물인 털새 등의 종자를 채종하여 파종하는 등 지속적인 식생복원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식생 복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식생 피복 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복구공사에 사용한 흙의 심토 여부와 같은 채취방법, 채취 장소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라산 아고산대의 복구 지역별로 복구 공법이나 복구 공사에 사용된 흙의 출처, 복구 후 관리 등에 많은 차이가 있어 복구 지역별 식생 피복도의 변화를 비교하는 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나, 복구 때 사용된 흙의 특성과 관리가 식생 피복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지대 식물의 출현으로 식생 피복도를 높여 토양안정화에 기여할 수는 있었으나 아고산대의 고유한 생태계 교란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식생의 변화

남벽정상 일부 지역은 지난 1994년 녹화마대 피복 공사와 함께 김의털을 이용한 새 심기를 실시한 지역이다. 2002년에 한라산연구소에서 발표한 한라산 복구 지역의 식생 변화를 보면, 남벽정상 일대는 복구 후 7년이 경과한 뒤 김의털이 다른 종(種)에 비해 중요치(重要值)가 가장 높았으며, 백리향, 제주양지꽃, 검정겨이삭, 섬바위장대, 곰취 등이 주요 구성 종(種)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김의털은 상대피도(相對被度)나 상대빈도(相對頻度)에 있어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백리향, 제주양지꽃, 검정겨이삭, 곰취, 애기솔나물 등은 상대적으로 피도,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7년에 저지대식물인 개여뀌가 복구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식생의 주요 구성종을 차지할 만큼 출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저지대식물인 개여뀌나 고산지대 개척자 식물로 알려진 한라고들빼기는 5년 후에 고정조사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이들 수종이 고산지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

입된 고산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판단된다.

1994년에 녹화마대 피복 공사로 복구한 후 7년이 경과한 장구목 일대 복구 지역은 김의털, 털새, 오리새, 참비녀골풀, 제주조릿대 등이 식생을 구성하는 주요 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外來) 목초(牧草)인 오리새가 각각 상대적으로 다른 종에 비해 높은 피도와 빈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구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5년 전에 비해 오리새, 썩, 질경이, 토끼풀 등 외래식물 또는 저지대에 자라는 식물의 피도 및 빈도가 감소된 반면 털새, 제주조릿대, 호장근 등 주변 자생식물의 피도 및 빈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개불알풀, 닭의장풀과 같은 저지대식물은 5년 전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에 비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으나 점차 사멸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복구 후 7년이 경과해도 외래 목초류는 지속적으로 높은 피도와 빈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자연 식생의 주요 구성 종, 즉 털진달래, 산철쭉, 눈향나무 등의 관목 및 제주조릿대, 쯤새풀, 김의털의 초본식물과는 식생 구조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식생의 복원을 위해 저지대식물의 제거와 관목류(灌木類)의 복원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구목 일대에 앙카매트 공법에 의해 훼손 지역을 복구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김의털, 털새, 시로미, 한라고들빼기, 제주조릿대 등이 식생을 구성하는 주요 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할 때 주요 구성 종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섬바위장대, 제주양지꽃, 구와썹 등은 고정조사구에서 모두 사라진 반면 제주조릿대 등이 새롭게 출현한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저지대 흙을 이용하여 복구하는 녹화마대 피복 공사를 사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지대 식물의 출현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훼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자라던 고지대 자생식물도 점차 분포역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종 다양성 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아고산대의 훼손 지역은 자연적인 식생 회복(植生回復)이 극히 어렵다는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윗세오름 일대는 복구 후 4년이 경과해 이들 지역의 식생 변화를 밝히는 데는 아직 이르다고 전제하면서, 이들 지역은 복구와 동시에 고정조사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구 초기의 식생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복구 첫 해에 출현한 식물을 보면, 털새, 김의털, 썩, 싸리, 개불알풀, 오리새 등 저지대 식물이 주요 구성 종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의 벼과나 사초과 식물인 털새, 김의털의 이입(移入)과 더불어 녹화마대에 운반된 흙에서 외래목초인 오리새뿐만 아니라 썩, 싸리, 개불알풀 등 저지대 식물이 다수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구 4년 후에는 털새, 김의털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피도와 빈도를 나타냈고, 백리향, 미역취, 흰땃말기 등이 복구지에 먼저 유입되는 주변 자생식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불알풀을 제외한 오리새, 싸리, 썩 등이 비교적 높은 주요 구성 종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며, 엉겅퀴나 토끼풀 등의 저지대 식물이 새롭게 출현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엉겅퀴와 토끼풀인 경우 종자 또는 뿌리 상태로 흙 속에 남아 있다가 이들의 생장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면 출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2년에 발표한 한라산연구소의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구 7년 후의 사제비동산 일대의 식생은 복구 3년 후와 주요 구성 종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피도, 빈도 등의 변화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복구 후 3년이 경과된 1997년 이 지역의 식생을 구성하는 주요 종으로는 오리새, 토끼풀이 다른 종에 비해 아주 높은 피도,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5년 후에는 털새, 김의털이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치를 보인 반면, 오리

새, 토끼풀, 썩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치가 낮아졌다. 이는 털새나 김의털 등 주변에 자생하는 종의 이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복구 7년이 지난 후에도 오리새, 토끼풀, 엉겅퀴, 썩, 조개풀 등 외래 또는 저지대식물이 식생을 구성하는 주요 종으로 자리잡고 있어 모니터링과 더불어 저지대식물 제거작업 등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 지역은 복구 3년이 경과한 1997년에 식생 피복도가 80% 이상을 보여 저지대식물이 생장하는 데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좋은 조건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 자생 식물에 의한 복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라산 복구 지역에서 복구 초기에 저지대 흙의 이용으로 인해 저지대식물들이 주요 구성 종으로 차지하고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고지대의 자생식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생 구조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식생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식물상의 변화

2002년에 발표된 한라산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한라산 아고산대의 훼손지 중 1997년 이전에 복구한 지역에서 관찰된 식물은 총 50과 164종류이다. 이들 식물 중에는 짧게는 1년 동안 관찰되었거나 복구지에 자연적으로 이입되어 매년 새롭게 출현하는 종들도 많았다. 이를 복구지별로 살펴보면, 남벽정상 일대에서 1997년 16과 36종류가 출현했으나 이후 종수가 점차 감소되다가 2001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록담의 경우 1997년 이전까지는 개여뀌(*Persicaria blumei*) 등 여러 종류의 저지대 식물이 관찰되었는데, 1998년 이후 저지대 식물이 정상의 열악한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장구목, 윗세오름, 사제비동산 일대의 복구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종 다양성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복구초기에 출현한 저지대식물의 양적 감소는 발생하였으나 종 자체가 사멸되지는 않았으며, 아울러 주변 식물의 이입 등으로 종수가 계속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997년에서 2001년까지 5년 동안의 한라산 복구 지역에서 관찰된 저지대식물의 출현 상황을 보면, 남벽정상인 경우 1977년까지는 개여뀌, 개불알풀(*Veronica didyma* var. *lilacina*), 점나도나물(*Ceratium holosteoides* var. *hallaisanense*), 주름잎(*Mazus japonicus*), 개망초(*Erigeron annuus*), 토끼풀, 사초과 식물 등 7종의 저지대식물이 관찰되었으나, 1988년에는 토끼풀, 개망초, 사초과 식물 등 3종을 제외한 저지대식물이 사멸되었고, 1999년 이후에는 복구 초기에 출현하였던 모든 저지대식물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복구 초기에 저지대식물이 출현하여 3~4년 동안 생존하였으나 분포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5년 후에는 대부분 고지대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멸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장구목과 사제비동산 일대의 복구지인 경우 식생 피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저지대식물의 생존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몇몇 종은 고지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생활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대식물의 분포 면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추세이긴 하나 장구목 일대의 복구지에서 복구 초기인 1997년에 출현한 21종의 저지대식물 중 복구 7년이 경과한 2001년까지 60% 정도가 생존해가고 있음은 우려할 만하다. 토끼풀과 같은 특정 저지대식물은 상대적으로 고지대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인위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한 수종도 일부 관찰되었다. 다행히 이들 저지대식물은 복구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은 관찰할 수 없었고, 복구지 내에서도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산 또는 감소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에서 2001년까지 5년 동안 한라산 복구 지역에 주변 자생식물이 자연적으로 이입된 종의 변화를 보면, 남북정상인 경우 복구 후 3년 동안 주변 자생식물의 이입이 대부분 이루어진 후 새로운 종 이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구목 및 사제비동산 일대 복구 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변 자생식물의 이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복구 초기에 복구지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저지대식물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들 지역에 주변 자생식물의 이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윗세오름일대 복구지는 복구 후 2~3년 동안 급속한 주변 자생식물 종 이입이 이루어졌고, 이후 이입 속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식물상 측면에서 복구지 대부분의 경우 복구 3~4년 동안 대부분의 주변 자생식물의 이입이 이루어지고 이후 그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아고산대 훼손지 중 녹화마대 피복 공사에 의해 복구가 이루어진 지역은 비교적 식생 피복도가 높게 나타나 토양이 안정화단계에 이르렀으나, 남북정상을 제외한 대부분 복구 지역의 식생은 아고산대의 고유 식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저지대 식물의 출현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종은 환경에 적응해 상당 기간 생존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할 만하다. 다행히 저지대식물이 주변 자연 식생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으나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생태계 복원 측면의 식생 복원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저지대식물의 제거 작업 등 복구 지역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훼손지 복구의 문제점 및 과제

2004년 12월 말 현재 한라산 훼손지 복구율은 전체 훼손지의 58%로서, 앞으로 42%인 9만 5,000여㎡에 달하는 면적이 복구되어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복구 상황을 보면 등산로 주변의 훼손지는 대부분 복구되었고, 앞으로 복구 대상지역은 등산로와 일정 부분 떨어진 지역이 설정될 것이다. 이는 인위적 훼손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구 원칙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다.

2005년 한라산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 한라산에서 훼손지 복구가 실시되지 않은 구역은 어리목~윗세오름 구간 중 민오름(해발 1,650m) 일대 8,608㎡로 가장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 여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곳이다. 지금 이 일대는 급경사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어 더 이상의 훼손 확산 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다. 그 외의 사제비동산, 만세동산 일대의 훼손지도 등산로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인위적인 훼손 위험성이 낮고 더 이상의 훼손 확산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인위적인 훼손지 복구보다 주변 식생의 자연적인 이입에 의한 자연 복원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윗세오름~장구목 일대 구간은 그 동안 중점적으로 훼손지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 대부분 훼손지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산사태 지역이 나지형태로 남아 있는데, 부분적으로 훼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복구가 진행되었으나 다소 보강이 필요한 지역이다. 다만 한라산의 산사태 지역에 대한 인위적인 복구 여부는 보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영실~윗세오름 구간은 일부 등산로 주변의 훼손지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훼손 확산 가능성이 높아 해발 1,550~1,670m의 등산로 주변 훼손지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영실 구(舊)등산로와 같이 비록 부분적으로 나지화돼 훼손되었으나, 주변 식생구조가 교목림이나 관목림 등으로 이루

어져 있고 등산객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훼손 확산 가능성이 낮고 자연 복원 가능성이 높아 인위적인 훼손지 복구는 불필요한 지역이다.

더욱이 선작지왓 일대에 대한 복구 검토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이 광범위하게 부분적으로 나지화되어 훼손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나지화지역일 뿐만 아니라 한라산의 고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선작지왓은 동쪽의 방애오름, 서쪽의 영실기암 능선, 남쪽의 산림지대, 북쪽의 윗세오름 능선에 이르는 해발 1,600~1,700m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이다. 선작지왓 일대는 털진달래와 산철쭉을 주요 종으로 하는 관목림지역과 눈향나무, 시로미와 같은 포복성(匍匐性) 고산식물군락(高山植物群落) 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곳의 관목림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관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한라산에서 유일하게 아고산대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적 환경조건으로 형성된 일부 나지의 발달, 암석의 노출 등은 아고산대 특유의 경관자원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관음사 및 성판악 일대의 경우 등산로 주변에 부분적인 토양침식이 이루어져 있으나 최소한의 복구 작업으로 훼손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등산로 주변의 구상나무림 등으로 이루어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훼손 가능성은 매우 낮은 지역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복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남북순환로의 훼손지는 최소 26㎡에서 최대 329㎡ 크기의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훼손지 대부분이 경사가 없는 평지이고 제주조릿대 등의 이입으로 훼손 면적 확산 가능성은 극히 낮아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요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지난 2000년에 조사된 훼손면적과 2004년에 조사된 훼손 면적을 비교할 때 훼손 면적이 상당 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자연적인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상 일대의 경우 분화구 외륜(外輪)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암벽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훼손지는 서북벽 암벽붕괴지 및 북벽 외륜 사면의 암벽붕괴지이기 때문에 현행 녹화마대 공법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는 인위적인 훼손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등산로 주변과 같이 탐방객의 답압에 의해 일차적인 훼손이 초래되었거나 이후 자연환경요인 등에 의해 훼손이 확산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자연적인 훼손지로 판단되는 지역, 즉 등산로에 인접하여 있지 않으며 사람의 출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복합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나지는 복구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토지의 형질에 변화를 가져오는 곳을 의미하는 훼손지(damaged land)는 복구의 대상이지만 자연적으로 지피식생이 장기간에 걸쳐서 소멸되거나 파괴되고 각종 형태의 토양침식이 발생해 강우(降雨) 때에 토사의 유실이 일어나 나지형태로 된 곳을 의미하는 황폐지(denuded land 또는 devastated land)가 복구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라산의 등산로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지는 황폐지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에 훼손지 복구가 광범위하게 실시된 선작지왓 일대, 윗세오름 일대 등의 나지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고산지대는 열악한 환경적 조건 등으로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더라도 집중 강우, 강한 바람 등의 자연환경요인에 의하여 지피식생의 파괴, 나지 형성, 식물의 이입과정이 반복되면서 극한 환경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다양한 고산 동·식물들의 지속적인 종 보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훼손지 복구는 녹화(綠化)란 개념에서 경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비옥한 토양에 잘 자라는 식물의 급속한 번성 등에 따른

종 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한라산 황폐지의 대부분은 제주조릿대와 일부 벼과, 사초과 식물들과의 경쟁에 밀려 다양한 희귀(稀貴), 특산(特産), 고산(高山)식물들의 종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의 황폐지(나지) 형성은 고산(高山)으로서의 한라산의 가치를 더해주는 경관적 자원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 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의 훼손지 복구가 58%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복구 대상지역은 상당 부분 고산 황폐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라산의 아고산대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관목림과 자원적이나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다양한 희귀 및 특산식물, 고산식물 등이 혼효된 식물상을 갖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측면의 선행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복구대상지로 선택된 지역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위적 요인 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나지 발생 여부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자연적 요인에 의해 나지가 형성되었고, 출입제한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 확산 가능성이 없다면 복구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황폐지(나지)에 대한 자체적인 복원 능력 또는 종 다양성의 유지 등 생태적 가치를 판단하여 복구대상 지역에 대한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황폐지란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고유한 생태계가 존재하며, 이들 생태계는 한라산 고산지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라산의 고산지대는 국가적인 천연기념물, 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적 항속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황폐지(또는 훼손지)의 토양, 지질, 식물환경의 변화가 자연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훼손, 지형의 부분 변화, 식물의 재생 등 자연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의 훼손이 경관적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후 통일되고 보편적인 경관유지가 아니라 한라산의 고지대 환경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또 다른 경관을 만들 것이고 그 가치는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녹화마대 공법에 의한 훼손지 복구 작업은 영실등산로 주변, 장구목 일대 산사태지 보강공사 등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복원이나 자연천이를 유도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라산 아고산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자연생태계 및 생물 종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인위적인 복구공사에 의한 복원보다 훨씬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훼손지 복구 및 식생 복원 추진 방향

과거 한라산의 고산지역은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보전에 관한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나열하거나 훼손지 복구에 관한 합당한 처방책을 거의 제시하지 않아 실패를 거듭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7년 『한라산정상보호계획 보고서』에서 제시된 타당한 훼손지 복구방법과 등산로 시설의 계획과 설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안에 기초하여 복구를 수행해야 한다.

훼손 지역의 확산을 저지하고 원식생(原植生)을 회복하여 훼손지 경관을 주변 경관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구를 실시한다는 기본 방향으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훼손된 한정된 지역의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등산로 주변의 파괴 방지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첫번째는 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보장된 보도시설을 설치하고, 두 번째는 등산로 건설 행위나 등산로 시

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경관을 파괴 또는 침해시키는 것을 배제시키면서, 세 번째는 등산객의 요구와 욕구를 수용하며 등산로 및 관련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훼손지 식생 복구는 고산지대 자생식물을 이용한 복원을 전제로 하여 단계별로 체계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식생 복구의 기본방안은 첫째, 녹화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둘째, 토양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식생의 생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초공을 시설하며, 셋째, 기초공이 완료되면 목표 식생을 도입하기 위한 식생공을 시행하여 녹화를 하고 넷째,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녹화가 불가능한 곳은 낙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방지 대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안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식생의 생육 기반 확보에 따른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초본류 종자를 채취·파종하며, 복구용 고산성 목본식물의 양성·식재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결론적으로 훼손지 복구를 위하여 우선 선행 또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첫번째는 한라산 훼손지 복구에 대한 행정당국, 관련학자, 전문가, 지역 주민의 확고한 의지와 합당한 훼손지 관리 철학의 확립, 두 번째는 훼손지 복구를 위하여 행정당국, 관련전문가, 자원봉사자, 언론계로 구성된 관리체계의 구성, 세 번째는 관리자의 교육과 훈련, 네 번째는 종자 준비, 실생묘(實生苗)의 양성과 식생 복원을 위한 사전 실험과 기존의 성공적으로 복구된 사례의 연구, 다섯번째는 등산로 시설 개선, 여섯 번째는 복구장비 및 복구 자재운반 수단 강구, 일곱 번째는 복구 예산과 장비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원과 생태계보전 문제는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당국과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협조 없이는 공원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한라산 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합당한 철학으로 행정당국, 관련학자, 전문가, 제주도민의 협조체계에 훼손지 복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대에 가장 감동적인 자연보전운동이 될 것이며 제주도 역사에 귀감이 될 것이다.

4 한라산 등산로 정비

1960년대 후반 한라산국립공원 등산로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등산이용 규모의 증가나 과도한 이용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결과 이용에 대한 내구력이 큰 지역으로 등산로 노선을 선정하거나 취약한 고산 초지에 영향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등산로 시설을 설계하기보다는 정상까지 최단 시간에 등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저렴한 경비로 등산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현지의 자재를 이용한 돌 포장을 실시하였다. 그로 인해 등산거리는 짧아졌지만 암반이 노출되어 이용에 대한 내구력이 가장 취약한 서북벽 등산로가 개설되었는데, 이 등산로는 개설 후 과도한 이용 압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서북벽등산로에 대한 이용 압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체 루트로 개설된 남벽등산로도 광범위하게 파괴되었다. 이러한 파괴는 서북벽, 남벽등산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성판악, 관음사 등산로 및 다른 고산지역에 있어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의 위험이 있다. 이제 과도 이용에 대한 생태계의 파괴 방지와 회복의 대책은 한라산국립공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립공원 전체의 보편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한라산 등산로 정비 공법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는 우선 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보장된 등산로 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다. 이는 등산객이 등산로 주변의 식생으로 진입하여 식생을 파괴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토양이 노출된 등산로는 눈 또는 비의 영향으로 질퍽해서 미끄러지기 쉽고 돌 포장 기초가 파괴된 등산로는 노면의 요철이 심하여 걷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주변의 초지를 이용하여 걸어가게 되고, 주변의 경치를 조망하거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또는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해서 초지식생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생을 파괴시키지 않는 첫 조건은 걷기 쉽고 튼튼한 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라산의 돌 포장 보도는 정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도한 답압과 한랭 기상조건 때문에 그 기초가 파괴되어 노면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등산객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선진외국의 한랭지나 고산지역에 위치한 자연공원에 한라산처럼 불편한 돌길을 조성해 놓은 사례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취약한 고산 초지를 보호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폭이 좁은 목도(timber-walkway 또는 board-walk)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또한 한랭지나 고산지역의 경우에는 동결(凍結)이나 융해(融解)가 원인이 되어 기초가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동상에 약한 지반 특성을 갖고 있는 한라산 고산지역에 설치되는 돌계단이나 돌 포장 등산로는 피해를 받기 마련이어서 그 내구력이 상당히 낮게 된다. 일단 파괴된 등산로 시설은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등산자가 그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등산객이 등산로 주변의 초지를 답압하게 되고 그 결과 등산로 주변의 식생이 파괴된다. 동상이 생기지 않는 재료와 구조로 제작된 튼튼하고 편리한 등산로야말로 등산자가 주변 초지로 진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등산로 건설 행위나 등산로 시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경관을 파괴 또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1960년대 후반 서북벽에 등산로를 건설하면서 바위를 쪼개서 계단을 설치하거나 기반암의 절리에 철주를 박아서 가드레일을 만들었다. 그 결과 서북벽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일단 붕괴되기 시작한 서북벽 일대는 이용이 금지된 후에도 집중강우나 중력에 의해 가속 침식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주변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돌 포장 보도를 만들면서 자연

석 채집 장소를 나지화(裸地化)했고 측구(側溝)를 조성하여 자연의 배수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사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괴된 돌 포장 등산로를 도 시공원의 보행로나 자연관찰로처럼 넓고 편리한 보행로로 정비하게 되면 등산로 시설이 주변의 미세한 자연경관을 압도하여 자연공원의 매력인 자연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등산로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원시성과 한적한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노선과 형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차폐물이 빈약한 고산 초지의 등산시설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곤란하다. 또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지반을 평평하게 정리하는 것이나 시설을 지면에 밀착시키는 행위도 토양 침식이나 식생 훼손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시설설치 공사 때에 기존 지반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시설물 하부에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식물종자, 야생동물, 지표수의 이동을 단절·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등산로시설은 그 형태와 색채 등이 자연경관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등산객의 요구와 욕구를 수용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등산로 및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등산로의 노선이 등산 목적에 부합되게 설정되어야 하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과거 노선설정 단계에서 경관의 조망이나 재해방지 측면의 고려가 불충분했다. 특히 성판악이나 돈내코등산로는 경관의 연출효과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노선이 결정된 등산로이다. 그 결과 등산거리도 다른 등산로에 비해 멀고, 등산 이용의 쾌적성과 흥미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이용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등산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선이 조정되고 휴게, 조망, 사진촬영을 위한 장소와 시설이 적당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비탈면의 안전성이 불량한 곳이 많다. 조면암이나 현무암은 판상이나 주상절리가 발달되고 있어서 붕괴되기 쉽다. 일부 등산로 노선은 낙석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반암이 붕괴되기 시작한 곳은 재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설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한라산 등산로 정비 현황

자연휴식년제 구간의 등산로를 포함한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정비는 지난 197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나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정비는 1970년대 이후 실시하였던 자연석 등을 이용한 정비가 아니라 데크, 침목 및 자갈 등을 이용한 정비가 1994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총 42.2km에 걸쳐 실시되었다. 특히 2001년에 성판악 및 관음사등산로는 데크, 침목 및 자갈포설 등의 공법으로 대부분의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등산로의 많은 환경변화가 초래되었다.

등산로의 자연휴식년제

자연휴식년제는 탐방객의 집중적인 이용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 산 정상부, 계곡 또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훼손된 자연을 원상 회복 시키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된 제도이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중 일정한 구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의 도입은 지난 1986년 5월 1일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 정상 일대까지 2.0km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실시되었고 볼 수 있다. 이후 2~3년 간격으로 출입제한구역을 확대 또는 조정하면서 2005년 12월 말까지 13회에 걸쳐 재지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4년 7월 1일부터 돈내코등산로 전 구간,

정상 순환로, 남벽 순환로 등 한라산 정상 일대의 대부분 등산로가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통제되고 있다. 이들 출입제한구역 지정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데, 심하게 훼손된 등산로의 정비와 자연복원력의 효과를 높이고 비등산로를 이용한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훼손 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등산로 중 훼손이 심한 구간 및 보호가 요구되는 공원구역에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출입제한구역 중 등산로는 정비 및 복원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시 개방함으로써 자연휴식년제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구간은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 정상에 이르는 서북벽등산로 1.3km를 포함하여 총 6개의 구간에 19.02km가 지정되어 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 42.2km의 45.1%로 등산로 정비 및 훼손지 복구를 목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참고문헌】

제1장

- 강정효. 2003. 한라산 「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돌베개.
- 김두봉. 2003. 「제주도실기」 제주: 제주시우당도서관
- 김상헌. 1986. “남사록”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 김석익. 1986. “탐라기년”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 김정. 1986. “제주풍토록”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서울: 신서원
- 노형동지발간위원회. 2005. 「노형동지」 제주
- 이원진. 1986. “탐라지”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 육십(60)대산회. 2003. 1960년대 한국의 산악운동. 초창기 지방 산악계의 활동상. 대구·광주·부산·전주·제주편. 조선일보사.
- 서귀포시서북문화국제교류협회. 2002. 「서북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제주: 서귀포시서북문화국제교류협회
- 제대신문. 1987. 「제대신문1, 2」 제주: 제대신문사
- 제주도. 1993. 「제주도지1, 2, 3」 제주: 제주도
- 제주도. 1995. 「조선총독부관보중 제주록」 제주: 제주도
- 제주도. 1996. 「제주100년」 제주: 제주도
- 제주도. 1996. 「도제50년 제주실록」 제주: 제주도
- 제주도. 1994. 한라산의 영산 한라산. 제주도.
- 제주도. 1962-2000. 「제주도」 제주: 제주도청
- 제주도. 2000. 자연친화적인 한라산 식도설치 타당성조사.
- 제주도동굴연구소. 2004. 「동굴연구」 제주: 제주도동굴연구소
- 제주동양문화연구소. 1999. 「제주도 마애명」 제주: 제주도
- 제주문화방송. 1986. 「조선왕조실록중 탐라록」 제주: 제주문화방송
- 제주문화방송. 1994. 「속탐라록」 제주
- 제주문화원. 2000.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제주문화원.
-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 제주불교사연구회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 제주산악회. 1984. 한라산. 통권 제10호. 제주산악회.
- 제주산악회. 1994. 한라산. 통권 제11호. 제주산악회.
- 제주산악회. 2004. 한라산. 통권 제12호. 제주산악회.
- 제주신문, 제남신문 외 일간지.
- 제주시. 2000.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제주: 제주시
-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 한라산국립공원관리계획.
- 한국산서회. 2003. 산서. 한국산서회. 제14호.
- 한국산악회. 1996. 한국산악회 오십년사.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7. 한라산정상보호계획.

大野秋月. 1996. 「남선보굴 제주도」제주: 제주시 우당도서관
靑柳網太郎. 1998. 「조선의 보고 제주도안내」제주: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2장

강경호. 2003. 한라산 조난구조사「산서 제14호」. 한국산서회.
강정효. 2003. 한라산 「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돌베개.
김우선. 1999년. 「사람과 산 (제114호) - 한라산 조난사고」. 도서출판 사람과 산.
사람과 산. 1999(4월호). 제주도 대연구. 도서출판 사람과 산(통권 114호).
서귀포백록산악회. 2003. 백록(서귀포백록산악회 창립30주년기념) 제12집.
육십(60)대산회. 2003. 1960년대 한국의 산악운동. 초창기 지방 산악계의 활동상. 대구·광주·부산·전주·제주편. 조선일보사.
제주도. 1996. 「제주100년」 제주: 제주도
제주도. 1994. 한라산의 영산 한라산. 제주도.
제주동양문화연구소. 1999. 「제주도 마애명」 제주: 제주도
제주문화원. 2000. 옛사람들의 등한라산기. 제주문화원.
제주산악회. 2004. 한라산. 통권 제12호. 제주산악회.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2004. 한라산국립공원관리계획.
진창기. 2003. 한라산 등반사「산서 제14호」. 한국산서회.
한국산서회. 2003. 산서. 한국산서회. 제14호.
한국산악회. 1996. 한국산악회 오십년사.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제3장

고정균. 2002. 한라산 아고산대의 훼손지복구 및 식생복원. 조사연구보고서(창간호) 한라산연구소.
고정균. 2003. 한라산국립공원내 자연휴식년제구간 등산로의 환경훼손. 조사연구보고서(제2호) 한라산연구소.
고정균. 200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의 보존·관리. 조사연구보고서(제3호) 한라산연구소.
고정균. 2005.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에 대한 재고(再考). 조사연구보고서(제4호) 한라산연구소.
고정균, 문명옥, 고석찬. 1999. 한라 백록담 분화구내의 식생과 식물자원. 한국식물자원학회지.
고정균, 문명옥. 2002. 한라산 아고산대 복구지 식생 및 식물상 변화. 조사연구보고서(창간호) 한라산연구소.
고정균, 문명옥, 김찬수. 2002. 한라산 백록담일대의 식생과 식물상. 2002 한국환경생태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제민일보. 1997. 1. 1. 『한줌 흙에 실린 ‘山 사랑’』
제민일보. 1997. 3. 24. 『한라산에 새 생명을…너도나도 훼손지 흙 한줌』
제민일보. 1997. 4. 24. 『각계각층 1만6천6백명 참여 ‘한라산에 새 생명을…’ 출범 한달』

제주도. 2000. 한라산 기초조사 및 보호관리계획수립.

제주일보. 2005. 6. 15. 『30여년 찬·반 논쟁 마침내 '마침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7. 한라산정상보호계획.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5.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등산로 및 장구목 훼손지 복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3. 한라산 백록담 담수적량 보존용역 보고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3. 한라산등산로 및 남벽정상훼손지 복구설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991. 한라산등산로 훼손지 복구설계.

【사진 목차】

- <사진 1-1> 한라산 정상에 산정호수 백록담 / 15
- <사진 1-2> 조선시대 선인들의 한라산 산행 거점이 되었던 존자암 / 18
- <사진 1-3> 한라산 정상에 있는 조정철의 마애명 / 24
- <사진 1-4> 선작지왓의 전경 / 33
- <사진 1-5> 어승생악의 토치카 모습 / 42
- <사진 1-6> 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 / 56
- <사진 1-7> 용진각 원형대피소 / 61
- <사진 1-8> 어승생악 정상에서 바라본 Y계곡과 어리목 / 130
- <사진 1-9> 윗세오름 대피소 / 132
- <사진 1-10> 영실소나무 숲 기념비 / 133
- <사진 1-11> 영실기암 / 134
- <사진 1-12> 속밭일대 삼나무 / 135
- <사진 1-13> 성판악코스의 동릉 정상 / 137
- <사진 1-14> 장구목 / 140
- <사진 1-15> 삼각봉 / 142
- <사진 1-16> 어승생악 정상에 등산객들 / 145
- <사진 2-1> 용진각에 있는 마에카와 도시하루의 추모비 / 157
- <사진 2-2> 1950년대의 등산 모습 / 160
- <사진 2-3> 1100도로가 포장되기 전의 한라산 산행은 해안지대에서부터 도보로 해야만 했다 / 161
- <사진 2-4> 초창기의 적설기 한라산 산행에 나서는 산악인들 / 164
- <사진 2-5> 1960년대 겨울철 한라산 등산객의 모습. 왼쪽의 등산객이 맨 배낭이 당시 기본적인 키슬링이다 / 175
- <사진 2-6> 관음사에 있는 서울법대 이경재의 추모비 / 176
- <사진 2-7> 지금은 험린 어리목산장 앞에 모인 제주 산악인들의 초창기 모습 / 179
- <사진 2-8> 용진각 대피소 / 183
- <사진 2-9> 동굴탐사 등 학술조사에 비중을 두었던 한라산우회 / 188
- <사진 2-10> 국토종주삼천리 행사 사진 / 189
- <사진 2-11> 한라산 철쭉제 사진 / 191
- <사진 2-12> 적설기 한라산 산악훈련 / 193
- <사진 2-13> 1970년대에 제작된 등반기념 페넌트들 / 197
- <사진 2-14> 백록담 분화구를 횡단하는 1970년대의 산악 훈련모습 / 198
- <사진 2-15> 한국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던 제주출신의 산악인 고상돈 동상 / 199
- <사진 2-16> 장구목 정상 바위에 있는 고동익 대장의 동판 / 200
- <사진 2-17> 영실 중앙폭의 빙벽등반 모습 / 205
- <사진 2-18> 장구목에 새겨진 맥킨리 원정대원들의 추모비 / 209
- <사진 2-19> 제주지역 대학생들의 눈사태 사망 소식은 제주도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다 / 212

- <사진 3-1> 남벽 정상 훼손 및 복구 모습 / 256
- <사진 3-2> 서북벽 기반암이 붕괴된 모습 / 258
- <사진 3-3> 백록담일대 다양한 유형별 훼손모습 / 259
- <사진 3-4> 한라산 아고산대 훼손에 따른 나지화 모습 / 260
- <사진 3-5> 한라산 탐방객 등산 모습 / 263
- <사진 3-6> 장구목 일대 녹화마대 포설 모습 / 271
- <사진 3-7> 한라산국립공원에 설치된 훼손지 복구용 모노레일 운행 모습 / 272
- <사진 3-8> 헬기를 이용하여 훼손지 복구용 흙을 운반하는 모습 / 273
- <사진 3-9> 한라산 훼손지 복구 모습 / 274
- <사진 3-10> 한라산 복구지 식생 복원 모습 / 275
- <사진 3-11> 훼손지 식생 복원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장면 / 286
- <사진 3-12> 훼손지 식생 복원을 위해 고지대 자생식물을 증식하여 심는 모습 / 292
- <사진 3-13> 백록담 일대는 동릉을 제외하고는 훼손지 복원을 위해 휴식년제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296

【표 목차】

- <표 1-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현황 / 146
- <표 1-2> 한라산국립공원 매표소 현황 / 146
- <표 1-3>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 현황 / 147
- <표 1-4>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 현황 / 148
- <표 1-5>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 현황 / 149
- <표 1-6> 한라산국립공원 내 단독 휴게시설 현황 / 149
- <표2-1> 한라산 조난사 / 213
- <표 3-1>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자연보호 관련 용역 현황 / 254
- <표 3-2> 한라산 훼손지 복구 및 자연보호관련 용역 내용 / 255
- <표 3-3> 한라산국립공원 내 등산로별 훼손지 현황 / 257
- <표 3-4> 한라산 주요 등산로별 훼손 유형 / 258
- <표 3-5> 한라산 아고산대 초지의 답압에 의한 식생파괴 현상 / 261
- <표 3-6> 한라산국립공원 내 연도 및 등산로별 등산객 현황 / 264
- <표 3-7> 한라산국립공원 연도별 훼손지 복구 현황 / 276
- <표 3-8> 한라산 복구지 식생 복원용 묘목식재 현황 / 277
- <표 3-9> 한라산 복구지 식생 복원용 묘목식재 현황 / 277
- <표 3-10> 한라산국립공원 내 연도별 등산로정비 현황 / 298
- <표 3-11>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지정 역사 / 300